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논문

대안적 주거 실천으로서의
청년 비친족가구에 관한 연구
- 주거 및 관계 욕구를 중심으로 -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학
박 정 현

대안적 주거 실천으로서의
청년 비친족가구에 관한 연구
- 주거 및 관계 욕구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 인 권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6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전공
박 정 현

박정현의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7월

위 원 장 전 상 인

부위원장 정 현 주

위 원 박 인 권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년의 경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 비친족가구 사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청년들이 기존 주거 방식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청년 비친족가구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주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인가구 - 원룸 주택 방식, 공동 거주 가구 - 사택, 기숙사 방식, 원가족 - 투룸 이상 주택 방식 등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택할 수 있는 주거 방식은 그러나 생각보다 열악한 청년들의 주거 실상을 드러내며,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청년들은 보다 쾌적한 주택과 친밀하고도 느슨하며 평등한 관계의 가구원, 주거비 부담 완화, 사생활 및 주체성이 보장되는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 주거 전략으로 기존의 친밀성과 신뢰가 구축된 다른 청년과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비친족가구로서의 이어나가는 일상적 실천은, 이러한 대안적 주거 방식의 형성 요인 외에도 안전과 관계, 존중, 자아실현 등과 관련된 욕구들을 추가로 충족시키는 한편, 일부 사례에서 가구원 간 이질성으로 인해 갈등이 누적되고, 해당 주거 공간이 임차 형태이자 타인과 함께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오히려 자신의 공간으로서 안정감을 확보하는 데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한편, 향후 개인 신상의 변동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 신분 여부와 결혼에 대한 태도 등 청년들이 놓인 조건은 비친족가구 유지 기간에 또한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드러났다.

이상 비친족가구 형성 및 유지 과정을 통해 주거 불안정성과 전통적인 가족관이 약화되는 청년들의 인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청년 비친족가구가 출

현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가구를 형성하고 상위 주택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경제적 약자나 비친족가구와 같은 비정상가족에게 주거 정책의 혜택이 제한되면서 공간적 배제의 문제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기존 주거 방식과 비교하여 비친족가구가 가지는 관계적 차원에서의 이점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 권리’가 보장될 때 달성 가능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다양한 방식에 반영된 청년들의 각기 다른 조건과 가족관은, 청년들 내부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주거 정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며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청년, 비친족가구, 대안 주거, 정상가족, 공간적 배제,
규범적 시공간성

학 번 : 2019-25420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문제 및 방법	2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4
제 1 절 정상가족 담론과 공간적 포용	4
1. 가족 및 정상가족의 개념	4
2. 가구 생애주기 및 규범적 시공간성	7
3. 공간적 포용과 가족 개념의 한계	11
제 2 절 청년의 주거와 비친족가구	13
1. 청년의 주거 불안	13
2. 청년의 관계 욕구	14
3. 비친족가구의 개념과 형성 요인	17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9
1. 청년의 대안적 주거 방식에 대한 연구	19
2. 연구의 차별성	27
제 4 절 분석틀의 설정	28
제 3 장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33
제 1 절 청년 비친족가구의 현황	33
제 2 절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35
1. 연구방법	35
2. 연구참여자	37

제 4 장 청년 비친족가구의 형성 과정	39
제 1 절 기존 주거 방식의 한계와 대안 주거 방식의 목적	39
1. 1인가구 - 원룸 주택 방식	39
2. 공동 거주 가구 - 사택, 기숙사 방식	43
3. 원가족 - 투룸 이상의 주택 방식	49
제 2 절 청년 비친족가구를 통한 대안 주거 목적 달성	52
1. 분담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52
2. 친밀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구원 확보	58
3. 정상가족 중심의 주택을 재영토화하기	62
제 3 절 소결	64
제 5 장 청년 비친족가구로서의 공간 경험	67
제 1 절 청년 비친족가구의 장점	67
1. 개선된 주거 공간과 경제적 절약	68
2. 범죄 안전 확보	72
3. 고독감 해소와 함께 사는 재미 느끼기	74
4. 호혜적 돌봄노동 확보	78
5. 자기 관리 강화와 자아실현의 실천	81
제 2 절 청년 비친족가구의 단점	84
1. 가구원 간 이질성 다루기	85
2. 내 소유가 아닌 임시적 주거 공간	87
제 3 절 학생 신분 여부 및 결혼에 대한 태도	88
1. 학생 신분 여부가 비친족가구 유지 기간에 미치는 영향	90
2. 결혼에 대한 태도가 비친족가구 유지 기간에 미치는 영향	93
제 4 절 소결	106
제 6 장 청년 비친족가구의 사회적 의미	110

제 7 장 결론	116
참고문헌	122
Abstract	127

표 목 차

[표 2-1] 청년의 대안적 주거 방식에 관한 선행연구	24
[표 3-1] 전세대 및 청년 가구주의 비친족가구의 현황	34
[표 3-2] 연구참여자 목록	38
[표 5-1] 연구참여자별 청년 비친족가구 유지 기간 및 관련 특성	89
[표 5-2] 학생 신분 여부별 청년 비친족가구 유지 기간 및 관련 특성	90
[표 5-3] 결혼에 대한 태도별 청년 비친족가구 유지 기간 및 관련 특성	94

그림 목 차

[그림 2-1] 가구, 세대, 가족 개념의 차이	6
[그림 2-2] 인구총조사 세대구분별 가구 조사 항목	6
[그림 2-3] Murphy and Staple(1979)의 가구 생애주기 모형	8
[그림 2-4] Gilly and Enis(1982)의 가구 생애주기 모형	9
[그림 2-5] 연구의 분석틀	29
[그림 4-1] 청년 비친족가구의 형성 과정	65
[그림 5-1] 청년 비친족가구의 유지 과정	107
[그림 6-1] 청년 비친족가구의 형성 과정 및 유지 과정	115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적 불안정성이 전세계적으로 증가되는 가운데, 청년 세대로 번진 주거 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1인가구의 비율, 비혼과 동거가 증가하고 유래없는 저출산율을 마주하며 정상가족의 신화가 흔들리는 추세다. 안락하고 포근한 안식처로 여겨졌던 정상가족이 더 이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사례들¹⁾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청년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추세²⁾다. 여성가족부도 2021년 1월 25일, 건강가정기본계획 개정안을 발표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적극 수용하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전체 가구수가 감소하는 경향 속에서도 전체 가구수 대비 비친족가구수의 절대적인 비율은 미약하나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비친족가구가 현재 한국이 처한 인구구조적인 변화를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청년들이 처한 경제적 불안정성,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
- 1) 통계상으로는 2016년 이후 매년 친족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로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으로는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대폭 늘었다. “[이래도 되나요] 어떻게 자기 딸한테…매년 늘어나는 친족 성범죄”, 연합뉴스, 2020.8.28.,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7150400797>(접속일: 2021.5.22.). “서울 보호아동 75% '부모가 양육포기'…아동학대는 17%”, 연합뉴스, 2021.5.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0144400004?input=1195m>, (접속일: 2021.5.22.).
 - 2) 다양한 가족을 다룬 에세이 판매 부수가 2016년 이후로 매년 출간 종이 늘어나고 있으며, 청년 중에서도 여성을 중심으로 주요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에스24,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하는 여가부 발표 이후 관련 도서 판매량 증가”, NewsWire, 2021.2.18.,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1872> 9 (접속일: 2021.5.21.)

교차하는 지점에서 본 연구는 특히 '청년 비친족가구'의 출현에 주목하고자 한다. 청년 시기는 전통적인 생애주기상에서 독립을 통해 새로운 가족이자 가구를 형성하고 결혼, 출산이라는 생애과업을 수행해왔던 시기인만큼, 경제적으로 독립이 어려워지는 한편 가족관이 다변화되고 있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친족가구는 가장 비규범적인 가족 형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청년들이 처한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려는 대안을 통해 정상가족 담론에 균열을 내고 있음을 가시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 비친족가구의 형성 및 유지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청년 비친족가구 형성 및 유지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 비친족가구의 사회적 의미와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 2 절 연구문제 및 방법

본 연구는 1) 청년 비친족가구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요인과 그 배경, 2) 청년 비친족가구가 유지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3) 그리하여 청년 비친족가구가 지니는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1:1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코로나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연구참여자가 인터뷰 방식으로 대면 인팅/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화상회의 인터뷰/메일 인터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인터뷰 진행 시간은 약 30분 ~ 1시간 반으로 잡아 인터뷰 내용이 충실하게 담길 수 있도록 하였고, 초기 연구참여자는 연구자 본인의 지인을 통하여 확보한 뒤, 연구 참여자들과 연구자 본인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스노우볼링(snowballing)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을

충원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가구 형성 및 임대차 주택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참여자의 성별, 비친족가구 형성 시 나이, 직업, 소득 등의 요인,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된 과정 및 그 과정에서 경험했던 비친족가구의 장단점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후 질적 연구의 기본적인 방식에 따라 인터뷰 내용을 ‘개방 코딩 - 범주화 - 범주 확인’순으로 분석(유기웅 외, 2018: 328)하여, 청년 비친족가구 형성 및 유지과정을 파악하였고, 현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참여자 기준은 ‘비친족 관계에 있는 다른 청년과 자발적으로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고 있거나, 청년기에 형성했던 경험이 있는 청년(만 19세~34세)’으로, 총 9명의 연구참여자를 모집했다. 연구참여자는 여성 5명, 남성 4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혹은 과거 비친족가구 형성 시 여러 직업군과 소득을 지니고 있었으나, 대부분 서울이나 분당과 같이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서 거주한다는 유사성을 보였다. 또한 전월세의 임차형태로 투룸 이상의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지 기간은 다양하게 나타나 최소 5개월에서부터 최장 5년 이상의 범위를 보였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정상가족 담론과 공간적 포용

1. 가족 및 정상가족의 개념

주거³⁾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같이 사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구’보다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만큼, ‘가족’의 개념에서부터 주거와 관련된 논의를 전개해 갈 필요가 있다.

민법 제779조(2021.1.26. 시행)에 의하면,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며,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가족으로 보고 있다. 민법 제779조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한 건강가족기본법(2016.12.20. 시행)은,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가

3)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주거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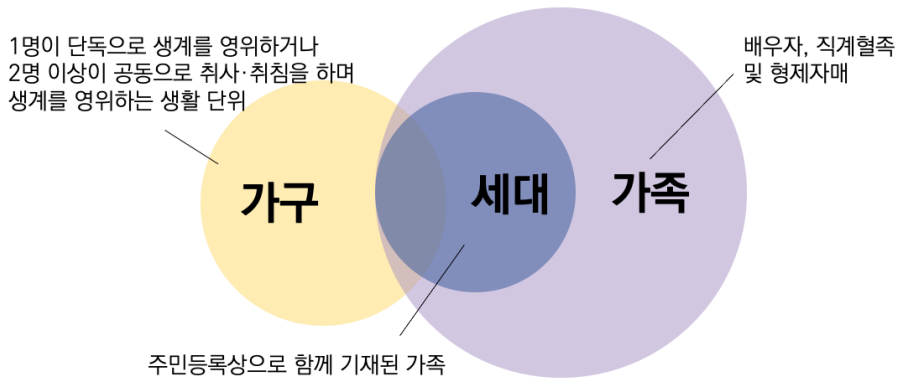
주거²(住居): 「명사」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 또는 그런 집. ≒거주.

이러한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주거는 우선 삶의 터전으로서 기능하는 ‘집’, 즉 ‘주택’의 의미를 나타내며, 동시에 그 안에서의 ‘삶’은 ‘누구’와 함께 사는지에 대한 내용을 수반하는 ‘가구’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택’과 ‘가구’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주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족기본법 제1장 제3조에 따르면, 가족이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다. 이를 기반으로, 가족이 지향해야할 이상적인 모습을 규정한 건강가정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하는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된다. 이러한 법적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은 혈연 및 법적으로 인정하는 관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성립되며, 이들이 ‘생활을 함께’ 하는 가운데 일상적인 기능을 통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건강가족기본법 제1장 제2조 기본이념에서도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가구’는 전국적으로 공적 조사를 실시하는 통계청에서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라고 정의하였다. 혈연 및 법적 관계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함께 생활을 영위한다면 ‘가구’에 해당되므로 ‘가족’과는 정의상 별개의 개념이며,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세대’는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정의되어 가장 협소한 의미장을 가진다.

이상의 내용으로 가구, 가족, 세대의 정의를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가족은 혈연 혹은 혼인 및 입양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회의 기본단위로, 반드시 생활을 함께 하지 않아도 무관하며, 이들이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다면 ‘세대’로 규정된다. 반면 가구의 경우에는 법적 가족에 대한 해당 유무와는 별개로 ‘생계를 영위하는 최소 생활 단위’인 만큼 1인부터 가구로 인정이 된다. 각 용어들은 규정하는 범위가 명확하며 서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또한 명료하다.



[그림 2-1] 가구, 세대, 가족 개념의 차이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해당 용어들이 사회에서 활용되는 맥락과 쓰임이다. ‘가구’는 사람들 간의 법적 관계나 주민등록상 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로 생활을 같이 한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활용하기에 적합한 개념이나, 가장 대표적인 가구조사인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서는 다분히 ‘가족’에 무게를 둔 ‘세대’를 중심으로 가구를 조사한다. [그림 2-2]는 인구총조사에서 세대구분별 가구를 파악하는 항목이다.

• 가구주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 ① 가구주
- ② 배우자
- ③ 자녀
- ④ 자녀의 배우자
- ⑤ 가구주의 부모
- ⑥ 배우자의 부모
- ⑦ 손주, 손주의 배우자(외손주 포함)
- ⑧ 증손주, 증손주의 배우자
- ⑨ 조부모
- ⑩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 ⑪ 형제자매의 자녀, 형제자매의 자녀의 배우자
- ⑫ 부모의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⑬ 기타 친인척
- ⑭ 그 외 같이 사는 사람(고용인, 하숙인 등)

[그림 2-2] 인구총조사 세대구분별 가구 조사 항목

세대를 중심으로 한 해당 조사항목의 문제점은 가족 이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는 모두 “그 외 같이 사는 사람”으로 묶으므로 세부적인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공식사이트에서는 조사 결과가 각종 정책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계획에 활용되는 만큼, 달라진 사회상을 조사 항목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 개념에 방점을 두고 가구 조사를 실시한다는 지적⁴⁾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혈연 및 법적 관계를 토대로 정의된 ‘가족’ 개념을 중심으로 ‘가구’를 파악하는 경향이 쉬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가부장제-이성애-인구재생산’을 주축으로 한 가족에 대한 정상성(normality)이 아직도 사회의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는 흔적이다. 정상가족 담론은 분리된 성역할을 수행하는 근대적 핵가족, 즉 부부 및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가 일반적이며 바람직하다고 보는 규범을 재생산함으로써, 다른 형태의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차별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는 지적을 받는다(이재경, 2015: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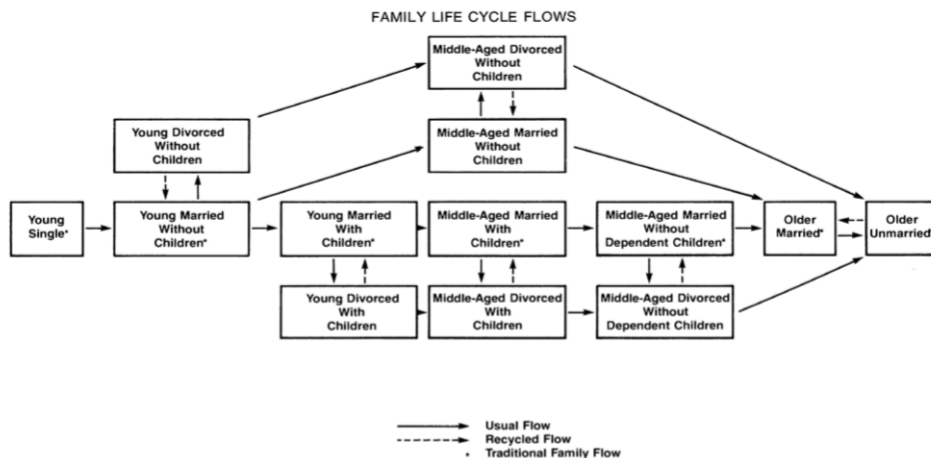
2. 가구 생애주기 및 규범적 시공간성

정상가족 담론은 또한 개인이 연령에 따라 특정 생애주기에 도달하면 정상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생애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개인의 근대적 생애주기에 따라 ‘가구’ 또한 가구주의 연령에 의해 일반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구/가족 생애주기’에 대한 논의들⁵⁾이다.

4) 김수진(2020. 10. 18.), [팩트체크]‘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자가 인구조사 대상 이라면?,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6144400502>

5) 동일한 내용에 대해 house/family life cycle 두 단어가 혼용되어 옴.

영국 경제학자 Rowntree(1903)로부터 시작된 가구 생애주기 논의는 1930년대부터 체계화되기 시작하였고, 가구 변동에 따라 가구의 욕구와 소비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구 변동에 따른 소비의 변화는 이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주택의 선택에도 적용된다. 이후 70년대 변화하기 시작한 사회상을 반영해 새롭게 도식화한 가구 생애주기 모형은 Murphy와 Staple(1979), Gilly와 Enis(1982)의 모형이 대표적이다. 먼저 Murphy와 Staple(1979)의 가구 생애주기 모형(Murphy and Staple, 1979: 15)은 개인의 근대적 생애주기를 주축으로 하여, 개인의 연령에 따른 가구변동을 보여준다([그림 2-3]). 이 모형에 따르면 부부에서 비출산, 이혼으로 파생된 가구를 제외한 가구는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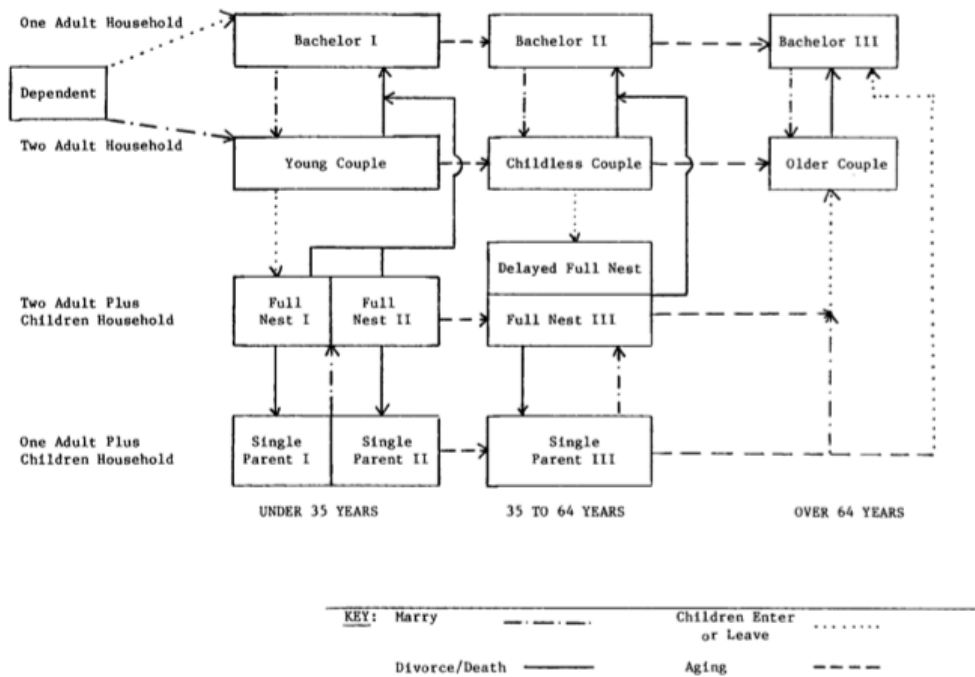


[그림 2-3] Murphy와 Staple(1979)의 가구 생애주기 모형

Gilly and Enis(1982)의 가구 생애주기 모형(Gilly and Enis, 1982: 274)에는 평생 1인가구를 유지하는 경우도 설명이 가능하며 사별, 자녀의 독립 여부 등이 보다 자세히 반영([그림 2-4] 참고)되어 있으나, 평생 유지되는 1인가구 및 사별이 적용된 부부를 제외하면 Murphy and Staple(1979)

와 마찬가지로 부부에서 비출산, 이혼으로 파생된 가구 외에는 가구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는 공통된 한계가 존재한다.

즉, 위의 두 모형 모두 엄격한 전통적 생애주기에서 탈피하여 이혼, 비출산 등과 같은 현대의 인구변화 경향을 담아내고자 하였으나, 더욱 다변화되고 있는 가족 다양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와 같이 정상가족을 형성하는 트랙에서 벗어난 비친족가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 및 생애과업을 전제하지 않는 보다 유연한 가구 형성과정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2-4] Gilly와 Enis(1982)의 가구 생애주기 모형

한편, 가구 생애주기 논의와 같이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개인을 넘어 가구 그리고 주택에 대한 가구의 소비와 욕구를 보편화하려는 시도들로부터 정상 가족 담론은 비단 개인의 시간성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집단과 공

간적 차원에도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Halberstam(2005)의 ‘재생산적 시간성(reproductive temporality)’ 개념에서 확장된 정민우, 이나영(2011a)의 ‘규범적 시공간성(normative spatio-temporality)’ 개념으로 비친족가구 사례를 바라보고자 한다.

재생산적 시간성은 중산층에 의해, “가족, 이성애, 재생산의 제도에 의해 시간/공간을 규범적으로 구성하는 방식”(Halberstam, 2005; 재: 정민우, 이나영, 위의 논문: 112)이다. 이때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개인을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생애주기의 생애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출생 이후에는 따뜻한 가족과 함께 하는 아늑한 집, 독립한 청년에게는 임시적인 집, 신혼부부에게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집 등이 필수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적 인식에서 공간적 차원이 동반됨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민우, 이나영(2011)은 재생산적 시간성에 공간적 차원을 가미하여 ‘규범적 시공간성’이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정의하였다.

“규범적 시공간성은 개인의 생애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선형적순차 적위계적인 여러 단계로 나누고(생애과정의 시간화), 이를 특정한 주거 형태와 매치시키며(생애과정의 공간화), 각 단계에서 젠더, 연령 등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어야 할 적법한 생애과정을 생산하고, 이를 승인하는 규범체계를 통해 작동하고 재생산되는 담론 체계를 가리킨다. (정민우, 이나영, 위의 논문: 11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범적 시공간성 개념을 적용하여 청년 비친족가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근대적 생애주기 밖에 위치하게 되며, 규범적 시공간성에 어떻게 균열을 내고 때론 협상하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3. 공간적 포용과 가족 개념의 한계

규범적 시공간성, 정상가족 담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애주기에 적합한 주거 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개인의 주거 공간이 집합적으로 나타나는 ‘도시’라는 공간적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시키면 비정상 가족에 대한 배제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동성애 커플이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거주하던 주택에서의 퇴거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들이 벌어졌다. *Braschi v. Stahl Assocs. Co.* - 74 N.Y.2d 201, 544 N.Y.S.2d 784, 543 N.E.2d 49(1989)의 경우에는 함께 살던 동성애자 커플 중 임차 계약을 하였던 이가 사망하였고, 남아있던 배우자가 사망한 이의 가족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임차 소유권을 승계받지 못한 결과 거주하던 곳에서 더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Ladue v. Horn* - 720 S.W.2d 745 (Mo. Ct. App. 1986) 사례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살던 Horn과 Jones가 단일가족 주거 지역(Single-Family Residential Zone)에서 단일가족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또한 퇴거당했다.

이와 같이 ‘가족’에 방점을 둔 정상가족 담론은 정상가족에 해당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 UN Habitat이 제시한 포용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수단, 성별, 민족, 종교 등에 상관없이 도시가 제공해야 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기회들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권능(enabled and empowered)을 가지고 있는 장소”(UN Habitat, 2004: 1, 재: 박인권, 2015: 107)로 정의된다. 거버넌스 구축 측면에 중점을 둔 이러한 UN Habitat의 정의를 토대로, 박인권(2015: 109-113)은 포용도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으로 참여와 상호의존성 외에도 공간적 포용(spatial inclusion)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공간적 포용이란

포용도시의 근간을 제공하는 요소로서, “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살 만한 주거공간(decent housing)’을 도시 내에서 갖는 것”(박인권, 2015: 112)을 의미한다. 각 개인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서 공간적 포용이 이루어져야 자신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능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두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상가족 담론은 비정상가족에 대한 공간적 포용이 보장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점차 정상가족을 포함한 친족가구가 감소하는 추세며 비친족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정상가족 담론으로 인한 공간적 포용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1960년대 유럽은 정상가족, 혹은 근대적 핵가족이 쇠퇴하는 제2차 인구변화(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과정을 겪었다. Lesthaeghe(2010)은 제2차 인구변화의 구체적인 현상으로 합계 출산율의 하락, 혼인 및 출산 연령의 상승, 이혼율과 동거 및 사실혼 증가와 더불어 성역할 규범의 약화, 가족 형성 과정의 다양성 등을 제시했다. 이후 근대적 핵가족의 약화는 후기 산업사회에 진입한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전세계적인 현상(이재경, 2015)이 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세기 말부터 제2차 인구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Ji, Y., 2015). 따라서 공간적 포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심의 법 체계 및 이를 토대로 한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제 2 절 청년의 주거와 비친족가구

1. 청년의 주거 불안

한편, 최근 청년들을 중심으로 비친족가구를 비롯해 다양한 가구 형태로 주거를 영위하는 원인으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논의에 앞서, 주거 불안(housing instability)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이민주(2020: 59)는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주거’, ‘불안정’, ‘안정’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토대로 “주거의 안정성이 없거나 안정되지 못한 상태” 혹은 ‘주거가 바뀌어 달라져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다음 일련의 연구들은 주거 불안을 보다 구체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Kleit et al.(2016)은 재정적 상황에서의 어려움, 좁은 공간에서의 거주, 비자발적 동기에 의한 잦은 주거 이동, 퇴거 등을 주거 불안으로 보았고, 다른 연구(노승철, 이희연, 2009; Clark, 2010; 오근상 외, 2013)들에서는 주거 점유형태, 물리적 주거의 질 악화, 심리적 고통과 생활의 불편 등도 주거 불안에 해당한다.

좁은 공간의 변동과 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 공간 및 이로 인한 심리적인 불편함으로 요약될 수 있는 주거 불안은, 따라서 이제 막 취업과 독립이라는 생애과업을 통해 자산을 마련하고 자신만의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는 청년 세대에서 가장 두드러지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동안의 전통적인 세대 인식에 따르면, 청년은 취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 비해 ‘저소득, 저자산’이라는 경제적 특성을 보인다(김준형, 2018).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재화를 지불해야 하는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늘 청년 세대가 해결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였으나, 동시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득을 높이고 자산을 축적함에 따라 해결가능한 부분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반면 주거비가 급등하면서 청년의 주거 문제가 고착화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준형(2018)은 다양한 연유로 자식의 주거를 위한 부모의 지원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한 반면, 청년 세대의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소득이 불안정해졌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주택 임차 시 전세금, 보증금 마련을 위한 자산 확보가 요구되는 특수성 때문에 국내 청년의 주거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주거비 부담 능력이 충분치 않은 청년들은 주택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주거 불안 경험이 지속된다. 관련 연구들(박애리 외, 2017; 박미선, 2017)에 따르면, 청년들은 경제적 불안정성에 의해 열악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면서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주거 불안을 겪었으며, 향후 주거 상향 이동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

이와 같이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특히 셰어하우스는 대안적 주거로서 주목받는 실정이다. 낮은 소득과 적은 자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원하는 곳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주거 공간을 다인가구로서 나누고 공용하면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립과 결혼이 지금까지 생애 과업으로 여겨져왔던 청년들이, 법적 가족 외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대안적 주거 방식을 도모하는 것은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는 행위인 만큼, 경제적 요인 외에도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2. 청년의 관계 욕구

최근 청년들이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가

구를 형성하는 것은 주거 불안 외에도 관계 욕구의 변화를 또 다른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2차 인구변동의 특징인 저출산 경향 심화, 결혼 및 출산 지연, 이혼 및 동거의 증가, 성역할 구분의 완화 등과 현상과 기존 정상가족 담론의 한계가 가장 뚜렷하게 감지되는 세대는 바로 '청년'이다. 청년세대는 전통적인 가족 생애주기에 따라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인구 유지 측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회피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 정상가족 담론에 균열이 발생하는 한편,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논의로 떠올랐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곧 경제적, 공간적 독립의 문제다. 과거보다 늘어난 교육 기간과 그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증가, 부모 세대보다 높아진 청년 실업률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청년들의 독립을 저해하는 공통된 원인으로 지목된다(Mckee, 2012). 독립을 하게 되더라도 청년들은 낮은 소득 대비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낮은 질적 수준의 주택에서 거주(임덕영, 2018)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분가를 하게 된 청년들은 다세대 주택 혹은 오피스텔의 원룸 등에서 1인가구로 거주하게 된다. 그러나 더욱 자산이나 소득이 적은 열악한 경제적 상황의 청년들은 주택 이외의 거처(informal settlements)로까지 내몰린다(정민우, 이나영, 2011b: 139-143). 학생의 경우 기숙사가 주거비를 아끼면서 학교와 가깝다는 점에서 주거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되나, 그 수용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한편, 청년들이 1인가구로서 주거 문제를 겪는 것은 또한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의 관계욕구 및 가족관의 변화와도 결부되어있다. 어디서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곧 누구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관한 관계 욕구과 그것을 뒷받침 하는 실질적인 조건, 사회적 규범 등을 개

6) 이승환(2020.11.4.), 텅없이 낮은 기숙사 수용률, 정작 대학은 '공실(空室)' 걱정, e-대학저널, <https://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801>

인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주택을 선택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제2차 인구변동 이론은 최근에 나타난 전반적인 개인들의 관계욕구 변화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제공한다.

제2차 인구변동 이론에 의하면, 제1차 인구변동 시기에 일어났던 경제성장이 물질적으로 개선된 여건을 제공한 만큼 개인들은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고, 이후 보다 상위 차원의 탈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경향과 개인주의적 태도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느슨한 관계’를 추구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구선아, 장원호(2020)는 도시에 거주하는 20~50대들이 자신의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례들로부터 ‘공감’을 매개로 사회적 연결을 추구하되, 자신의 일상이나 본업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관계를 맺고 끊을 수 있는 상황을 선호한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와 같이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중심으로 두면서도 정서적 교류를 중시하는 태도는 가족 형성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제2차 인구변동은 개인들이 점차 규범적으로 가족을 형성하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정서적 욕구, 나아가 자아실현 및 개인적인 자율성 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을 꾸린다고 본다. 아울러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여성들이 노동과 출산, 양육, 가사 등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에 자기자신의 사회적 가치에 더욱 방점을 두면서 결혼을 지양하며 성역할 규범이 와해되는 현상도 설명 가능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신자유주의가 가족에게 전가시킨 사회의 위험을 회피하고 생존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연애와 결혼 등을 포기한다고 보는 주장도 존재한다(장경섭, 2011; 김혜경, 2013.)

결혼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혼재된 양상은 백진이(2007)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가족 형성에서 점차 개인의 선택이 증시됨에 따라 한국 가족의

친밀성이 집합주의와 개인주의 사이의 가치가 충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이 가족이 개인 정체성의 기반이자 사회 구성의 원리로서 작용하는 강한 가족중심주의가 자리했으나(김혜경, 2013), 점차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이라는 개인적 가치(박민자, 2004)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개인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한 사회적 규범이 제약하는 선택 안에 매몰되지도 않으며, 선택과 강제 사이에서 자신의 성장 경로를 끊임없이 협상(Wyn and White, 2000)해나가며, 과도기인 만큼 이러한 현상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년들의 관계 욕구와 가족 혹은 가구 형성, 이에 따라 적합한 주택을 선택하는 과정은 이분법적 모습으로 단순하게 환원될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끊임없는 충돌과 타협의 경험과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

3. 비친족가구의 개념과 형성 요인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구조적인 맥락과 달라진 개인들의 관계 욕구 및 가족 형성 양상은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감소하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상상과 실천을 가능케 하는 동력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 정상가족 담론에 입각해서 본다면 제2차 인구변동에 의한 가족 형태의 다변화는 근대적 가족의 위기 혹은 해체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을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 상정하며 전개되기 시작한 ‘근대 사회’는 사실상 자기자신이 스스로의 규범을 확립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이미 주체성을 내재하고 있다.

전근대적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결정에 의해 부부가 결합하여 확대 가족을 구성해왔다. 그러나 근대적 시장 경제체제와 더불어 나타난 시민계급

은 사랑을 중심으로 부부 간의 결합을 이름으로써 전근대에 비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친밀성이 훨씬 강화되었고, 가족은 힘든 직업활동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휴식과 정서적 안식처로 의미화 되었다. 정상가족으로 여겨지는 핵가족은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개인의 주체성에 근거한 근대 시민적 이념을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청년을 중심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다변화되고 있는 가족의 형태는 주거 불안에 대한 대응 전략일 뿐 아니라 개인이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는 개인의 주체성이 반영된 결과로, 근대적 가족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기든스는 현대에 접어들면서 혈연 및 경제력을 창출하기 위한 가족 간의 결집보다 ‘친밀성’이 중요시된 결과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A.Giddens, 2003: 27). 정영애, 장화경(2010: 32) 또한 가족이 관계에 방점을 두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2차 인구변동에서 발견되는 더 높은 차원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갈망, ‘관계’에 대한 욕구와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증가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는 혈연을 기반으로 한 가족이 아닌, 혈연이 아닌 이들이 생계와 거주를 함께 하는 비친족가구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친족가구를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총조사에서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일반가구와 6인 이상이 함께 사는 다인가구를 나누는 한편 아울러 따라서 인원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 그리고 학업, 직장 등의 이유로 기숙사, 사택 등에 비자발적으로 타인과 함께 사는 경우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일상을 함께 영위하는 사례에 집중하고자 하는 만큼, 비친족가구를 “비친족 관계에 있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거주하고 생계 비용을 부담하는 가구”로 정의하고자 한다.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청년의 대안적 주거 방식에 대한 연구

청년의 대안적 주거 방식을 다루는 연구들은 크게 세어하우스를 대안적 주거 방식으로 보고 다룬 연구(유수진, 조희선, 2019; 권민지, 2018)와, 그 외 다양한 대안적 주거 방식을 두루 탐색한 연구(김혜경, 2017; 신유진, 2020; 정민우, 이나영, 2011a)로 나뉜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으로 비친족가구를 형성한 사례와 세어하우스 방식으로 함께 사는 사례를 구분하기 위해, 세어하우스 방식은 입주자 외에 주택과 입주자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대가로 청년들로부터 주거비를 받는 외부 운영 주체(민간 단체, 사업체, 협동조합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반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비친족가구의 경우 일반적인 가구와 같은 방식으로 비친족가구 당사자들이 직접 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택을 점유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먼저 청년들의 대안적 주거 방식으로써 ‘세어하우스’를 중점적으로 다룬 논문은 보통 이들이 선호하는 세어하우스 구성 요소를 파악하거나, 어떠한 경위로 청년들이 세어하우스에 입주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어하우스는 외부 운영 주체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자발적 비친족가구와 구별될 수 있으나 근래의 연구들이 여전히 청년들의 대안적 주거 방식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살면서 경험하는 바와 형성 및 유지 요인이 자발적 비친족가구와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검토하였다.

먼저 유수진, 조희선(2019)은 근거이론 방법을 통해 청년들이 세어하우스 생활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탐색했다. 청년들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타인과의 공동 거주, 주거비 절약이라는 이

점을 동시에 취하고자 셰어하우스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으며, 셰어하우스에서 형성된 청년 주거 공동체가 “경계가 느슨한 자유로운 소속감”을 핵심가치로 여김으로써 청년들이 기존의 사회와 원가족의 억압 속에서 발견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공간으로 작용(유수진, 조혜선, 2019: 153)하고 있었다.

청년들은 구체적으로 1인가구일 때보다 효율적인 소비를 하며 쾌적한 주거 공간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보장받고 있었고, ‘식사’라는 매개체를 통해 함께 사는 이들과 우정을 형성하며 정서적 불안이 완화될 뿐 아니라 서로 간의 배움을 통해 자기개발을 도모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때로는 사생활이 결여되거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서로의 이질성을 인정하면서 극복하게 된 경우에는 돌봄노동을 주고받는 안식처로 주거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었다. 이때 ‘거실’과 같은 공유 공간은 청년들의 공동체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혜경(2017)은 협동조합형 셰어하우스 사례와 그 외 미디어에서 대표적으로 다룬 청년 대안적 주거 공동체 사례지 네 곳을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각각의 주거 방식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나 이를 지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은 구별되는 특징을 지녔으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계기는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례들에서는 청년들이 유수진(201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필요를 충족하며 외로움을 없애고 돌봄을 서로 제공해줄 수 있는 지지집단을 마련하고자 주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기의 보다 근저에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 규범 및 임금노동으로 유지하는 근대적 삶의 방식에 대한 회의가 자리했다. 이에 대응하여 청년들은 종교적 활동, 페미니즘 등 사회운동적 측면의 인식을 주거 공동체로서 공유하고, 임금 노동 외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실험하고 있었다. 이들 청년 주거 공동체 사례들은 공유하는 목적이나 가치관

이 근대적이고 일상적인 특성을 넘어서려는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며, 몇몇 사례들에서는 장기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가족에 대한 대안적 친밀성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김혜경(2017)은 주장한다.

신유진(2020)은 함께 사는 비혼 20-30대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실천하는 대안적 주거 방식의 다양한 결을 드러냈다. 함께 사는 ‘비혼’ 이자 ‘여성’인 연구참여자들은 그 자체로 가장 규범적 시공간성과 대립적인 존재들이자, 남성에게 비해 열악한 경제 및 주거 불안정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현재 사회에서 청년들이 안고 있는 중층적인 문제들을 여실히 보여준다. 비혼 청년 여성들은 원가족으로부터 다양한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되었으나, 셰어하우스나 원룸에서의 생활은 이들에게 통제성이 결여되고, 안전하지 않으며, 혹은 고립된 주거 방식으로 한계를 마주하게 하였다. 이에 비혼 청년 여성들은 각기 다른 이유들로 우연히 혹은 적극적으로 주거 대안을 도모한 결과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정서적 안정감과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 생활에 필요한 재생산 노동을 함께 사는 이들과 분담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장점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제3자에게 설명해야 할 때 명확히 이해시키기 어려운 비규범적 시공간성에 스스로가 놓여있음을 인식하며, 그만큼 규범적 시공간성이 자리한 사회에서 적절한 주택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며 여러 가지 타협을 시도한다. 이들이 놓인 공통적인 사회적 맥락과 개인이 위치한 다양한 맥락이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함께 살기’ 방식은 그래서 서로 간의 거리와 친밀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에 따른 사회적 의미도 다변적으로 도출되었다.

권민지(2018)는 불안계급 논의에서 불안계급을 형성하는 한 요인으로서 젠더가 배제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이에 20대-30대 초반에 해당하는 청년 여성들의 주거 경험에 주목하였다. 청년 여성들은 정상가족 규범과 섹슈얼리

티에 따른 제약으로 인해 원가족과의 거주에서 갈등과 불안함을 느끼는 반면, 1인가구로서 원룸에 사는 경우 범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거 방식의 한계 인식이 형성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년 여성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그 중 하나로 언급된 것이 세어하우스에서의 거주로, 타인과 함께 사는 방식을 통해 범죄 안전 욕구를 충족하고, 심리적 불안정성이 완화되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이점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거 공간 내에서의 수평적 관계가 형성된 것 또한 장점이자 유지 요인으로서 드러났다. 이러한 대안적 주거 방식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노동에서의 젠더적 차이가 결국 여성들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이라는 결과를 낳고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독립에 원가족의 경제력이 밀접한 정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민우, 이나영(2011a)은 독립을 경험한 바 있는 20-30대 비혼 청년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이들의 주거 경험으로부터 독립과 가족의 의미를 재고하고자 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물리적으로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고, 일부는 다시 원가족의 주거 공간으로 회귀한 상태였다. 아울러 총 22명의 연구참여자 중 7명이 심층 면접 당시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연구참여자도 과거에 비친족가구 형성 경험이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정민우, 이나영(위의 논문)의 연구에서는 권민지(위의 논문)의 연구 결과와 비친족가구 형성 및 유지 요인이 상당수 유사하게 나타났다. 먼저, 청년들은 독립 중이라 하더라도 원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며, 여성의 경우 대안적 주거 방식을 형성하게 된 계기로 정상가족 담론에 기반한 주거 규범에 의해 원가족과 갈등을 빚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나아가 청년들이 비친족가구를 만족스럽게 여기고 유지하게 된 이유로는 주거비를 완화함과 동시에 친밀한 관계와 주체성을 주거 공간에서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이 또한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이상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청년들의 대안적 주거 방식은, 청년들이 안고 있는 큰 두 가지 문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촉발되어 청년들이 ‘함께 살기’라는 공통된 해법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의 문제란 첫째로 정상가족 담론에 기반한 기존의 가족관과 주거 규범이 지니는 한계, 다른 하나는 청년들이 안고 있는 경제 및 주거 불안정성이다. 청년들은 기존의 가족 제도 혹은 일반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주거 방식이 줄 수 없었던 평등한 관계와 느슨한 친밀성,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의 장점을 비친족가구를 형성함으로써 확보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청년들이 대안적 주거 방식으로서 1인가구나 친족가구, 기숙사에서 다인가구가 아닌 주거 방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요인을 나타내면 [표 2-1]와 같다.

[표 2-1] 청년의 대안적 주거 방식에 관한 선행연구

구분		유수진, 조희선 (2019)	김혜경 (2017)	신유진 (2020)	권민지 (2018)	정민우·이나영 (2011)
연구참여자		민간단체, 협동조합, 사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주거 공동체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39세 이하 청년.	미디어로 알려진 대표적인 청년 주거 공동체 실험의 사례들 중 4곳에 거주하는 5명. (우동사, 감이당, 비비, 모두들)	20~30대 비혼 여성 및 연구참여자 일부와 함께 사는 남성 보조 참여자.	20대 초반 ~ 30대 초반 청년 여성.	하위 주거트랙 (반지하, 고시원 등)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가진 비혼 남녀 20~30대.
연구방법		문헌 조사, 심층인터뷰	심층인터뷰	심층인터뷰	심층인터뷰	심층인터뷰
생리적 욕구	쾌적하고 넓은 주거 공간 확보	형성 요인	유지 요인	형성 요인		
안전 욕구	호혜적 돌봄 노동	유지 요인	유지 요인	형성 요인		
	경제적 부담 완화	유지 요인	형성 / 유지 요인	유지 요인	형성 /유지 요인	형성 /유지 요인
	범죄, 경쟁 등에서 비롯된 불안감 해소 / 안정감 확보	유지 요인	형성 / 유지 요인	형성 / 유지요인	형성 / 유지 요인	

관계 욕구	가구원 간의 친밀성 확보 / 고립감, 외로움 해소	유지 요인	유지 요인	형성 / 유지 요인		유지 요인
존중 욕구	주거 공간 내 수평적 규범 적용	유지 요인	유지 요인	유지 요인	유지 요인	
	주거 공간에서의 주체성 및 사생활 확보	형성 /유지 요인	유지 요인	형성 / 유지 요인	형성 요인	형성 요인
자아 실현 욕구	대안적 삶의 방식 모색		형성 요인	형성 요인		
	자기 개발	유지 요인	형성 / 유지 요인			

	<p>영향요인</p>	<p>기존 주거 방식에서의 경험, 원가족과의 관계, 자산, 소득</p>	<p>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자산, 소득, 원가족과의 경제력, 원가족의 관계, 기존 주거 방식에서의 경험, 주거 정책</p>	<p>성별, 원가족과의 관계, 자산, 소득, 결혼에 대한 태도, 기존 주거 방식에서의 경험</p>	<p>성별, 기존 주거 방식에서의 경험, 자산, 소득, 원가족의 경제력, 원가족과의 관계</p>	<p>자산, 소득, 원가족의 경제력, 원가족과의 관계, 기존 주거 방식에서의 경험</p>
	<p>주택형태 / 점유유형</p>	<p>-</p>	<p>여러 방식 존재. 1) 비비: 1인가구 네트워크. 각 개인은 동일한 임대 아파트/월세. 2) 모두들: 월세는 개인 지불, 보증금은 조합 출자금. 3) 상황에 따라 개인이 월세, 혹은 단체가 지불하는 유연한 방식.</p>	<p>다양한 방식 존재. 1) 세어하우스의 경우, 아파트 / 월세, 2) 타인이 전제로 점유한 주택 / 월세 지불, 3) 비아파트 주택</p>	<p>세어하우스의 경우, 아파트 혹은 비아파트 주택.</p>	<p>비주택에서의 여러 방식 존재. 1) 학교 지하 공간 / 불법점유 2) 비아파트 반지하 주택 / 전세.</p>

2. 연구의 차별성

청년들의 대안적 주거 방식을 다룬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차별성을 논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기존의 연구들은 청년에 대한 세대 구분이 각기 상이하다([표 3-1] 참고).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제정된 청년기본법(2020. 8. 5. 시행)에서 정의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의 개념으로 삼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기초가 되는 법으로, 연구 결과가 법적 청년 개념에 부합하도록 하여 현행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조작적 정의를 통해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었던 청년들의 대안적 주거 방식과 본 연구에서의 ‘비친족가구’를 구분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청년의 대안적 주거 방식으로서 셰어하우스에서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체적 주거 방식 등이 혼재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수익을 내고자 하는 외부 운영 주체가 있는 셰어하우스, 협동조합형 주택 등에서는 청년 개인이 함께 살고 싶은 이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어렵고, 비자발적으로 원하지 않는 타인과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함께 살게 될 가구원을 선택하는 경험에 또한 방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는 만큼, 셰어하우스와 같이 수익을 추구하는 외부 운영 주체가 있는 청년들의 비친족 가구 방식은 ‘공동 거주 가구’라는 가구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청년 비친족 가구는 ‘비친족 관계에 있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거주하고 생계 비용을 부담하는 가구’로 정의하여 두 주거 방식을 구분하고 분석하였다.

셋째, 기존에 청년들의 대안적 주거 방식을 다룬 연구들은 청년층에서 특정한 특성을 지닌 청년에 초점을 맞춰 연구참여자를 설정한 데에 반해, 본 연구는 보다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구성을 가진 일반적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컨대 신유진(2020)은 규범적 시공간성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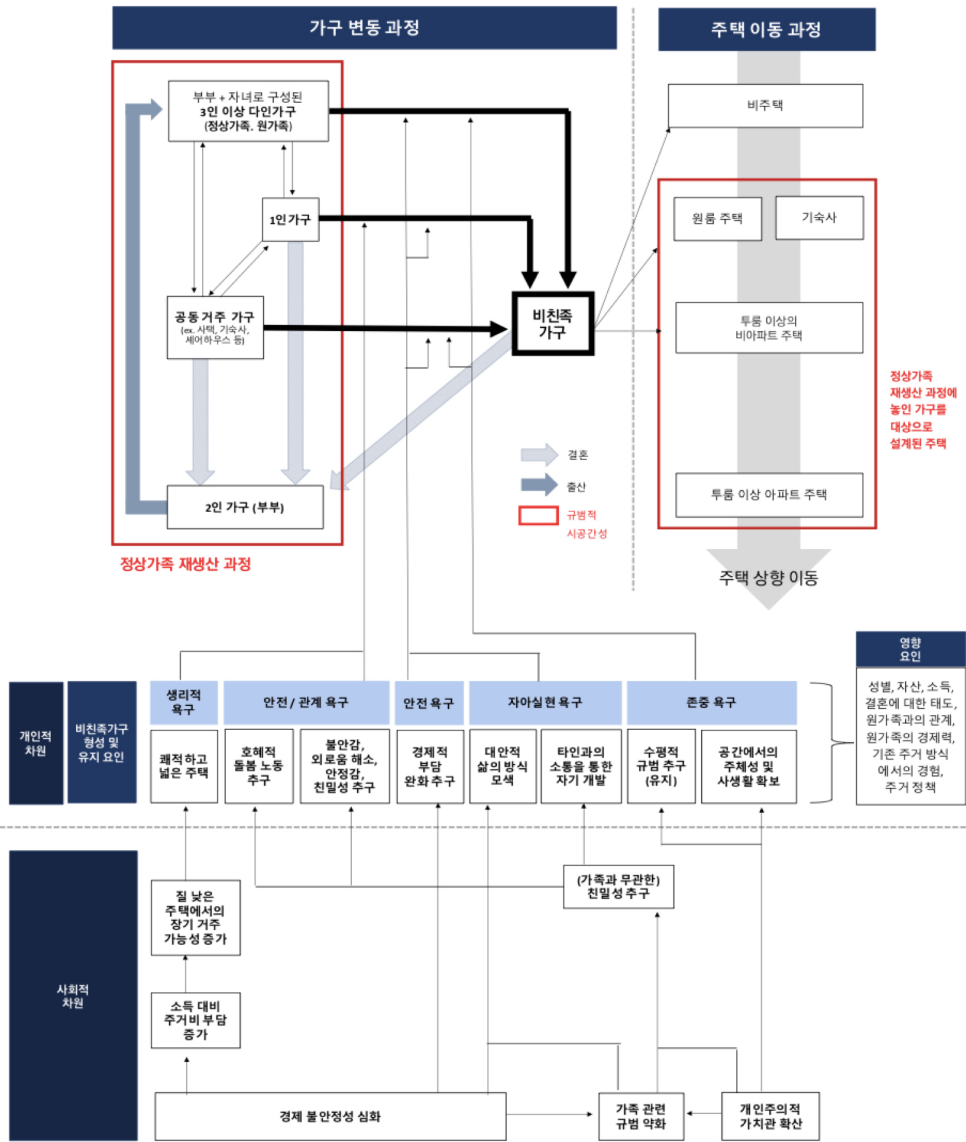
하는 비혼 주체이자,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임금을 받고 더 큰 주거 불안을 경험하는 여성이라는 주체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가장 비규범적이면서도 기존 주거 방식의 한계를 여실히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김혜경(2017)은 임금노동에 기반한 생활을 탈피하고, 새로운 생산적 활동을 통해 함께 사는 공동체와 같이 보다 급진적인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사례들을 두루 다루었으며, 정민우, 이나영(2011)은 가장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을 통해 청년들이 처한 문제적인 주거 실상을 드러내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청년이나 급진적인 방식을 도모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양한 소득과 성별을 가지고 분포하는 청년들의 ‘일상적인 공간 경험’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청년 비친족가구로서 주거 공간에서 경험하는 바가 가지는 공통적인 사회적 의미뿐 아니라, 청년들의 특성에 따라 공간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도 함께 다루고자 하였다.

넷째, 기존의 청년 대안주거 방식에 관한 연구들이 청년들의 ‘경험’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그 복합성을 사회학적으로 기술했다면, 본 연구는 과정의 단계와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공간 경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지 다룸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제 4 절 분석틀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청년 비친족가구가 어떠한 배경 하에서 형성되어 유지되며, 그리하여 현 시점에서 청년 비친족가구가 가지는 사회적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장에서 그동안 주거 정책과 법 등의 사회 제도가 정상가족 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한편, 주거 불안정성이 가중되며 가족을 비롯한 관계 전반에 대한 욕구가

변화하게 된 청년들이 대안 주거의 방식으로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청년들의 대안적 주거 방식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여 청년 비친족가구의 형성 및 유지요인과 선호하는 주택 유형을 분석하였고,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분석틀을 [그림 2-5]와 같이 구성하였



[그림 2-5] 연구의 분석틀

다.

연구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은 크게 ‘주거’와 이를 영위하는 ‘개인’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며, ‘주거’는 다시 ‘가구’와 ‘주택’의 두 차원으로 나뉜다. ‘가구’ 차원에서는 청년이라는 생애주기 단계 내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 ‘누구와 살 것인가?’를 결정하여 가구 형태가 변화하는지 나타냈다. ‘주택’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드러내는 주택 이동 과정을 표현하였고, 일반적인 주택 유형 선호를 반영하여 위계화하였다.

먼저 분석틀에서 ‘주거’ 차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 변동 과정의 경우, 청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1인가구’로서 원룸에 거주하게 되거나, 기숙사, 사택, 셰어하우스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다른 청년들과 함께 사는 ‘공동 거주 가구’를 형성하게 된다. 정상가족 담론 하에서 ‘결혼’을 하기 전까지 임시적인 가구 형태로 여겨지는 1인가구와 공동 거주 가구는, 향후 결혼을 통해 부부로 구성된 2인가구를 형성하고, 이어 ‘출산’이라는 과업을 달성하며 근대적 핵가족 형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4인 정상가족에 다다른다. 1인가구/공동 거주 가구 → 2인가구(부부) → 3인 이상의 다인가구(부부+자녀)로 이어지는 가족의 정상성을 달성해가는 가구 변동 과정은, 따라서 규범적 시공간성 내에 포섭된 일련의 가구 형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청년 비친족가구는, 독립하여 결혼으로 향해가는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보편적이지 않은 가구 형태로 여겨지는 만큼 비규범적 시공간성 내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비친족가구가 보편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에서는 청년들이 1인가구에 비해 주거비를 아껴 자산을 유지하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1인가구일 때보다 범죄에 대한 불안이 완화된다는 점에서 비친족가구를 형성하여 재산과 신체에 대한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일부 연구들에서는

타인과 함께 거주하며 친밀감을 얻어 관계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계기 또한 작용한다고 밝혀졌고, 이를 가는 실선의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가구가 거주하게 되는 주택 유형은 그 물리적 질적 수준과 사회적 인식에 따라 가장 하위 주택 유형으로 여겨지는 고시원,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주택에서부터 점차 상향 이동할 것으로 예정되는 순서로 위계화하였다. 비주택의 바로 상위 단계에는 상대적으로 주택의 수준이 양호하나 여전히 기능에 따라 공간이 구획 되지 않고, 1인가구에게 적합하도록 설계된 원룸 주택이 자리한다. 아울러 투룸 이상의 주택으로는 내부의 면적과 조건 등에 따라 일반 아파트보다 고가에 거래되는 소위 고급 빌라, 오피스텔 등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선호와 인식에 따라 가장 상위 주택 유형은 투룸 이상의 아파트라고 보았다. 전상인(2008: 54)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조건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지위를 소비하고... 사회적 신분을 실천”하기 위해 아파트를 선호하는 보편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위 주택 유형으로서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도 이용되는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투룸 이상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 면적과 기타 물리적 여건상 원룸과 아파트 사이에 투룸 이상의 비아파트 주택이 위치한다고 보았다.

한편, 가구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작용하는 가구 형성 및 유지 요인, 그리고 그 기저에 작용하는 사회적 차원의 요인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주거 차원의 하단에 함께 표시하였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먼저 청년들이 놓여있는 주요 사회적 배경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경제적 차원에서 겪고 있는 경제 불안정성의 심화, 두 번째는 관계적 차원과 관련된 요인으로, 구체적으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과 약화되고 있는 가족 관련 규범이 청년들에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청년들이 비자발적이고 전략적으로 생존을 위해 전통적 가족을 형성하는 것을 지

양함과 동시에,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강화로 인해 자발적으로 가족 형성을 회피할 가능성을 함께 표현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요인들은 다시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개인적 차원에서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이때 비친족가구 형성 및 유지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요인들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먼저 경제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만큼 청년들은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질 낮은 주택에서의 장기 거주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욕구 충족이 지연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저렴한 주택에서 노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더라도 상위 주택 유형으로 이동할 희망이 없다고 인식하게 되는 청년들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상위 주택 유형에 대한 갈망이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경제적 불안정성은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강화하거나, 더욱 급진적인 경우 노동에 토대를 두지 않은 대안적인 삶의 방식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및 재생산을 도모하려 실천을 야기하기도 한다.

한편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전통적 가족에 대한 규범이 약화되는 경향 또한 청년들의 관계에 대한 욕구에 반영된다. 청년들은 집단보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느슨한 관계를 선호하고, 정상가족 담론 중심의 억압적인 가족관과 주거 규범을 지양하는 성향이 나타나며, 이는 청년들의 관계 및 존중,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에서 벗어나 주거 방식에서 호혜적인 돌봄 노동과 안정감 및 친밀성을 경험하기를 선호하고, 가구원 간 수평적 규범을 추구함과 동시에 자신의 주체성과 사생활이 확보되는 주거 공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구원 간의 소통을 통해 자기자신을 개발하려는 모습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비친족가구 형성 및 유지 요인

은 청년들이 위치한 사회적 조건의 이질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예컨대, 범죄 안전 욕구의 경우에는 특히 여성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며, 청년들이 지닌 자산과 소득 및 원가족의 경제력에 따라 경제적 부담 완화와 같은 욕구를 느끼는 정도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 한편, 기존 주거 방식에서 경험한 바, 또는 결혼에 대한 태도에 따라 비친족가구에 대한 청년들의 태도 또한 달라지게 되므로, 이 또한 형성 및 유지에 영향을 끼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주거 정책 또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은 개인의 조건과 형성 중인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이 또한 청년 비친족가구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제 1 절 청년 비친족가구의 현황

연구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2015~2019년 인구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 비친족가구의 현황을 살펴보았다([표 3-1] 참고). 이때 ‘청년’은 인구총조사의 한계상 연구참여자의 기준에서 만 19세가 제외된 만 20~34세로 한정하였으며, 청년으로만 구성된 비친족가구는 확인할 수 없어 가구주의 나이가 청년인 경우로 확장하여 비친족가구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인구총조사는 가구원수에 따라 5인 이하는 일반 가구, 6인 이상은 집단가구로 분류하며, 비친족가구는 5인 이하의 일반가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본

소절에서는 ‘청년이 가구주인 5인 이하의 비친족가구’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보고자 했던 연구참여자의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인구 변동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인구총조사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 전세대 및 청년 가구주의 비친족가구의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연령	일반가구수	19,111,030	19,367,696	19,673,875	19,979,188	20,343,188
	비친족가구수	214,421	269,444	308,659	340,367	386,968
	일반가구수 대비 비친족 가구수(%)	1.12	1.39	1.57	1.70	1.90
청년가구주	일반가구수	2,762,775	2,704,310	2,679,763	2,701,694	2,804,912
	비친족가구수	61,778	81,116	93,345	102,035	115,307
	일반가구수 대비 비친족 가구수(%)	2.24	3.00	3.48	3.78	4.11

*인구총조사 데이터 중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2015~2019년)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임.

먼저 전연령 가구주의 경우, 일반가구수는 2015년 이후로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비친족가구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런데 일반가구수 대비 비친족가구수의 비율을 보면, 매해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1.12%에서 2019년 1.90%로 약 2배 가량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 일반가구는 2015년 이후로 증감을 오가는 데에 반해, 일반가구수 대비 비친족가구 비율은 전연령 가구주에서와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하여 2015년 2.24%에서 2019년 4.11%로 약 2배 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

다. 동일 연도에서 전연령 가구주와 청년 가구주에서의 일반가구수 대비 비친족가구수 비율을 비교하면, 2015년에는 각각 1.12%와 2.24%, 2019년에는 1.90%와 4.11%로,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 전연령 가구주에 비해 비친족 가구를 형성하는 비율 또한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청년이 가구를 형성할 때, 다른 세대에 비해 보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맥락에 위치하거나 혹은 그러한 형태를 선호하는 세대의 개인적 성향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 2 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1) 청년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게 된 요인으로서 기준 주거 경험에서 느낀 한계, 2) 청년 비친족가구가 유지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비친족 가구로서의 주거 공간에서의 경험, 3) 그리하여 청년 비친족가구의 공간 경험이 지니는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1:1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과 비친족가구를 형성한 계기와 과정, 비친족가구 방식에서 경험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해체까지의 기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면담 방식은 대면 1:1 인터뷰를 기본으로 하되,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여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화상회의 혹은 메일로 진행하는 비대면 1:1 인터뷰를 대안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대면 인터뷰는 녹취가 용이하고,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낮으며, 연구 참여자의 사적 내용이 누출될 위험이 낮은 조용하고 널찍한 실내(카페, 회의실 등)에서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당일 동선에 방해가 되

지 않도록 위치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최대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10~20시 사이에 실시했다. 비대면 인터뷰로 진행되는 경우, Zoom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가 편안한 시간에 자유롭게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장소에서 진행하였으며, 두 방법 모두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 질문을 보내고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았다. 인터뷰 진행 시간은 최소 30분~ 최대 1시간 반으로 잡아 인터뷰 내용이 충실하게 담길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지인을 통하여 초기 연구참여자를 확보한 뒤, 연구 참여자들과 연구자 본인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스노우볼링(snowballing) 방법을 사용하여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들을 충원해 나가고자 하였다.

인터뷰에서는 가구 형성 및 임대차 주택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참여자의 신상(성별, 비친족가구 형성 시 나이, 직업, 소득 등)과 비친족가구 형성 계기와 과정, 비친족가구 시 경험했던 장·단점 및 유지 기간과 과거 경험했던 다양한 주거 방식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청년 비친족가구 형성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청년 비친족가구가 어떠한 맥락에서 기존 주거 방식을 보완하려는 성격을 띠며, 과정 전반을 둘러싸고 청년들이 겪는 주거 방식에서의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의사결정과정 모델을 토대로 현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터뷰 분석은 질적연구의 기본적인 방식에 따라 ‘개방 코딩 - 축 코딩 - 범주 확인’순으로 진행((유기웅 외, 2018: 328)한다. 먼저 ‘개방 코딩’ 단계에서는, 인터뷰를 그대로 풀어낸 녹취록을 작성한 후, 녹취록의 각 문장이 지니는 의미를 문장 끝에 기입한다. ‘축 코딩’ 단계에서는 분석틀에 따라 문장의 의미(하위 범주)들이 함께 묶일 수 있는 상위 범주를 구축하면서 녹취록을 재정리한다. 마지막으로 ‘범주 확인’ 단계에서는 연구 목적 및 질문, 분석틀, 진행된 코딩 작업 결과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며 분석 결과를 수정한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비혈연 청년 다인가구가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해체되는 과정 전반을 탐색하기 위해, ‘비혈연 청년과 함께 다인가구를 형성하고 있거나, 청년기에 형성했던 경험이 있는 청년(만 19세~34세)’을 연구참여자의 기준으로 삼았다. 총 9명의 연구참여자는 여성 5명, 남성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혹은 과거 비친족가구 영위 시 다양한 직업군과 소득을 지니고 있었으나 거주지와 점유 형태에 있어서는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서울 혹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같이 전국적으로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서 청년 비친족가구를 형성했고, 소위 빌라로 불리는 투룸 이상의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월세의 임차 형태로 거주하였다. 이에 반해 유지 기간은 동일한 가구 구성원과 약 5개월의 단기 거주를 한 경우부터 최장 5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표 3-2] 참고).

[표 3-2] 연구참여자 목록

연구 참여 자	성별 /나이(만)	현재/과거 비친족가구 영위 시			
		직업 /월소득 (단위: 세후 만 원)	거주지	점유 형태 /주택유형	유지 기간 /종료 여부
A	남성 / 27세	프로그래머 / 520	경기도 성남시	전세 /다세대 투룸	약 1년 (지속)
B	여성 / 26세	대학원생 / 무응답	서울 관악구	월세 /다세대 투룸	약 5개월 (종료)
C	남성 / 26세	프로그래머 / 240	대전 서구	전세 /다세대 투룸	약 1년 (지속)
D	여성 / 28세	대학원생 / 40-250	서울 관악구	전세 /다세대 투룸	약 1년 (지속)
E	남성 / 28세	프로그래머 / 520	경기도 성남시	전세 /다세대 투룸	약 1년 (지속)
F	여성 / 29세	대학원생 / 약 100	서울 관악구	월세 /다세대 투룸	약 5개월 (종료)
G	남성 / 32세	프리랜서 / 무응답	서울 마포구	전세 (보증금 마련해준 친구에게 월세 개념의 돈 지불) /다세대 쓰리룸	약 5년 (지속)
H	여성 / 26세	공무직 종사자 / 200-250	서울 은평구	전세 /다세대 투룸	약 2년 (종료)
I	여성 / 30세	서비스직 종사자 / 200-250	서울 양천구	전세 / 다세대	약 2년 (지속)

제 4 장 청년 비친족가구의 형성 과정

제 1 절 기존 주거 방식의 한계와 대안 주거 방식의 목적

본 절에서는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영위하게 되는 주거 방식에서 어떠한 경험을 통해 대안 주거 방식을 상상하게 됐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통상 다양한 이후로 원가족과 공간적 차원에서 독립하게 된 청년들은 1인가구로서 원룸에 거주하거나, 사택, 기숙사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다른 청년들과 공동 거주 가구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주거 방식은 쉽게 청년들의 일반적인 주거 방식으로 떠올릴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시원, 옥탑방과 같은 하위 주거 트랙에서보다 나은 삶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사실상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주거 방식 또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한편, 원가족과 함께 사는 삶을 이어가는 청년들은 경제적 혹은 공간적 차원에서의 질은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편이나, 부모와 상반되는 가치관으로 인해 잦은 갈등을 겪고, 수용하기 어려운 주거 규범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비록 정상가족의 울타리 안에 있으나 충분한 삶의 질을 보장받는다고 보기 어렵진다.

1. 1인가구 - 원룸 주택 방식

1인가구 청년들이 제한된 자산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은 ‘방’이 곧 ‘집’이 되는 좁은 ‘원룸’으로 수렴된다. 원룸은 주거에서 누리하고자 하는 기능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이루어지며, 기능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가구나

가전 등이 ‘옵션’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집’이 기능에 따라 공간이 ‘방’이라는 이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거에 필요한 사물들이 실제 거주하는 이가 자신의 욕구 충족에 편리한 방식으로 재배치 할 수 없도록 이미 고정되어 있다. 이는 청년들이 주거 공간을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재영토화⁷⁾하는 시도를 무력화한다.

주거 기능을 위한 물품들이 공간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또한 ‘원룸’이 ‘청년 거주’의 임시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주거에 필요한 무거운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물품은 원룸에 종속된 것이지 청년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며, 홀로 사는 청년들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 중 소비성 물품만을 가지고 원룸에 임시적으로 거주했다가 나갈 것으로 가정하고 기획된 주택 공급의 전략인 것이다. 오랫동안 타지에서 여러 방식의 주거를 경험했던 연구참여자 <H>는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H>는 청년 1인가구를 생애과정 내에서 임시적인 상태로 여기는 사회의 인식이 곧 작은 주택 면적과 이와 결부된 옵션으로 나타나며, 이는 다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가 없는 만큼 적절한 일상을 꾸려가는 데에 제약을 가한다.

월세는 거의 대부분 옵션이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원룸과 투룸을 나눌 때, 생애 주기별로 그냥 딱 정해서 생각한 거예요. 원룸? ... 언젠가 곧 ... 결혼을 해서 다른 투룸으로 갈 애들. 그러니까 애네들은 살림살이에 투자를 안 할 거야. 그냥 그러면 그냥 원룸에 있는 거 써. 냉장고도 ... 작아서 이제 다 방 안에 쑤셔 넣을 수 있는 그런 용량. 왜냐면 너희는

7) ‘재영토화(territorialization)’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나, 본 연구에서는 주거와 관련해 존 톰린슨이 제시한 개념에 가깝다. 존 톰린슨에게 재영토화란, 일정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개인들이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다양한 의미를 지닌 서사를 생성하고자 하는 일상적 실천임과 동시에, 문화적인 ‘집(home)’을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로 본다(Tomlinson, 1999/2004: 213).

몸만 갔다 올 애들... 너희는 살림살이 없어도 되잖아. <H>

따라서 청년들은 입주 전부터 원룸 공간에 존재하는 ‘옵션’ 가구 및 가전들의 위치와 종류에 맞춰 스스로 자신의 동선을 제한하며, 누릴 수 있는 기능들이 규정된다. 심지어는 동선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어려울 정도의 좁은 면적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고시원에 비해 크게 상위 주거트랙이라고 보기에 어렵다. 이렇게 원룸 내에서 제한된 신체의 움직임은 연구참여자들로부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하며,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며 보다 개선된 물리적 조건의 주택으로 이동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했다. 연구참여자 <D>는 원룸에서의 1인가구 생활 중 느꼈던 “무기력”을 토로했다.

동네 분위기 자체가 ... 활기차진 않아요... 그 낙성대처럼 빛이 많이 들어오고, 동네 분위기가 가족이 많이 살고, 이런 주거 환경이 아니라, 그냥 진짜, 나, 저처럼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 많이 사는 동네다 보니까, 그냥 좀 약간 정적인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막 무기력한 느낌. 다 그냥 카페가 다 공부하고 막 이러니까... 밤새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긴 했었어요. <D>

Carsten과 Hugh-Jones(1995: 2, 재: McDowell, 1999/2010: 166)에 따르면 집과 정신, 신체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 집은 개인이 연장된 공간으로서 자리하게 된다. 주거 공간의 규모 및 내부 구조, 그리고 이에 연관된 옵션과 같은 가전, 가구들은 개인의 신체를 제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해당 공간에서 전개되는 개인의 정신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연구참여자 의 경우, 원룸에서 머무를 때 느끼는 “미칠 것 같”은 감정을 해소하고자 외부 공간인 카페 등에서 소비를 통해 쾌적한 공간을 누리지만 그만큼 생활비를 “엄청 많이” 지출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김혜경

(2018) 또한 청년 세대의 카페 이용률이 타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청년들이 조악한 주거 공간에 정주감을 느끼지 못하는 반면, 오히려 외부 공간인 카페에 애착을 가지고 대안적으로 전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빨래를 널면, 잘 이렇게 못 지나다니는 곳이었어. 그래서...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서 계속 밖에 나가거든? 내가 그때 스타벅스에 보면, 1년간 자기가 쓸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었다? 어플로? 그때 엄청 많이 썼단 말야.. 근데 내가... 다른 집으로 가고 나서는, 내가 카페를 잘 안 갔어... 좀 여유가 있는 방에 갔기 때문에.

요컨대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의 거주지는 좁은 면적의 원룸으로 수렴되지만, 결국 외부 공간을 소비하면서 낮은 주거 수준에서 좌절된 욕구를 충족하는 비용이 생활비로 전가되고 있었다. 이는 경제 및 주거 불안정성이 심화된 청년일수록, 외부 공간 소비에 의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오히려 자산 축적이 장기간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주거 불안정이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연구참여자 <I>는 원룸 생활에서 느꼈던 극심한 “고립감”과 고독사에 대한 ‘공포’의 기억이 존재했다. 홀로 고립된 주거 공간 내에서 음주나 흡연과 같이 건강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타인의 “신경쓰이는 시선도 없으니” 스스로없이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연구참여자 <I>로 하여금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흡연, 과음이 잦고 낮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이는데(신미아, 2019; 하지경, 이성림, 2017), 이는 청년의 고독사⁹⁾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주관적 건강

9) 김나운, 고성표(2021. 03. 27.), “방안 가득 쓰레기·취업 책 남기고...” 취약한 2030 심리·물질적 고립 이종고, <https://news.joins.com/article/24021523>

상태가 낮을수록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이명선, 송현중, 김보영, 2018). 1인가구의 우울수준이 높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을수록 자살 생각에 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화진, 김경신, 2015). 타인의 존재와 시선이 한 개인을 억압하고 감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사례와 같이 주거 공간 내에서 개인이 스스로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제어하는 순기능의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혼자 살 땐 생활이 한번 무너지면 아예 다 포기해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또 밖에 나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접점이 없다보니 이러다 고독사를 해도 한달은 지나야 발견되겠구나, 심을 정도의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신경 쓰이는 시선도 없으니 담배도 많이 피우고 술도 더 많이 마셨습니다. <I>

이와 같이 청년 1인가구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삶, 그리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욕망하고 있었으며, 무기력함 등 주거 공간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의 해소를 위해 외부 공간을 사적 공간으로 전유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생활비 지출로 인해 자산 마련에서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2. 공동 거주 가구 - 사택, 기숙사 방식

한편, 공동 주거 방식으로 살고 있는 청년들 또한 공간에 작동하는 권력의 층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결과적으로 좁고 질 낮은 주거 공간이 문제가 된다. 사택이나 기숙사에서 타인과 함께 사는 공동 주거 방식 또한 고정된 주거 관련 시설에 의해 자신의 신체가 억압될 뿐 아니라, 이를 정해진 타인

과 정해진 방식으로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주거 규범은 회사나 학교라는 연구참여자들의 공적 소속 집단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개인이 특정 공간을 이용하는 시간, 관련된 사회적 관계 또한 제약을 받고 개인은 이에 대한 일말의 타협도 어렵다.

여기서 사회적 관계는 동일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출근해서 마주치는 회사 동료와 같이 공적인 공간에서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위계가 정해지는데, 문제는 이러한 공적인 위계관계가 주거 공간으로까지 역으로 연장되어 들어온다는 점이다. 이들에게서는 주거 공간이 사적인 공간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공/사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불편한 공간이 된다. 이와 같이 학교, 회사와 같은 공적 공간에서의 관계는 주거 공간 내에서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주거 공간 내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시 밖에서 마주쳐야 하는 동거인과의 공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개인의 행동에 더욱 제약을 가한다. 서로 간의 친밀성이 형성되기 이전에,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이러한 ‘조심스러움’은 주거 공간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개인을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하며, 1인1실 방식이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사생활이 없이 타인의 시선에 노출된다. 어빙 고프만은 도시에서의 생활을 가능케 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예의바른 무관심(civil inattention)’을 언급했다. 이는 서로 익명성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는 비롯된 현상(Erving Goffman, 1972: 385)이다.

연구참여자 <E>는 원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첫 공간적 독립을 저렴한 주거비의 사택에서 시작하였으나, 이내 “답답함”을 느끼고 새로운 주거 공간을 고민하던 것이 청년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동년배”도 아닌 불편한 위계관계에 놓인 이들로부터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중산층 정상가족에게 적합한 아파트를 8명에서 2인1실로 지내야 하는 삶에서는 그렇다고 가구원들 간에 별다른 “왕래”도 없었다. 주거 공간에

서 공적 관계는 사적 차원에서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 줄 수도 있으나, 오히려 공적 관계에 의해 사적 관계에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가구원들을 서로 의미없는 관계로 남게 하였다.

일단은 2인 1실이다 보니까, 그, 개인 공간이 진짜 거의 하나도 ... 없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사생활이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그, 동년배끼리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사택은 이제 2인 1실인데 방이 4개여서 8명에서 썼거든요. 아파트 같은 거 한 채를...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서로 왕래도 없고 뭐 그냥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강해서 나오게 됐어요. <E>

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타인의 불쾌한 행동은 욕구의 좌절을 넘어 개인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학교나 회사가 정한 주거 규범 내에서는 어떠한 개인의 행동도 제약을 받지 않게 되며, 이때 발생하는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당사자들 간의 소통에 의존하게 된다. 이때 한 개인이 특정 가구원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는 공적 관계에서도 해당 가구원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하나, 대부분의 청년들은 서로 동등한 학생의 입장이거나, 회사원의 경우 사회초년생인 만큼 공적 관계의 가장 하단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 다른 가구원의 욕구를 침해하는 경우 해결되기보다는 심각한 갈등으로 변지거나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연구참여자 <E>, 의 경험은 가구원의 문제적 행동으로 생리적 욕구조차 심각하게 좌절된 상황을 잘 보여준다. <E>는 룸메이트의 심한 코골이로 기본적인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워 매일의 일상과 업무에 지장을 받고, 는 자신에 비해 심각하게 낮은 수준의 위생관념을 가진 룸메이트와 문화적인 이질성을 견디기 어려워 외부의 공적 공간, 때로는 친구의 주거 공간으로 일

종의 피신을 가곤 했다. 때로는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룸메이트의 비난을 받으며 관계와 존중의 욕구 또한 좌절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공동 주거 가구 방식에서는 공용 공간으로서 화장실, 취사시설을 함께 쓰도록 하거나,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룸메이트’를 거주 당사자가 아닌 통상 주거 공간 관리 주체가 결정함으로써, 청년들은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에서 ‘원하는 사람과 살 권리’ 혹은 ‘원하지 않는 사람과 살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제 매번 이제 룸메이트가 바뀌잖아요. 이제 뭐 나가거나 이제 뭐 퇴사하거나 이러면 룸메이트가 바뀌는데. 한번 바뀐 룸메이트가 코골이가 너무 심해가지구.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E>

이제, 너무 안 씻는 거죠? ... 하루만 샤워를 하루만 건너뛰어도 냄새가 정말, 정말, 너무 심해서, 하루는 ○○이가 내 방에 ... 왔다가, 어 언니 머리 아파요 이러면서 나갔, 었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서... 디퓨저를 두 개를 사와서 ... 뒀는데, 그럼 이제 그 룸메 냄새가 안 나긴 하는데, 대신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근데 그 친구는 또 그때, 레게 머리를 하고 있어가지구. 그때 계속, 좀, 안 씻어서 냄새도 나고. 근데 레게 머리 ... 실? 이런 거랑 같이 뭐, 이렇게 땀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항상 방을, 뒹다 보면 뭔가 털실 같은 게 ... 머리에서 빠지는 것 같더라고. ... 왜 코리안들은 왜 그러냐. 그리고 심지어 혹시 내가 씻는 것 가지고도 코리안들 왜 맨날 씻냐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원래 기숙사에 웬만한 기숙사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연구실에 자주 나갔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아니면 재원이 집에서, 막 한 번 잔적 있어. 막 엄마한테 전화해서 하소연 하고. 막.

연구참여자 <C>의 경우에는 좀 더 문제가 심각했다. <C>는 취사시설이 없는 기숙사와, 화장실을 비위생적으로 사용하는 룸메이트들로 인해 청년 비

친족가구로 살고 있는 현재도 당시 생활을 떠올리며 룸메이트에 대한 강한 ‘분노’와 ‘불신’을 드러냈다. 3개의 화장실을 용변으로 막고 해결하지도 않는 “글러먹은 애들” 때문에 본인의 용변을 기숙사 밖의 편의점에까지 나가서 해결했던 일을 기점으로, <C>는 기숙사를 나올 결심을 한다. 한편, 기숙사에는 조리가 가능한 취사시설이 있었으나 이 또한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기숙사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도 못 하”는 곳에 “내가 왜 저기에다 돈을 내”야 하는지 <C>는 반문한다.

기숙사에... 8명이 사는 그런 곳을, 2 곱하기 4 해가지고 방이 4개. 거기에 화장실이 3개가 있었어요. 그 셋 중에 하나가, 누가 휴지로 막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가진 사람이하면, 이걸 뚫어야겠죠. 그런데 이 멋있는 사람들이 이걸 뚫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남아 있는 두 개 있잖아요... 그 하나도 막아버렸어요... 근데 이쯤 돼서 미리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한 번에 뚫던가. 그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세 개를 다 막았... 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안 고쳐요... 그럼 이제 드는 생각이, 나도 해결은 해야겠지만 내가 대체 저런 글러 먹은 애들을 위해서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습관이면 내가 뚫어도 또 막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을 내려와 가지고 저기 있는 편의점까지 간 담에, 거기서 해결을 하고 왔다니까요. 그 일을 한번 겪고 나서, 이게, 진짜, 뭐 기숙사의 시설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데...같이 살기 위한 그런 거 있잖아요. 최저. 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스트레스가 좀 되게 강했어요... (연구자: 그 기숙사에 공동 취사 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용할 수 없었어요. 아예. 그게 ... 외국인 전용인데. 이 자식들이 자꾸 맨날 뭘 태워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재 경보기 울리는 것도 한두 번이야... 이거 때문에 사람들도... 아니 내국인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거라도 있었으면은. 사람들

이 그 지경으로 저렇게 욕을 하지는 않았어요. (연구자: 진짜 기숙사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도 못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도 못해먹고 그렇다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생활하기 쾌적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같이 오는 사람들이 멀쩡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저기에서 저 돈을 내고서. <C>

이와 같이 자신의 생리적 욕구조차 침해하는 가구원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이는 다시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식과 결부되어 개인의 관계 및 존중의 욕구에서의 좌절이라는 연쇄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이러한 갈등은 학교나 회사가 주거 규범을 규정한 권력의 주체인 만큼, 이들의 감시와 관리에 의해 중재되어야 하나 연구참여자들은 적절한 도움을 경험하지 못했다.

통상 사택이나 기숙사는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이 사회초년생 혹은 학생인 경우 택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주거 방식이자 임시적인 거처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이 공동 주거 방식의 단기간 계약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주거비를 감내하는 다른 주거 방식을 결심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동 주거 방식이 최소한의 주거 공간으로서도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최저주거기준(2011.5.27. 시행) 제2조와 제3조에서는 1인가구에서부터 최소한 부엌과 같은 전용입식부엌이 최저주거 기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음, 악취, 기타 안전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택 자체의 물리적인 기준이 확보되더라도 그것을 이용할 수 없도록 주거 규범이 작용하거나, 그것을 이용하는 가구원들의 행태에 따라 동일한 주택에서도 삶의 질이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보여준다. 공간적 포용이 ‘살만한 주거공간(decent housing)’을 확보할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주거 공간의 물리적 요소뿐 아니라 내부에 존재하는 규범과 가구도 함

게 고려해야 함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3. 원가족 -투름 이상의 주택 방식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에,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주거 공간과 관련된 부분이 별다른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 공간 내에 자리한 부모의 규범과 시선이다. White(2002)의 연구에서는 호주 청년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집’은 부모가 정한 주거 규범과 부모의 시선이 지배하는 장소임이 드러난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또한 공동 주거 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타협하기 어려운 규범을 부정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부모와 특히 갈등을 빚는 지점은 부모가 구성한 주거 규범에 철저히 규범적 시공간성이 반영된 부분이었다. ‘이성애-가족-가부장제’를 축으로 하는 규범적 시공간성은 ‘집’이라는 공간이 다분히 사적이며 여성이 가사를 비롯한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규정한다. 연구참여자 <H>는 성인이 된 이후 오랜 기간 집을 떠나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 후 다시 함께 하게 된 부모님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체화하려는 연구참여자 <H>는, 주거 공간에서 고정된 성역할을 해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부모님이 지배하는 주거 공간이 매우 불합리한 공간으로 다가왔다. 연구참여자 <H>는 부모님을 설득하여 주거 규범을 성평등적 관점에서 주거 공간을 재구성하려고 했으나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자, 부모님과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원가족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저는 그때 졸업을 하고 잠시 광주에 내려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

무래도 혼자 계속 살던 사람이.. 원가족이랑 살면 너무 힘들고... 다시 서울에 올라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명분 없이 올라가는 거랑 다름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올라가서 ... 인턴이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이었고... 이제 제가... 특히나 페미니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원가족이랑 생각이 많이 부딪히더라구요. 그래서 뭐 추석 명절에 할머니 댁을 찾아뵙는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 그걸 바라보는 시선, 에 대해서 아빠랑 엄마랑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걸 왜 내가 어떻게, 왜 나한테 화를 내? 엄마도 자신이, 본인이 평생 동안 해오던 일이구, 엄마 자체도 그런 가사 노동을 중요하지 않은, 그냥 내가 하면 되는 일. 근데 너는 왜 아빠를 그렇게 못 살게 구니? 그냥 내가 하면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너 왜 아빠 힘들게 고생하시는데 그래? 라고 말하셨거든요. 본인도 맞벌이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 굉장히 비그덕했어요. 1년 내내... 일단 나와야겠다... 엄마랑 아빠랑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서울에 이제 올라가겠다고 했죠. <H>

연구참여자 <H>는 의지처가 되어주어야 할 가족으로부터 친밀성을 느끼고 삶의 중심이 되는 자신의 가치관이 존중받지 못하자, 법적 ‘가족’의 의미에 물음을 던지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H>에게 원가족,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주거 공간은 오히려 자신의 자아실현을 저해함으로써 관계 및 존중, 자아실현의 욕구 등이 좌절되는 공간이었다. 연구참여자 <H>는 모든 개인이 “가족이기 전에 타인”으로서 존재하며, 필연적으로 모두가 다른 점을 지닌 만큼 이에 대한 존중이 수반되지 못하면 가족이 오히려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가 발현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저는 항상, 가족은 떨어져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 가족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혈연 관계랑 법적 혼인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만 생

각했을 때는, 떨어져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저는 항상 가족의 의미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피, 피와, 그런 법적 혼인 관계. 그래도 가족. 그래도 가족은 이해를 해야지. 그래도 가족은 뭘 어떻게 해줘야지, 라는 고정관념과 그런 편견 때문에 더 불행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족이기 전에 타인이고, 다른 존재인데, 타인은 당연히 안 맞는데 이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래도 가족은 참아줘야 돼. 그래도 가족은 같이 보듬어줘야 돼.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더 불행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항상 기존 가족의 해체와 더 넓은 더 넓고 많은 가족이 탄생하길 바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H>

한편, 연구참여자 <G>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적 가치관을 지향함에 따라 특히 아버지의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태도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견을 전혀 수용하려 하지 않는 아버지의 태도로부터 연구참여자 <G>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건 안” 된다고 결심한다.

일단, 부모님 같이 사는 건, 안돼요. 너무 사랑하고 좋은 분들이지만, 한 이틀 연속 붙어 있으면, 바로 붙고 터져가지구... 특히 아버지가 저랑 생각이 많이 달라요... 어, 보수적이시죠... 정치적으로나... 그냥, 어, 아버지가 쯤, 어, 말이 많으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얘기 끝낼라 그래도 계속 이렇게 쓰는 스타일... 그럼 뭔가 나는 일단은 그래도 좀 들어야 하는 입장인 거고... 옛날엔 막 싸웠는데, 지금은... 좀 차분하게 잘 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러시니까. <G>

연구참여자 <G>, <H> 모두 의도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방식을 향후 고려할 수 있는 가구 형성 대안에서 제거함으로써, ‘가족’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로부터 청년들이 가진 가치관의 방향, 그리고 청년과 원가족 간의 관계는 청

년들이 취하는 가구 형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원가족과의 가치관이 달라 긴장 상태에 놓일 때, 수용되지 못하는 경험으로부터 청년들은 ‘가족’이란 무엇인지 반문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참여자 <H>는 가족의 기본적인 기능 및 효용이라 할 수 있는 휴식, 사회적 안전망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연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으며 더 넓은 가구 형태를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아가 함께 사는 가구원의 조건으로서 서로의 가치관을 얼마나 존중하고 또 조율할 수 있는지를 중요시 여긴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개인주의적이면서도 가구원으로서 ‘친밀성’에 방점을 두는 태도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청년 비친족가구를 통한 대안 주거 목적 달성

기존 주거 방식에서의 한계를 경험한 청년들은 보다 개선된 대안 주거 방식을 꿈꾸게 된다. 본 절에서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대안 주거 방식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 달성해나가는지 살펴해보았다.

1. 분담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들이 기존에 살고 있던 주거 방식과는 무관하게 보다 개선된 주거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주거비가 필요했다. 1인가구인 경우에는 원룸보다 더 넓고 기능적으로 공간이 구획되어 쾌적한 주택이 필요했고, 공동 주거 가구나 원가족과 함께 사는 방식을 포기하고 자신이 원하는 주거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려는 경우는 곧 기존의 저렴한 월세, 혹은 무상의 주거 방

식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자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충분한 주거비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 주거 정책을 알아 보았으나 별 다른 혜택을 얻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연구참여자 <D>는 무기력함으로 원룸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대학원생으로서 정책을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정책의 혜택을 받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

일단 찾아본 적은 있지만, 도움을 받은 적은 없어요... 일단은 찾아봤을 때에는... 계약 시에 전세 지원해 주는 거를 찾아봤었는데, 어, 우선은, 그 당시에... 대학생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대학원생은 대상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찾아봤던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직장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이렇게 사각지대에 이렇게 있잖아요, 대학원생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죠. (연구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제일,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 음, 청년주택을... 근데 이제 사실 가장 큰 거는 위치. 이제, 그죠.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는, 저희야말로 직주근접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집에서 자고 또 나와서 일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걸 생각을 했을 때에... 관악구에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거의 없었었어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세어하우스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주택을 찾아보기는 했었지만, 위치가 너무 애매했다는 점. 그리고 소득 수준이나 그런 거 증명을 할 때, 이제 부모님 거를 같이 증명을 하게 되면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이런 걸 감수하더라도, 집을 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죠. <D>

<D>의 경우는 주거 불안이 가장 장기화될 수 있는 대학원생이 정작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청년 주거 정책은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를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삼으나, 1인가구의 구체적인 적용을 받는 것은 사실상 대학생과 소득이 발생하는 사회초년생으로 국한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높은 주거비를 고려하면 월세 지원은 적용이 어려우며, 그 외 주거비를 효율적으로 아낄 수 있는 방도는 전세 자금 지원 정책이지만, 이 또한 대학 졸업 2년 이내인 청년 혹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저소득 혹은 무소득 기간이 졸업 이후의 기간과 함께 장기화되고 있는 대학원생은 지원이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는 배제되고 있었다. 대학원생은 또한 통학 거리가 짧은 것이 매우 중요하나 청년 주택을 고려하는 경우 적절한 통학 거리 내에 청년주택이 없거나, 있어도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마련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정책적 혜택이 없었다.

연구참여자 <I> 또한 청년 주거 정책을 이용하고자 여러 번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생활이 오래된 <I>는 주거 및 소득 부랑정 상황에서 청년 주거 정책이 주거 안정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마찬가지로 정책 이용을 포기하게 되었다. 청년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빈곤'을 증명하는 복잡한 서류와 장기간의 절차를 청년들에게 요하나, 고용이 불안정한 만큼 근무지에 대한 접근성이나 경제력이 급변하여 단기적으로 미래를 기획하고 대응해야하는 비정규직에게 이를 시도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하며, 청년 주택의 경쟁률도 높아 입주가 쉽지 않았다.

청년주거정책을 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저는 저축해 놓은 금액이 없는데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올 때 제가 받은 것은 아니지만 동거인이 서울시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LH에서 하는 청년층 대상 행복주택 등에 신청해보았으나 한번도 된 적이 없고, 다른 것도 알

아보려 해보면, 복잡한 서류는 물론이고, 저의 주거 관련 일정과 LH에서 뜨는 공고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생활을 좀 불안정하다보니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준비를 하기가 어려운데 LH에서 지원하는 주거지는 기간을 길게 잡고 준비해두어야 하는 것 같아서 시도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다. <I>

이와 같이 직업과 소득, 자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들은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반면, 함께 살고 있는 연구참여자 <A>, <E>는 고소득 정규직인 만큼 다양한 기관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가 상당한 지역에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주택을 고를 수 있었다. 소득 불안정성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비 지원의 혜택이 절실하나, 그만큼 쉬이 지원받기 어려워 더욱 목돈을 가용하기 어려워 소득이 높은 청년들에 비해 별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공간적 포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을 이제 한 3개월 정도 다니면 이제 슬슬 대출 같은 거를 좀 원활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소득 증명도 되고. 이제 그래서, 이 동네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알아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

처음에 집을 구할 때 좀 알아봤었는데, 일단 청년 뭐, 디딤돌 대출, 막 요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에 제한이 걸려서... 그거에 낮아야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 예, 그래서 저, 제 소득으로는 (높아서) 안 되더라고요. <E>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로 인해 원하는 주거 방식을 취할 수 없어 고민하던 가운데, 우연히 자신과 주거 의향이 유사하며 기존에 친밀성 및 신뢰가 축적된 다른 청년과 비친족가구를 형성하는 것을 논의하게 되었다. 청년들은 청

년 비친족가구를 형성하면 인원에 따라 더 많은 자산을 가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쾌적하고 넓은 주거 공간에 거주함에 따라 자신의 주체성과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 또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청년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로서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비친족가구라는 가구 형태는 이들이 새로운 대안 주거 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해 여성 연구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부모님을 설득하는 ‘도구’로써 쓰인다. 위는 청년 여성들이 도시에서 1인가구-원룸 방식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특히 범죄 안전이 남성에게 비해 확보되기 어려운 현실이 상식처럼 자리하기 때문이다. 2인 이상의 다인가구에서부터는 청년 여성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본태적으로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그래서 아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다가 마침, 이제 내가 같이 살았던 룸메, ○○ 언니도 그때... 대학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시간이 쏠기가 조금, 이렇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같이 살래? 응 그랬죠. 이제 왜냐하면 투룸을 구하는 게 훨씬 이득이었던 게, 원룸보다는, 최소 10만 원, 월세로 내면 10만 원은 싸니까? **안전한 면에서도 있고, 투룸이. 왜냐하면 보증금도... 빨리 나눠서 되는 게 이득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경제적인 면이 크죠, 투룸에서 같이 살게 된 건?**

현재 동거인은 이전에 쉐어하우스에서 만난 하우스메이트입니다. 쉐어하우스에서 친해졌고, 모두 쉐어하우스를 떠날 생각을 하던 중, **금전적인 이유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I>

저는 이제 **엄마한테 설득할 명분으로 친구랑 같이 살면, 월세도 더 적게 낼 수 있고, 서로 의지할 수 있겠냐 있지 않겠냐...** 첫 번째 이유는 그래

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월세를 나눠낼 수 있다... 때문에 같이 살게 됐어요. <H>

되게 즉흥적으로. 둘이 그럼 우리 같이 살까? 우리 그럼 집 알아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친구랑 같이 살면은 더 안심이 되고 덜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데다가 **둘이 살면은 월세도 아낄 수 있으니까 부모님 생각을 구하는 게 더 쉬웠던 것 같아요.**<F>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이 아닌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원가족인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 비친족가구 형성 초반의 보증금과 같은 목돈에서 부모님께 도움을 구했고, 학생인 경우 비친족가구 유지 과정 중 매달 지불하는 ‘월세’ 또한 지원받고 있었다. 비친족가구 형성을 통해 더 많은 돈을 가용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하기에는 주거비 대비 여전히 청년들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만큼 이들의 독립에는 자신의 자산, 소득, 직업 뿐 아니라 여전히 부모님과 관계, 부모님의 경제력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엄마한테 빌려서 월세는 이제 제가 내고... 제가 인턴이 합격이 됐으니까... 이제 돈 모으고 바로 갚았어요...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곧바로 졸업한 친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제 **원가족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보증금은 당연히 빌렸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 낼 월세까지도 이제 자기가 알바를 해서 총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완전한 경제적 독립은 아니다 보니, 그런데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이 월세 값이 사실 너무 말이 안 되다 보니,.. 제 친구랑 부모님은 우선 분노부터 나는 거죠. 이게 왜? 왜 보증금 이만큼 올리는데, 월세 이만큼 밖에 안 깎아줘? 그래서... 이걸 조율

하는 과정도 굉장히 필요했고 저는 원래 그런 거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는 시간이 조금 있었죠. <H>

보증금이. 그때 언니랑 우리 집이 3500만 원이었는데, 나 1500만 원, 언니 1500만 원이었는데, 다행히. 언니도 아마 부모님께서 해주셨, 을 걸? 나도 그냥, 응. **어머님이 바로 해결**을 해주셔서.

연구실의 사정, 에 따라서 이제 프로젝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그, 고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주거비용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지원을 지금 받고 있구요.** 이제 그 외에 관리비나 그런 부분은 제가 부담을 하고... 같이 살고 있는 친구는, 어, 지금 연구원을 재직하고 있어서, 일정 수입이 있는 상태입니다. <D>

2. 친밀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구원 확보

이때 비친족가구로서 거주할 주택을 고려할 때에는 ‘타인’이라는 존재가 삶에 더해지면서 1인가구-원룸 방식과 달리 향후 주거의 관계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추가된다. 집단 가구로서 사택이나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가구원으로 인해 심각한 욕구 좌절과 갈등을 경험했던 연구참여자들은 함께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기 위한 타인의 조건으로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친밀성 및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을 중요시 여겼다. 여기서의 ‘신뢰’는, 기본적으로 상대가 본인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기존 주거 방식에 기대했던 주거 목표, 즉 가구원으로써 가사노동을 함께 분담하고, 정상가족 담론을 강요하지 않으며, 친밀성을 존중하되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느슨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번 청년 비친족가구를 형성해봤던 연구참여자 <A>은 자신과 같이

서로 간의 ‘느슨한 친밀성’을 나눌 수 있는 점을 선호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 깊이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같은 주거 공간에서 있을 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가구원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서로 생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터치를 하지 않는 수준을 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그냥, 뭐 있으면 있다보 다, 없으면 없나보다 하고 약간. 그런 쪽을, 선호를 하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그래도 마침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이 있을 때, 어,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고. 어, 재미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코드가 맞는 사람을, 네. 확실히 좀 선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A>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이 기존에 자신과 친밀성이 있고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뢰가 쌓인 이를 가구원으로 선호하는 것은, 주거에서의 관계적 차원 또한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H>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H>에 따르면, 각 가구원의 특성과 이들 간의 관계는 비단 가구원들이 동일한 주거 공간에 있을 때에만 가구원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주거 공간 내에서의 경험은 가구원들이 집을 떠나 외부 공간에 머무를 때에도 작용하여 일상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반대로 주거 공간 내에 다른 가구원이 부재할 때에도 해당 가구원이 생활하던 흔적이 남아있는 만큼 가구원은 심리적인 밀접함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살 만 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주택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 또한 삶의 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더 넓혀서, 사람이랑 살지 안 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집이라는 게, 아무리 집에서 잠만 자는 사람이라고 해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만약에, 특히나, 다른 사람과 같이 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집에 있건 없건, 내가 혼자 우선, 집에 들어와 있건 이게 속속들이 눈에 보이던 말이에요? 뭔가 냉장고 상황이라든지, 설거지를 해놓은 모습... 이것도 하나씩, 다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 다행히 마음이 잘 맞아서 잘 사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정말 막 욕지거리가 나오는 친구도 있었고 ... 뭐 하나라도 불편한 지점이 있다면, 집 들어가기 굉장히 싫고, 집 들어갈 때마다 짜증 나고.

<H>

한편 ‘모르는 사람’과 청년 비친족가구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예상과 통제가 불가능한 다른 가구원과 함께 사는 것은 안정감을 주기보다 오히려 주거 공간 내에서 부정적인 일이 발생할 가능성, 즉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에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미 인간은 통제가 불가능성한 존재에 대해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Bauman, 2006/2009: 157)한 바 있다.

바우만이 통제 불가능으로부터 사람이 공포를 느낀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 <C>는 모르는 사람과 살기 싫은 이유로 “내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선호하는 가구원의 특성으로는 “최소한의 믿음”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는데, 이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으며, 행동이 예측 가능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가구원이 자신과 무언가를 ‘공유’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

의 친밀성을 선호한다는 점으로부터 연구참여자 <A>와 같이 가구원 간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느슨한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는 처음에 울산에서 자취할 때 그때도...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이어져 왔던 거고 이 친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제가 저 친구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게 있어서 그냥 그렇게 세 명이 됐던 거였죠. (연구자: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이 가족이 될 만한 그런 리스크나 거부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최소한의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는 사람은 내가 규제할 수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정말로 이 사람은 가버리면 끝이고 ...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찌 보면은 제가 약간 최저의 기준으로 봤던 거는 저 사람하고 내가 먹살잡이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제일 좋은데 뭔가가 서로 불만이 있어도 저는 그거를 최대한 제일 중요한 조건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이 사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죠.... 어느 정도 같이 사는 사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 있어야 그래도 좀 같이 사는 이유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같이 살기 싫은 사람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뢰나 신뢰감이 없는 모르는 사람 혹은 기숙사를 멋지게 쓰는 그런 사람들... 스크리닝이 안 되는 약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 거고 가급적이면 고르지 않을 선택지가 되겠죠. <C>

그, 초. 그니까 일단, 그거는, 어, 뭔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은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 가지구. 그래서 이제 처음에 원룸을 생각하다가 원룸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구. 그외중에 어, 그러면 차라리 투룸을 구하는 게, 투룸을 구해볼까? 이러면서 사람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시기도 맞아야 하고뭔가 그러니까. 성향은 사실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 근데 뭔가 시기 같은 거라든지, 시기랑, 금전적인 부분들이 좀 맞아야 하는 사람을 찾는 게 네. 그런 분들이 좀 찾기 어려웠죠. 그리고 아예 생판 남이랑 살고 싶지 않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공유해야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뭔가 인터넷으로 사람을 구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심적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

3. 정상가족 중심의 주택을 재영토화하기

비친족가구를 형성한 청년들은 그러나 물리적 측면에서 발현된 규범적 시공간성에 맞닥뜨린다. 부부를 중심으로 설계된 대부분의 다세대 주택이 그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초기에 다른 가구 구성원과 모든 조건이 거의 일치하는 ‘평등한 관계’를 주거 공간 내에서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우선 차등적인 조건의 방 구조만을 지닌 투룸 이상의 다세대 주택에서 고민을 하게 된다.

한국에서 가장 주택으로서의 위상이 높은 것은 단연코 아파트로, 이 중 ‘거실중심형’ 주택이 상품성이 높은 만큼 보편화되어왔다(서원기, 2010). 이 평면은 각 방이 ‘안방’으로 불리는 마스터룸 및 기타 작은 방 1~2개로 구분되며, 중심에 놓인 거실을 향해 개방되는 형태다. 여기서 ‘안방’은 부부가 성생활과 수면을 하는 은밀한 이성애적 공간으로, 가장 넓은 면적과 좋은 채광이 드는 곳에 위치한다. 기타 방은 안방에 비해 그 면적이 작을 뿐 아니라, 주로 세탁기를 놔두는 베란다에 붙어있어 채광이나 습도가 좋지 않거나, 부엌 혹은 현관 등에 가깝게 위치하여 안방에 비해 소음이나 냄새 등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즉, 이러한 평면은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들이 추가되는 가구를 위한 형태로, 사실상 부부를 제외한 친족가구를 비롯해 ‘성애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모든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다. 연구참여자 <H> 또한 적절한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부터 투룸 이상의 주

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살림집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실제 살펴보고 또 거주해왔던 주택들이 모두 그런 위계적인 방의 조건을 지녔다고 언급했다.

공인중개사에서도 말하세요. 투룸은 살림집이라고. 여기는 신혼부부들이 들어와서, 투룸은,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 가 빌라에 들어와서 사는 거라서, 방이 구조가 비슷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방은 안방으로 해야 하고, 한방은 드레스룸이나 서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방은 굉장히 크고, 한방은 좀 작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방이 거의 그랬어요... 전에 살던 집도 그렇고. 지금 살던 집도 그렇고, 작은 방이 주방과 세탁실에 붙어 있고, 지금 집도 작은 방이 주방과 세탁실에 붙어 있어요. 큰 방은, 이제 거기랑 붙어있어요. 거실이랑, 가깝고, 심지어 지금 방은 화장실까지도 같이 붙어 있어요. <H>

이러한 평면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청년 비친족가구가 접근하기 쉬운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에도 공통적으로 반영된다. 성애적 맥락에 놓이지 않은 연구참여자들은 초기에 기대했던 바와 달리 동등한 조건의 개별방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방식으로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참여자들은 보통 방의 조건이 차이 나는 대신, 주거의 다른 측면에서 가구구성원이 ‘부담하는 바를 조율’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예컨대 , <F>는 더 좋은 조건의 안방을 사용하는 가구원이 더 많은 월세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한편, <H>은 각자의 생활 방식에 적합한 방을 선택하여 ‘양보’하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복잡한 마음을 보다 내려놓기로 하였다.

저는 작은 방을 사는데요. 이 작은 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룸메가 훨씬 짐이 많고. 짐이 좀 많은 편이고... 사실 저도 쉽지는 않았죠. 왜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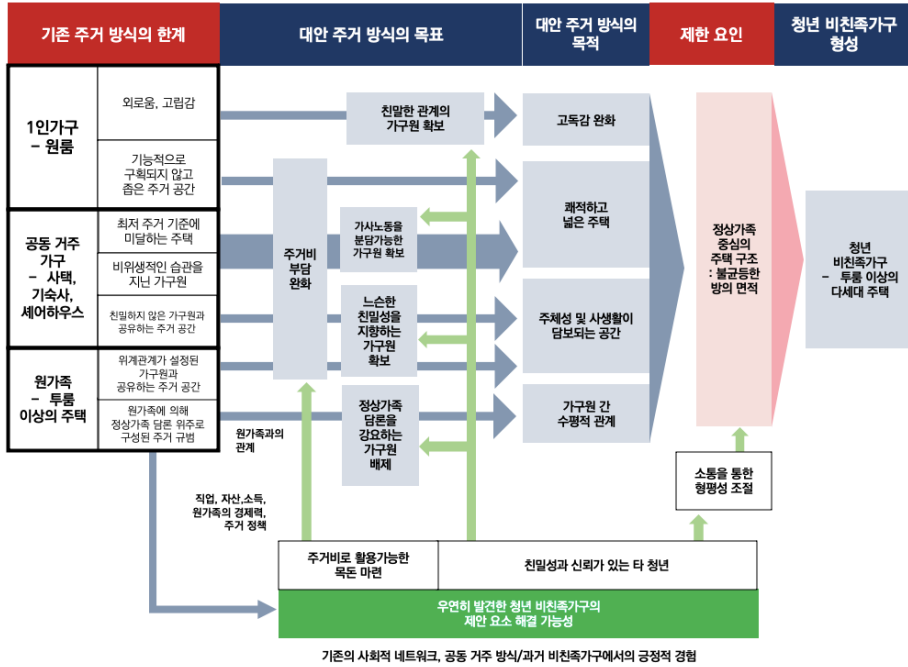
하면 첫 번째 집 구할 때는 그래, 월세를 누가... 많이 내냐 적게 내냐, 이렇게 하다가, 아니... 그거 어떻게 다 따지고 있어. 그냥 나눠서 내다가, 1년 뒤에 바꾸자 이랬는데, 안 됐죠. 왜냐하면 친구는 짐이 점점 늘어나고... 살다 보니, 살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살았고... 사실 이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니까, 큰 방 쓰고 싶구.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해 봐도... 이제 큰 방을 쓸 이유는 없는데 굳이. 괜히...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사실 그거는 굉장히, 쓸 데 없는 마음이었고. 왜냐하면 저는 큰 방에 들어가도 넣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네가 하던 대로, 큰 방 써, 약간 좀 이랬다가, 혼자 마음 상했다가, 이제는 뭐 그냥. <H>

이러한 양보가 가능했던 것도, 기존의 친밀감과 신뢰가 쌓여있던 관계라는 점이 작용하여 서로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안방을 두고 누가 어떤 방을 쓰며, 방의 조건에 의해 누리는 주거 효용의 차등을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다소간 혼란을 겪었으나, 이내 큰 갈등 없이 원활하게 각자 만족할 수준에서의 주거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모두의 자율성과 개별방이 보장되는 청년 비친족가구로서의 방식을 규정할 수 있었으며, 규범적 주택에서 비규범적 가구로서 재영토화를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제 3 절 소결

본 장에서는 청년들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 대안적인 주거 방식을 도모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들은 기존 주거 방식에서의 한계를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주거 방식의 목적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해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1] 참고).



[그림 4-1] 청년 비친족가구의 형성 과정

먼저 청년들이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계기이자 형성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기존 주거 방식에서의 한계다. 청년들은 1인가구 - 원룸 주택 방식에서는 기능적으로 구획되지 않고 좁은 주거 공간에서 홀로 머무르면서, 답답함 및 고립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편, 비자발적으로 학업, 근무 등의 이유로 선택하게 되었던 공동 거주 가구 - 기숙사 사택 방식에서는, 갈등 발생 시 소통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가구원이 배정되는 경우, 해당 가구원과 강제적으로 주거 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주거 규범이 적용되어 적절한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주택 자체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으로서 기본 요소가 갖춰져 있더라도 사실상 적용되는 주거 규범에 따라 취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

게 되는 등 주택의 기본적인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원가족 - 투룸 이상의 주택 방식에서 부모에 의해 주거 공간과 주거 규범이 구성되고 관리되는 경우, 청년들이 한계를 느끼고 대안 주거 방식을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주거 규범이 부모에 의해 정상가족 담론을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청년들이 페미니즘을 지향하거나 전통적 결혼관 및 가족관을 지양하는 경우에는 특히 청년들이 강한 원가족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주거의 목적은 고독감 완화, 쾌적하고 넓은 주택 확보, 주체성 및 사생활이 담보되는 공간 확보, 가구원 간 수평적 관계 확보라는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들 주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자산과 소득이 충분치 않아 모든 기존 주거 방식에서 1차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안 주거 방식 달성을 위한 목표로 중요해진다. 이때 청년들은 우연히 다른 청년과의 교류 속에서, 비친족가구를 형성함으로써 주거비를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서로 신뢰와 친밀감이 형성된 다른 청년을 가구원으로 확보하면, 주거의 관계적 차원에 있어서 우려하던 갈등 해결의 어려움이나, 가구원 사이의 위계로 인한 불편함, 정상가족 담론 중심 혹은 기타 수용하기 어려운 주거 규범을 강제하는 일 등을 겪지 않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청년들은 청년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기로 결심하고, 본격적으로 비친족가구로서 입주할 주택을 물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제한 요소를 마주하게 되는데, 정상가족 중심으로 공급되어 온 주택 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비친족가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가구원이 개별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방을 나누어 거주함으로써 가구원들이 평등한 주거 생활을 누리기를 기대했으나, 대부분 투룸 이상의 주택들은 이성애와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가 안방에서 성생활과 수면

을 함께 영위하기 위한 공간으로 여겨짐으로써 안방과 기타 방과의 위계적인 방의 조건이 문제가 된다. 청년들은 기존의 가구원과 축적한 신뢰 및 친밀감과 같은 관계적 자원을 바탕으로 양보 혹은 월세 조절, 가사노동의 차등적 분담 등의 전략을 통해 원활하게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비친족가구로서 투룸 이상의 다세대 주택에 입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족한 자산으로 인해 원룸으로 수렴될 확률이 높았던 청년들은 이보다는 더 상위트랙에 존재하는 투룸 이상의 다세대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여건이 좋은 경우에는 전세를 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에 의한 정상가족 담론 중심의 주거 규범에서 탈피하고, 정상가족을 위한 주택을 비친족가구의 생활에 적절하도록 재영토화하는 과정을 통해 정상가족 담론에 균열을 내는 모습이 드러났다.

제 5 장 청년 비친족가구로서의 공간 경험

제 1 절 청년 비친족가구의 장점

본 절에서는 청년들이 기존 주거 방식에서의 한계를 느끼고, 대안적 주거 실천으로서 청년 비친족가구를 형성한 이후의 공간적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들은 기존 주거 방식에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혹은 그 반대로 수평적이고 주체성과 사생활이 보장되는 관계를 원하는 등 관계 욕구의 좌절을 겪었던 것과는 달리 비친족가구를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에서 만족감을 얻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1인가구와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줄어

든 주거비와 생활비로 원룸에 비해 훨씬 쾌적한 주거 공간을 누리게 되면서, 자신들의 주거 불안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청년들은 비친족가구 형성이라는 ‘가구’ 차원의 변화를 통해, 주거에서의 관계 욕구를 충족할 뿐 아니라 주거 불안 또한 완화하는 경제적 효과를 주거 공간에서 얻고 있었다.

1. 개선된 주거 공간과 경제적 절약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주거비 및 식료품, 음식과 같은 생활 필수재를 위한 지출 비중이 높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김수진, 김호범, 2019: 34). 이에 반해 연구참여자들은 비친족가구를 형성함으로써 주거비와 생활비를 크게 절약하는 점을 가장 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이는 소비를 할 때 공동 소비재를 저렴하게 구입함으로써 소비로 인한 평균 비용이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는 청년 비친족가구의 주거비와 생활비 부문에서 각각 발생하고 있었다.

이때 청년 비친족가구를 형성하는 것은 1인가구일 때보다 줄어드는 주거비 뿐 아니라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과 짝을 이뤄 극대화된 장점을 제공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각각 개별방을 소유하고 공용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원룸 혹은 기숙사 등에서의 주거 방식과 달리, 더 넓은 면적과 기능적으로 구획된 주거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이 1인가구나 공동 거주 가구로 기본적인 취사시설도 갖추지 못하거나 동선도 없는 주택에서 거주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때 개인이 활용가능한 공간은 1인가구-원룸 방식이나 공동 거주 가구 방식보다 그 면적이 넓어지나, 주거비는 1인가구-원룸 방식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연구참여자 <H>는 잘 인식하고 있었다. 주택의 형태 자체가 원룸에서 투룸으로 바뀐 것 또한 주택의 쾌적성을 높여주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H>는 비친족가구를 형성함으로써 원룸 주택에서 투룸 이상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상향 이동하는 것은 단순히 누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주거 공간의 방음 기능이 더욱 개선되고, 주택 전체에 범죄 안전 시설이 잘 갖춰지거나 기능에 따라 공간이 구획되는 등의 공간의 질적 개선을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아무래도, **장점은 정말, 누가 뭐라 해도 경제적인 거?** 사실 정말 웃긴 게, 투룸이랑 원룸이랑, 월세나 전세나 둘 다 투룸이 원룸의 두 배라고 해서, 원룸이 투룸의 절반이 아니고. 원룸의 2배가 투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원룸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돈을 적게 내면서... 거실도 공용 공간으로 쓸 수 있고 ... 세탁실이나, 그리고 욕실이나 주방. 주방이 일단 이제 따로 빠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원룸에 살 때보다 돈을 덜 들이면서 훨씬 넓은 공간을** 누리면서 살 수 있죠. 그리고 원룸은 아무래도, 한 층에 대어셋... 적어도 두세 세대 있어서, 방음이 잘 안 된 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투룸은 거의 대부분 한 층에 두세 대. 이런 식으로 살고. 거의 대부분 **방음이 웬만하면 사람이 살 정도**는 되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월세는 정말 똑똑 두들기면 텅텅 소리 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만 투룸 빌라는, 거의 대부분 살림, 하는 분들... 아이를 낳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대로변에 있다던가, 아니면 빌라 자체에 cctv가** 있다던가. <H>

생활비에 있어서도 비친족가구 방식은 1인가구-원룸방식에 비해 관리비를 나눠내거나 식품이나 샴푸, 식품 등 소비재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해당 소비재를 사용하는 가구원이 늘어나 비용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는 한편, 소위 ‘벌크’ 형태로 구매를 하게 되더라도 개인을 위한 수납 공간이 넉넉지 않았던 사택, 원룸, 기숙사와 달리 비친족가구가 거주하는 투룸 이상의 다세대 주택에는 이를 보관할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A>는 생활비를 절약하면서 주거 생활이 안정된 부분이 만족스러워 자주 주변에 이야기한다고 언급하면서, ‘식비’에서의 만족이 특히 크다고 강조했다.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보통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 명에서 한 집에 살다 보니까 **생활비가 아껴진다는 점**이 이제 가장 컸습니다… 돈을 절약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일반적인 관리비뿐만 아니라, **특히 식비에서도 엄청 많이 와 닿는 것들**이 있어서. 뭐 이를 테면은… 식자재나 생활용품 구입하다 보면 되게 아 직까지도 뭔가 4인가족이라든가, 그게 또, 뭐 어쩔 수 없이 뭐, 당연히 도매가가 쌀 수 밖에 없으니까 벌크 형태가 싼 것도 경우도 많은데… 혼자보다는 2명 그리고 막 4명에서 같이 살게 되면은 확실히 싸게, 좋은 물건들을 좀 구매할 수 있으니까는. <A>

연구참여자 <D>의 경우도 <A>와 유사했다. 주거비를 아끼면서 부모님에 대한 의존을 줄이며 심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과, 1인가구로서 무엇보다도 ‘요리’를 편하게 할 수 없었던 점이 개선된 것을 만족스러워했다. 개인은 다수에 비해 식사 때 먹을 수 있는 양과 구입할 때의 식자재의 최소 부피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 식품의 짧은 보관주기, 옵션으로 갖춰진 작은 냉장고 크기 등으로 인해 요리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 대비 누릴 수 있는 효용은 크지 않다. 따라서 청년 1인가구들은 취사시설이 갖춰진 원룸에서 거주하더라도 직접 요리하여 식비를 덜기보다 배달 등에 의존⁹⁾하는 경우가 높은 만큼 식비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편(김태완, 강예은, 2020)이다. 그러나

9) 전재욱, “[ESF 2020]”1인가구 대세..세탁은 대행, 음식은 배달”, 이데일리뉴스, 2020.6.11., 2021.5.1.검색,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837606625800736&media CodeNo=257>

〈A〉는 비친족가구를 형성한 뒤 “남는 게 진짜 많”았던 1인가구 때와 달리 확실히 ‘절약’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H〉와 마찬가지로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집”으로 가면서 집을 “더 집처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장점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조금 더**, 그니까 기존에 내던 거에서보다 한, 10만 원 정도 **줄이고** 이제 집에 들어갔다는 점. 그니까 **부모님한테 부담, 을 좀 내가 덜 느껴도 된다는 점**, 이게 그 장점이었고... 그니까, 이제, 둘이 같이 살게 되면은 어쨌든 투룸을 구하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사실 거실이 있는 집을 원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 방이, 내 집이 되는 집은 아니잖아요. 네.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집으로 가니까, 그냥 그게 더 집처럼 느끼게**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사실 제일 크죠. ... **생활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 가 혼자 살 때는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사다가 먹어도 내가 먹는 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남는 게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살면은, 언제든, 저희는 이제 거의, 따로 따로 샀더라도 같이 많이 소비를 하거든요? 많이 같이 소비를 하고, 내가 만약에 언니 꺼 이거를 이때 먹었으면 내가 그 다음에 사다 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채워요. 그니까... 버리는 게 좀 줄어들었다는 거... 여러 모로 둘이 같이 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절약이 된 거죠. 〈D〉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비친족가구를 형성함으로써 1인가구 혹은 공동거주 가구로써 기숙사등에서 거주할 때보다 더 적은 주거비를 지불하면서도 방음, 안전 기능이 강화되고, 기능적으로 구획된 주거 공간에서 개별방과 넓은 공용면적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더 적은 돈으로 생활필수재를 소비하고, 비용과 노력을 덜 들이고도 수월하게 요리를 하며 할 수 있게 되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 생리적 욕구 및 안전 욕구, 나아가 요리를 취미로 즐기고 싶었던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자아실현의 욕구도 만족시키는 효과를 제공하고 있었다. 즉, 청년 비친족가구라는 대안적 주거 실천은, 청년들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경제적인 여유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기존 주거 방식보다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2. 범죄 안전 확보

청년들은 청년 비친족가구 방식을 영위하면서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안전 차원에서도 주거 불안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는 다분히 성별화된 경험으로, 여성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1인가구로서 원룸에 살 때보다 ‘범죄 안전’이 확보된다는 점을 비친족가구의 장점으로 언급했다. 실제 연구결과들에서도 성별화된 주거 안전 경험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 1인가구 중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2.3배 높았으며, 이 중에서도 ‘주거 침입’에 의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무려 11.2배 높은 것(형사정책연구원, 2017)으로 나타나, 청년 여성들이 주거에서의 범죄 안전 불안을 호소하는 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포를 반영한다. 따라서 청년 여성의 경우 주거에서의 안전 욕구가 남성보다 높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다른 차원의 주거 관련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이 남성보다 부족한만큼 주거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조규원, 2019).

여성 연구참여자들인 , <I>은 1인가구 대신 비친족가구를 형성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불안이 완화되고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위급 상황에서 함께 대처할 수 가구원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다인가구라는 것 자체로 이미 여성 1인가구일 때보다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입지도 우리도 처음엔, 너무 골목은 들어가지 말자였어. 왜냐면 **늦게, 오는 경우에, 무섭잖아...** 그리고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좀 **안전한 면에서 심적으로도 되게 위안이. 아 진짜 큰 것 같애.**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훨씬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치안문제**에 있어서도 **훨씬 덜 불안**하고, 정서적으로도 매일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I>

아울러 연구참여자 <D>는 연구참여자 당사자들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원가족 또한 심리적 연결감에 의해 범죄 안전에 대한 안정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모님이 느끼는 장점 중 하나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양쪽 가족에, 다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누군가랑 같이 살고 있다는 게 부모님한테 되게 안심이 되시나 봐요.** <D>

뿐만 아니라 앞서 톺아봤던 <H>의 경험으로부터, 비친족가구 형성으로 인해 주거의 물리적 차원에서 안전 수준이 높아지며 범죄 불안이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H>는 비친족가구를 형성하여 더 많은 금액을 주거비로 가용할 수 있게 되면서 1인가구일 때보다 더 상위 주택인 투룸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며, 이러한 주택 유형의 변화는 단순히 주택 면적의 증가뿐 아니라 CCTV 보유, 도로변의 입지와 같이 질적으로도 개선된 주택의 물리적 요소의 변화를 동반한다. 즉, 대안적 주거 실천으로써 가구 유형을 변화시키는 것은 경제적 차원을 매개로 주택의 다차원적인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연구참여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투룸 빌라는, 거의 대부분 살림, 하는 분들... 아이를 낳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대로변에 있다 던가, 아니면 빌라 자체에 cctv가 있다던가.** <H>

3. 고독감 해소와 함께 사는 재미 느끼기

또한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대와 자발적으로 비친족가구를 형성하여 기존 주거 방식에서 경험했던 관계적 차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관계 욕구를 적절히 충족하며 대안적 주거 실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다. 즉, 1인가구일 때 느끼던 고독감을 해소하고, 공동 거주 가구 및 원가족 내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소통을 통해 원활히 해결이 어렵거나, 강압적인 주거 규범을 강제하는 가구원에서 벗어남으로써 보다 주체성과 사생활이 담보되는 공간, 그리고 수평적인 가구원과의 관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F>은 비록 1인가구일 때의 경험이 없었으나 가구원인 가 잠시 함께 살던 집을 비웠을 때 공허함을 느꼈다고 언급하면서, 자신이 외로움, 답답함 등을 느낄 때 즉각적으로 자신에게 대화를 통해 정서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가구원이 주거 공간에 상시 존재한다는 점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일단 **덜 외롭다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게 〇〇이가 잠깐 독일 여행 가면서 집을 한 한 달 정도 비웠을 때 느꼈던 건데... 집에 오면은 진짜 되게 막 **공허하고...** 확실히 딱. 사람이 이렇게 둘이 복잡 복잡하게 하는 집을 혼자 사는 집은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다음에 **되게**

외롭고 답답하거나. 뭐 굳이 막 수다 떨고 싶은 상태가 있을 때 바로 옆 방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F>

한편 비친족가구를 형성하며 만족감을 느끼고 나서야 과거의 자신이 1인 가구로서 외로움을 경험했음을 인식하기 시작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D>는 비친족가구를 형성한 이후로 가구원과 잦은 소통과 즐거움을 나누게 되면서, 비록 1인가구로서 인식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비친족가구 생활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리라고 뒤늦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1인가구들의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요즘, 자신의 외로움 혹은 고독감 경험과 그에 대한 인식에 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괴리감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D>는 가구원과 바쁠 때는 소통하기도 어렵지만 존재 자체로 서로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부여하며, 가구원과의 서로 다른 점이 오히려 상호보완하면서 심리적으로 힘들 때 서로를 잡아주는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지하지 못했던 건데, 혼자 살 때는 혼잣말 진짜 많이 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혼자 있으면 외롭다는 걸 잘 못 느끼는데**, 막상 같이 사니까, 내, 내가 이렇게 말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계속 가서 언니 귀찮게 하고. 계속 언니 방 가있고. 언니도 제 방 와가지고 "심심해." 그러구 이제, 거의 같이 그냥 둘이 같이 있을 때는, 그냥 언니 방에 크니까 언니 방에서 같이 얘기 많이 하고 이제 그러는데... **내가 그때 좀 외로웠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사니까 확실히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되게 좋아요. 사실 바쁠 때는 둘이 그냥, 진짜 출퇴근할 때 어느 거의 보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도 그냥, **누군가가 같이 있는 게 되게, 크다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심리적**

인 인정감... 성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들이 좀 약간 반대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호 보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인정감, 을 제가 준다면 언니는... 언니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스트레스를 초과했을 때 저를 잡아주는 역할?... 서로의 성격을 잘 아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잡아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더 조심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¹⁰⁾ <D>

연구참여자 <H>는 함께 살면서 느껴지는 만족을 정확히 ‘재미’로 표현하였다.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이 절실했던 <H>는 금전적인 이유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친구와 청년 비친족가구를 급히 형성했으나, 막상 비친족가구로서 느끼는 장점이 상당하자 이사를 하면서도 비친족가구 생활을 연장하고 있었다. 즉, 청년 비친족가구는 서로 함께 할 때 불편하지 않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가구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기존 주거 방식 경험에서 우려했던 관계적 차원에서의 부정적인 요소를 배제함과 동시에 긍정적 요소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긍정적인 요소 가운데에서도 <H>는 특히 함께 지내면서 느끼는 ‘재미’가 비친족가구 기간 연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최근 생활동반자법을 적극 지지하는 작가 황두영(2020)도 저서 <외롭지 않을 권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¹¹⁾이다. 작가는 타인과 함께 사는 재미와 상대를 돌보며 느끼는 만족감을 알아야 1인가구로서 고립되기 보다는 타인과 광의의 가족을 형성하리라고 지적한다.

10) 일련의 연구들(조혜정, 2013; 구재선, 김의철, 2006)에 따르면 청년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높은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재로 작용하여 행복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

11) “가족을 꾸리는 일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순간을 보내며 함께 사는 재미를 느끼길 기대하는 것이다. 분명한 건 한국은 함께 사는 즐거움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누군가와 함께 만들어낼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두려워한다. 한국 사회에서 ‘변화’는 대체로 ‘불행’의 유의어다...세계에서 유례 없는 저출산도 결국 ‘함께 사는 즐거움’에 대한 문제다.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관계인지와 상관없이 사람과 함께 사는 재미, 서로 책임을 갖고 돌보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맛을 모른다면 자녀는 그저 십수 년 동안 수억 원의 돈과 수억 시간의 고생을 들여야 할 부담일 뿐이다.” (황두영, 2020: 167-168)

어, 처음 같이 살 때는... 월세가, 2년 계약해서 2년 같이 살고... 월세 계약이 끝나, 작년 11월에 10월에 끝났으니까, 작년 초부터, 뭔가 전세로 **같이 살아보자**라는 게 말이 계속 나왔어요... 왜냐하면 돈이 적게 들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마음이 맞으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영화 보고, 이런 것도 재미있었으니까** 같이 살자는 얘기랑 조금씩 조금씩 나왔구요. <H>

한편 <C>은 자신이 과거에 비친족가구를 형성했던 주택의 가구원이 일부 바뀌어가면서, 서로 간에 느끼는 친밀감과 재미를 통해 함께 거주했던 적이 없는 가구원들까지도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시즌 1’, ‘시즌 2’ 등으로 표현하는 이들의 비친족가구 서사는 중첩되는 가구원들을 매개로 함께 공유되며, 느슨한 소속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친족가구를 형성했던 청년들 가운데 급히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뢰와 친밀감이 없던 이와 비친족가구를 형성한 경우에는 기존에 볼 수 있었던 가구원들 사이의 교류가 단절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원하는 사람 혹은 잘 맞는 사람과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곧 주거 방식에서의 관계적 차원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안정감과 만족감을 제고하는 기본 전제임을 시사한다.

울산에 그 집 같은 경우가... 그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살던 게 약간 시즌1이고.. 이제 잔류했던 몇 명의 사람들이 계속 남고 남아가지고, 지금 아마 시즌 3까지가 갔을 거예요. 지금 그 집이 계속 명의자만 바뀌는데... 약간 전체 **알람나이 느낌**으로 있는 사람들이 제가 10명 이상이 지금 돼요. 지금 거기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집에서 정모도 했었어요**.. 그래서 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금씩 겹치는데... **그게 되게 재미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그 알람나이 말고 이제 **따로 있**

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은 자기 방에만 거의 생활을 한 대요... (연구자: ... 처음에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느냐에 따라서 같이 사는데도 교류가 좀 바르게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하다 못해 이게 조금이라도... 알던 사람이었으면은... 근데 만약에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C>

4. 호혜적 돌봄 노동 확보

연구참여자들의 비친족가구 내에서는 대부분이 가구원 간 신뢰와 친밀성이 이미 형성되어 있던 만큼 서로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돌봄 노동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명시적으로 책임과 방식을 규정하지 않은 부분의 돌봄 노동도 호혜적, 암묵적,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H>와 <D>는 자신과 가구원의 위생관념이 비슷하다보니, 각자가 자발적이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가사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공간의 일정 수준을 원활하게 유지하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청소 주기를 정해놓지는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하자, 하다가도 흐지부지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서로 이제 앙간치, 이걸 **참을 수 있는 수준이 비슷**하다 보니, 좀 더러워진 것 같으면 누구 한 명 청소하고. (연구자: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게 되죠.) 네네네네. 서로 그런 꼴을 못 보고. 왜, 뭐, 누구 한 명이 화장실 청소하면 대충 눈치 까서, 그럼 나는 오늘 이거 다른 거 청소해야지. 약간 암묵적으로 돼서, 그게 진짜 편합니다. <H>

성격에 있어서도 되게 다른 부분이 많아요... 저는 이제... 할 거 막 많은

데, 어우 청소 좀 해볼까 봐 이려고, 그냥 할 거 하기 싫어서 막 그러는 편이라면, 언니는 이제 거슬리는데? 그럼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불만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내가 거슬리니까 내가 한다, 하는 편이고, 저도 그냥,** 어 내가 뭔가 이렇게, 언니가 없거나 **뭔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정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면들, 이 좀 보완을** 해주는 것 같아요. <D>

지금 남아있는 세 명이, 안 싸우는 유일한 세 명이었어. **어 그냥, 보이면 하면 되지, 뭐 이거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스타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정한 건 아닌데, 셋이서 하는 각자 하는 공통, 그 역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어.** 서로. 저는 설거지랑, 약간 이 친구들 두 명 공통점이 자기 개인 물품이나 쓰레기 같은 거를, 그, 그런 거 있죠, 아이스크림 까먹으면 그냥 그 자리에 쓰레기 두는. 두고 안 치우고. 이런 거, 제가 다 처리합니다. ○○, 같은 경우에는 날짜에 빠삭해서, 재활용 버리는 날 자기가 버리구. <G>

<F> 또한 비친족가구로서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돌봄 노동을 서로에게 제공하며 1인가구였다면 느끼기 어려웠을 "인간의 따뜻함"을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F>는 직접 요리하여 식사하는 것을 귀찮게 여겼지만 부지런한 덕분에 매끼를 건강하게 챙길 수 있었고, 개인이 한 번에 2인분 이상의 세탁, 요리 등의 집안일을 하며 가사 노동에 들이는 수고로움을 덜거나, 범죄 불안을 느끼는 늦은 귀갓길에 가구원이 마중 나와주는 등의 경험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아울러 이와 같이 호혜적 돌봄 노동을 가구원 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가구 형성 이전부터 가구원 간에 구축되어 있던 신뢰와 친밀성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가 **밥 하면서 그냥 맨날... 같이 해주고.** 나는 아침에 되게 늦게 일

어나가지고 아침에 못 먹는 편인데, ○○이가 이제 나보다 되게 부지런하고 잘 일어나는 편이라… 그게 되게 나는 좋았어… 그리고 이게 우리집이 되게 다세대 주택들 몰려있는 동네여가지고… 그래서 밤에 좀… 어두운데 ○○이가 자기 심심하다고 막 나 마중 나오고 막 그랬었던 말이야. 그런 거는 되게 좋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 **혼자 살 때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따뜻함** 같은 거여서. 그런 건 되게 좋았어… (연구자: 그렇게 된 거는 이미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더 그럴까?) 그런 거 같아. 왜냐하면은 **둘이 친한 관계였고 둘이 친밀한 관계였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리고… 사실 밥을 해 먹을 때 내가 직접 밥을 해먹는다는 게 메뉴를 생각하고 재료를 준비해서 요리하고 이런 것까지 되게 귀찮은 과정이잖아… 근데 이제 막 그냥 너 그럼 같이 사니까 그냥 뭐 ○○이가 언니 뭐 먹을래? 이렇게 해서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먹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삼시 세끼 더 잘 챙겨 먹게 되고. <F>

<A>는 비친족가구 생활이 만족스러운 이유 중 하나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가사 노동으로 인해 1인가구로 살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쾌적한 수준에서 집이 관리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요리’가 취미인 <A>는 다른 가구원이 ‘요리’해줄 것을 굳이 기대하지도 않고, 자신의 취미를 즐기면서 가사 노동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므로 다른 가구원인 <E>가 요리를 즐기지 않아도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효용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는 이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확실히 집에 혼자 살면은, 제가 없으면 이 집이 완전히 비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될 때들이 되게 많고 한데, 뭐 두 명, 이렇게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훨씬 더 자주 활용이 되고, 사람이 한 명에서 있을 확률이 높

다 보니까는, 뭐 집이 조금 더 관리가 많이 되고, 청소도 많이 되고, 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훨씬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되게 요리, 해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런 부분들을 좀, 즐겨하는 게 있어서. 사실 제, 제 룸메가? 뭐 요리를 잘하는지, 얼마나 자주 하는진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지금도 그냥, 제가 요리를 거의 대부분 책임을 지고 있고. 책임까지도 아니고 그냥 같이 있으면은 그냥. 한 명 거, 더 하는 네. 한 명 거 그냥 거하고, 그냥 그런 수준으로 해서, 뭐 잘 먹고, 어 그래도 가끔 뭐 룸메가 설거지 열심히 해주고. <A>

이와 같이 비친족가구를 형성하여 가구원 간의 호혜적 돌봄 노동을 확보하는 것은 특히 1인가구의 관계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주거 불안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대안적 주거 실천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I>가 1인가구로서의 생활을 반추하며 “혼자 살 땐 생활이 한번 무너지면 아예 다 포기해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또 밖에 나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접점이 없다보니 이러다 고독사를 해도 한달은 지나야 발견되겠구나, 싶을 정도의 고립감을 느꼈습니다.”라고 언급했던 바와 같이, 1인가구의 주거 불안은 비단 경제적, 물리적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차원과 생존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혼자 죽어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다는 공포’를 유발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신을 상시 돌봐줄 가구원이 나와 동일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고, 또 실제 그러한 돌봄을 받는 것은 거주자가 일정한 공간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

5. 자기 관리의 강화와 자아실현의 실천

한편, 청년 비친족가구 또한 기본적으로 다인가구 형태라는 점에서 기인

하는 장점도 존재한다. 이 장점은 나에게 의미있는 ‘타인의 시선’이 존재한다는 점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이러한 타인의 시선의 영향력은 강력하여 시선이 있다고 상정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에게 감시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발적으로 형성된 비친족가구로서의 삶에서는 상대 가구원의 시선이 적절한 수준에서 작용하면서, 개인들이 스스로를 적절한 위생수준에서 관리하고, 계층을 부리지 않게 하는 등의 순기능을 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개인이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부정적 이미지를 우려할 뿐 아니라, 친밀감과 신뢰가 있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다. <I>가 앞서 1인가구로서 자신을 포기했던 경험을 언급했던 것과 동일한 지점에서, <F>는 부지런한 가구원과의 비친족가구 생활 덕분에 자신이 그래도 적절한 선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점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혼자 살 때의 “완전한 자유 방임”이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해 반문하게 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타인과 함께 사는 거라 혼자 살 때보다 일상을 더 잘 유지/관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동거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너무 어질러 놓지 않고, 정해진 날 청소를 하고, 제때 씻게 됩니다. <I>

생활 패턴이 ○○이가 있었어도 무너지기는 했지만, 혼자 있었으면 더 무너졌을걸. **둘이 같이 사니까 이 정도로 지키면서 산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살면은 진짜 완전한 자유 방임이 되는 거잖아.. 근데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진짜 뭔가 심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이렇게 **나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나는 항상 되게 많이 늦게 일어나기는 했지만 조금씩만 ○○이가 깨워주기도 하고. <F>

나아가 소통이나 다른 가구원을 관찰하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키

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었다. 자기 자신이 편협해지는 것을 평소에도 경계하는 편인 <G>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가구원과의 소통 속에서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 환기되는 부분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E> 또한 <G>와 비슷한 경험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자신과 관심사가 다른 가구원을 관찰하거나 서로 소통하면서 자신의 세계가 더욱 확장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도 마찬가지로 다른 가구원의 성실한 모습을 볼 때, 스스로 더 나아가고 싶다는 정신적인 자극을 받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뭔가 환기 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애. 혼자 살면. (연구자: 아. 자기 세계가 너무 좁아지지.) 그지. 보고싶은 것만 보고. 이게, 나도 경험했던 건데, 방에 한 일주일만 있다가 친구 만나면, 좀 어, 어색해... 좀 편협해진 거 같기도 하구. 근데 셋이 살면, 지나가며 밥 먹을 때 한 마디씩 하구. 그러면 확실히 환기가 돼. 그게 진짜 좋아. <G>

그 친구 관심사 다르고 제 관심사 다르고 하니까... **서로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식견이 넓어지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생활 패턴도 아무래도 좀 다르다 보니까. 아, 자극이 되는 부분도 예를 들면 동현이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가요. 새벽 6시에 운동하러 나가고 이러면 생각보다 나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자극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는 술 먹고 되게 늦게 들어오면 저러지 말아야지. 싫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뭐, 보고 배우는 것도 있고. <E>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막 **언니는 방에서 뭘 하거나, 그러면 양심에 찢려**. 그래 나도 똑같은 대학원생인데,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언니가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언니가 수업 들으러 나가 그러면, 그래, 어, 언니는 수업 들으러 나가는데, 그래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 라는. 그

렇게 하진. 그니까 실제로 실천로 옮기진 않더라도... **자극이 돼.**

이와 같이 친밀한 이와 비친족가구를 형성한 경우의 이점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에게 더욱 집중하고 스스로를 개발하는 데에 긍정적인 계기를 자연스럽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은 <H>의 사례로, 원가족과 함께 사는 주거 공간은 <H>가 지향하던 가치관이 원가족과 갈등을 빚는 불편함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비친족가구를 형성한 이후에는, 자신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일상에서 이를 체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지하는 가구원 덕분에 <H>는 말 그대로 자아실현의 주거 공간에서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건 지향이랑 제로웨이스트**를 해요... 지금 같이 사는 제 친구는, 저랑 좀 그래도 한 3년 동안 같이 살아서 맞춰진 거긴 한데... 친구도 뭐, 집에서는... 고기나 뭐 그런 거를 거의 안 먹더라고요... (연구자: ... **두 분이 가치관을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존중해줄 수 있는 친구랑 지금 제가 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페미니즘이나, 어떤 다양한 소수자의 권리**, 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걸 존중할 수 있는. 자기가 그걸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아도... 그거를 제가 말을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래 이거 문제다, 라고 **반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랑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집에서도 수월하게 실천**을 할 수 있고 <H>

제 2 절 청년 비친족가구의 단점

1절에서는 청년들이 초기 대안 주거 방식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 외에도 비친족가구로 살아가는 방식은 경제적·물리적·관계적 차원 등에서 여

러 장점을 제공하며 주거 공간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비친족가구 생활을 만족스러워 했으나 단점을 느끼는 사례도 일부 존재했다.

1. 가구원 간 이질성 다루기

연구참여자 <G>의 경우에는, 다른 청년들이 공동 거주 가구 - 사택, 기숙사 방식에서 느꼈던 한계와 유사한 부분을 단점으로 느끼고 있었다. 가구원 간의 친밀성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비친족가구를 형성했으나,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서로 간의 이질성, 특히 생활방식에서 다른 부분들이 자주 부딪힌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통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약속을 해왔지만,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누적되면서 다른 가구원이 자신의 사생활과 안락한 주거 생활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워낙 어릴 때부터 성격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라. 아무리 각방이 있다지만, 누가 **갑자기 친구 데려오거나 그러면. 뭐, 옆에서 막 기타 치거나 이러면...** ㅇㅇ, ㅇㅇ가 성격이 엄청 유들유들하거든? 오히려 그래 가지구 **얘기한 걸 기억을 못 하나봐...** 어 약간 3개월에 한 번씩 내가 ㅇㅇ한테 하는 말이, “ㅇㅇ야, 12시 넘어서 기타칠 땐 창문을 닫고 치렴.” 얼마 전에 이걸 톡으로 보냈어. “아 맞다, 미안” 이러면서, **계속 반복이야** 이게... 아 이 통로가 연결돼있어서. 나 다음날 출근해야되는 데... 막 갑자기 블루스 같은 거 쳐대면 미치는 거... 아. 얼마 전에 일화가 있었어서... 나 지금 사는 방 옆에 베란다가 창문이 엄청 크거든? ... 근데 애가 문 두들기면 되는데, 굳이 베란다 통해서 이렇게 와가지구, 갑자기 창문을 훑 하고 여는 거야. 야. 뭐 할래?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개감늘 해가지고, 우씨. 그러지 말라구. (연구자: ... 그런 **프라이버시, 내 공간**이 되게 중요한 건가?) 어어.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엄청 그러네. **되게 중요**하네. <G>

반대로 다른 가구원이 자신에 비해 주거 공간에 대한 기준이 높은 경우에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며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 <F>는 자신보다 높은 기준을 가진 가구원과 함께 사는 것이 곧 단점이자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청결하고 부지런한 가구원 덕분에 자기 자신도 더욱 가사노동을 자주 하게 되면서 집이 쾌적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그만큼 상대의 수준에 맞춰 가사노동에 시간에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신과 생활방식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구원과 함께 사는 것이 주거 공간 내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데에서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나보다 훨씬 깨끗하고 청소도 진짜 열심히 하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막 청소 요일을 정했어... 초반에 ... 걸레질 매일 한 거야...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 나는... 는 원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가지고 이제 ○○한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꿨어... 그때도 별 트러블 없이 합의가 잘 돼서 그렇게 봤고... 설거지 같은 경우에 바로 가기 귀찮을 때 있잖아... 근데 이제 당연히 같이 사는 집이니까... 남이 남겨놓은 설거지를 보는 게 싫잖아... 언니 설거지 안 했어. 이러면은... 귀찮아하면서 막 가서 막 하고 그니까 아무래도 혼자 살 때보다는 좀 그 사람의 생활패턴이랑 나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단점에서 장점인 것 같아... 뭔가 정말 편한, 편함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비슷한 사람이 더 편할 것 같아. <F>

2. 내 소유가 아닌 임시적 공간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대안적 주거 실천으로써 청년 비친족가구를 형성하여 기존의 주거 방식에 비해 주거 공간 내에서 자신의 의향대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났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거 공간을 임차 형태로 타인과 함께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례 또한 존재했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E>는 비친족가구로서 다른 가구원의 취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각 가구원의 신상이 향후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가 아닌 전세 형태로 주택을 점유하기 때문에 항상 ‘이사’를 가야 한다는 불안정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E>는 기존의 공동 거주 가구로서 사택에서 지내던 방식에 비해 주거 불안이 완화된 현재를 누리고 있었으나, 현재의 주거는 또한 여전히 ‘미래’의 주거와 연장선상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주거가 가진 불안정성은 다시 장래를 계획하는 청년들에게 주거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E>는 이로 인해 취미 생활을 영위하거나, 원하는 취향대로 집을 꾸미는데에서 오는 재미를 느끼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 저는 약간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프라모델 만들기라든지...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만들어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뭐 공간을 만들어서 둘 순 있는데, 이게 하면은, **또 이사를 언젠가 가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있으니까. **항상 약간 짐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연구자: 그럼 그런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또 이사 가지 않고 내가 진짜 놀러왔을, 당분간 놀러왔을 집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좀, 그런 취미도 가능하겠어요.) 그, 그런 게 이제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전세로 살다 보니까 그리고 둘이 같이 있으니까 뭔가 가구는 것도 그냥 딱히 뭐, 별로 좋은 거 안 사게 되고,** 이제 간단하게 옷을

걸어놓을 수 있는 거나 사고. 그럴, 게 되는 건 좀 아쉽기는 하더라도요.
집을 꾸미는 재미? 이런 걸 느끼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E>

<I> 또한 가구원 간의 의사를 존중하는 만큼 공유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사 합의하고 절충하는 과정을 단점으로 여기고 있었다. 결국 ‘임차 형태’는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을 자신의 것이 아닌 ‘임시적 공간’으로서 느끼게 함으로써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며, 비친족가구라는 대안적 주거 실천은 타인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만큼 거주하는 주택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재영토화하고 완전한 주체성을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낸다.

오롯이 내 맘대로만 할 수 없고, 상대방과 합의하고 절충점을 찾고 그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게 단점입니다. 공용공간에 놓이는 가구, 식기, 생활용품 등을 꾸리는 데도 제한점이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I>

제 3 절 학생 신분 여부 및 결혼에 대한 태도

청년 비친족가구라는 대안적 주거 실천을 유지하는 기간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이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적확하게 구성하는데 필요한 바탕이 된다. 이에 앞서 청년 비친족가구로서 느끼는 장단점을 비친족가구 유지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살펴보았으나, 사실상 이보다 비친족가구 유지 기간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청년들의 직업과 결혼에 대한 태도였다. 직업과 결혼에 대한 태도는 청년들의 개인 신상의 변동을 좌우하며, 다시 개인 신상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여 그에 맞는 주택 유형으로 이사를 가거나, 거주지 자체를 옮겨야 하는 등 주거

차원에서의 변동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들 요인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이 영위하는 혹은 직전에 영위했던 청년 비친족가구의 기간을 나타내면 [표 5-1]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이 청년 비친족가구를 유지한 기간은 최단 약 5개월(종료), 최장 5년 이상(지속)으로 약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표 5-1] 연구참여자별 청년 비친족가구 유지 기간 및 관련 특성

연구 참여자	성별 / 나이(만)	직업 / 월소득 (단위: 세후 만 원)	결혼 태도	유지 기간 / 종료 여부
B	여성 / 26세	대학원생 / 무응답	결혼 지향형	약 5개월 (종료)
D	여성 / 28세	대학원생 / 40-250	중도형	약 1년 (지속)
F	여성 / 29세	대학원생 / 약 100	중도형	약 5개월 (종료)
A	남성 / 27세	회사원 / 520	결혼 지향형	약 1년 (지속)
C	남성 / 26세	회사원 / 240	중도형	약 1년 (지속)
E	남성 / 28세	회사원 / 520	중도형	약 1년 (지속)
G	남성 / 32세	프리랜서 / 무응답	비혼 지향형	약 5년 (지속)
H	여성 / 26세	공무직 종사자 / 200-250	비혼 지향형	약 2년 (종료)
I	여성 / 30세	서비스직 종사자 / 200-250	비혼 지향형	약 2년 (지속)

1. 학생 신분 여부가 비친족가구 유지 기간에 미치는 영향

연구참여자를 학생과 근로자로 구분하여 비친족가구 기간을 살펴보면 학생은 평균 약 7개월, 근로자는 평균 약 2년으로 근로자가 학생에 비해 약 3배 이상 비친족가구를 더 길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2] 참고).

[표 5-2] 학생 신분 여부별 청년 비친족가구 유지 기간 및 관련 특성

직업	연구 참여자	성별 / 나이(만)	결혼 태도	유지 기간 / 종료 여부	평균 유지기간
대학원생	B	여성 / 26세	결혼 지향형	약 5개월 (종료)	약 7개월
	D	여성 / 28세	중도형	약 1년 (지속)	
	F	여성 / 29세	중도형	약 5개월 (종료)	
근로자	A	남성 / 27세	결혼 지향형	약 1년 (지속)	약 2년
	C	남성 / 26세	중도형	약 1년 (지속)	
	E	남성 / 28세	중도형	약 1년 (지속)	
	G	남성 / 32세	비혼 지향형	약 5년 (지속)	
	H	여성 / 26세	비혼 지향형	약 2년 (종료)	
	I	여성 / 30세	비혼 지향형	약 2년 (지속)	

이에 학생 연구참여자가 놓인 맥락을 살펴보면 이들이 단기적, 임시적 주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드러난다. 동일한 학교 내에서 상위 학위과정으로 진학할 생각이 없는 경우, 청년 비친족가구를 형성할 시 이미 단기간만 가구를 형성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는 졸업까지 약 1여년 남짓의 시간이 남아있었고, 향후 유학을 목표로 한 상태였기 때문에

갈등을 빚던 룸메이트를 피해 단기간 비친족가구를 영위한 뒤, 다시 주거비가 저렴하고 학교가 가까운 기숙사에 돌아갈 용의가 강했다. 연구참여자 와 함께 살았던 <F>는 당시 학업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었으나, 거주하던 집에서 통학 거리가 과도하게 멀어 학업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였고,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기 위해서도 집보다는 학교 인근에서 거주하는 것이 유리했다. 따라서 <F> 또한 연구참여자 와 마찬가지로 학교와 근접한 단기 거주지가 급히 필요하였다. 학생 그리고 취업 준비생에게 학교와의 거리가 가깝거나 취업을 위해 단기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상황은 박미선 외 (2017)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단 6개월, 은 확정이었지... 계약은 1년으로 했었어... (... 6개월이라고 정하게 된 거는, 어떤 기준에서였어?) 학기. (아. 일단 학기 한번 지내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응... 나는 애초에 기숙사에 살다가, 룸메 때문에 나온 거였기 때문에, **한 학기가 끝나면 다시 들어갈 의지**가 있었지.

초반에 생각했던 기간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게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미래가, 물론 모든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특히 **학생**의 신분은. 졸업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확실성**이 더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임시적인 주거 형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어. <F>

두 연구참여자 모두 6개월~1년 내 개인 신상에 취직과 유학 등과 같은 큰 변화를 희망하나, 이 또한 모두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주거가 특히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학기, 졸업 등 학교의 행사 주기에 맞춰 비친족가구 유지 기간을 서로 의논하여 미래를 기획했다. 한편,

이들과 같은 학생 연구참여자들은 근로자인 청년에 비해 경제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동성이 떨어져 주거지 선택 시 더욱 제약이 생기고, 따라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

반면 졸업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졸업 이후에도 해당 주거지에서 머무르며 취업 후 출근이 가능하리라는 예상을 하는 학생의 경우 동일한 동거인과 비친족가구를 유지할 의사가 강했다. 따라서 가구 형성 초기에 비친족가구 유지 기간 논의도 명확히 거치진 않았고, 단기 거주를 선호하기 보다는 주택의 임차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미래를 다시 논의하거나, 갑작스럽게 개인 신상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면 그때 기간을 조정하기로 약속하는 식이었다. 즉, 미래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수록 청년 비친족가구가 즉각적인 주거 안전망으로 작용하는 한편, 그 유지 기간이 짧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일단 첫 번째로 처음에 같이 살기로 했을 때에는 **언제까지 같이 살지라기보다는**, 어 이제 같이 사는 언니가 **유학** 생각이 있으니까, 유학가기 전 까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직장에서 유학을 준비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때까지가 기한이었던 거고, 아니면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을 하게 되면, 쪽 같이 살고, 이직을 하지 않고 뭔가, 이제 거기 사이, 에 공백이 있으면은 이제, 그때 이제 다른 집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1년은, 같이 살아보자**, 라고 했고, 1년을 다, 1년을 계약을 했을 때에도 사실 2년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2년차에 들어가는 상태인데, 사실은 저희는... 다른 데로 이사가는 얘기를 계속 같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어, 제가 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서, 잠깐 동안 공백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어떻게 할지는 얘기를 해보긴 해야겠지만, 저희끼리 그냥, 이야기해봤을 때 흐름

으로는, 그냥 갔다 와서도, **뭔가 사정이 맞으면 같이 사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D>

근로자인 청년들도 학업이 장기화되는 학생과 유사하게, 향후 개인 신상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당장 가시화된 미래 계획은 없는 만큼 가구 형성 시 비친족가구 유지 기간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 편이었다. 대부분은 <D>, <E>와 같이 향후 결혼이나 이직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임차 계약 기간이 완료되어 간다면 이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대부분 택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와서 살자 이런 얘기 나와서 살기 시작한 건데... 아마도 암묵적으로는, 계약 기간이 2년이니까, 적어도 2년 동안은 돈을 못 뺏다. 둘이 돈을 모았으니까, 이제 누구 하나는 돈을 못 뺏다. 2년은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E>

2. 결혼에 대한 태도가 비친족가구 유지 기간에 미치는 영향

한편, 연구참여자를 결혼 의향에 따라 결혼 지향형/중도형/비혼 지향형으로 구분하여 비친족가구 기간을 살펴보면 결혼 지향형은 평균 약 7개월, 중도형은 약 10개월, 비혼 지향형은 평균 약 3년으로 비혼을 지향할수록 비친족가구 유지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표 5-3] 참고). 아울러 '결혼은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혹은 '잘 모르겠다'와 같은 중도형이 총 4명, '하고 싶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하는 결혼 지향형은 2명,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안 할 것 같다'의 비혼 지향형 3명으로 나타나, 결혼을 규범보다는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3] 결혼에 대한 태도별 청년 비친족가구 유지 기간 및 관련 특성

결혼 태도	연구 참여자	성별 / 나이(만)	직업	유지 기간 / 종료 여부	평균 유지기간
결혼 지향형	A	남성 / 27세	근로자	약 1년 (지속)	약 7개월
	B	여성 / 26세	대학원생	약 5개월 (종료)	
중도형	C	남성 / 26세	근로자	약 1년 (지속)	약 10개월
	D	여성 / 28세	대학원생	약 1년 (지속)	
	E	남성 / 28세	근로자	약 1년 (지속)	
	F	여성 / 29세	대학원생	약 5개월 (종료)	
비혼 지향형	G	남성 / 32세	근로자	약 5년 (지속)	약 3년
	H	여성 / 26세	근로자	약 2년 (종료)	
	I	여성 / 30세	근로자	약 2년 (지속)	

이때 근로자인 연구참여자들은 졸업이 곧 가시화되는 학생과 달리, 개인 신상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변동성의 주기가 길고, 자신이 가진 자산이나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주거 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늘어난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근시일 내 확고한 이동이 예상되지 않은 한, 가구 형성 초기에 가구 유지 기간을 논의하기보다 보통 동거인과 임대차 계약 기간에 맞춰 향후의 거처를 논의했으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시점 즈음 다시 적절한 주택을 찾고 이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비친족가구를 유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이 비친족가구를 유지하는 기간과 가족 및 결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박미선 외(2017)에서 청년들 각자의 사회적 조건에 따라 결혼에 대한 태도가 상이하며, 주택 문제 해결만으로는 청년들의 결혼 촉진이 어렵다고 밝혀진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1) 결혼 지향형

결혼 지향형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결혼에 대한 태도를 가진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친족가구 기간이 짧게 나타남과 동시에 전통적인 가족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특히 연구참여자 <A>의 경우, 정상가족과는 거리가 먼 비친족가구를 형성하는 것을 선호하여 여러 번의 비친족가구 형성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자칫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는 <A>의 행보는 그러나, 정상가족을 효율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A>는 비친족가구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이점 중, 주거비와 생활비에서 절약하여 모은 돈을 ‘연애’와 ‘결혼’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었다. 근대에 이르러 연애를 통해 남녀의 친밀성을 형성하고, 이후 결혼으로 넘어가는 수순이 정상가족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겨졌으나, 경제적 불안정성이 강화되자 청년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 중 하나가 ‘연애’가 되었다. N포세대로까지 청년들이 불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을 지향하는 <A>에게 이성애적 친밀성이 확보되어가는 현재의 연인과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비는 매우 중요해진다. 여기서 비친족가구는 정상가족을 형성하기 전까지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거의 질을 보장해주는 한편, 경제적 이득을 통해 연애와 결혼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된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친구 사는 곳이 좀 멀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곳에서, 혼자 살더라도, 혼자 살더라도 여자친구와 뭔가 제가 있는 공간에 눌러온 다거나 하는 일들이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가지구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히려 지금, 뭐, 직장 동료와 함께 살면서, 뭐 이런 주거비, **생활비를 아끼고**, 오히려 이렇게 아끼는 돈 절약한 돈을 가지고서 조금 더 친구를 만날 때 뭐, **데이트**를 한다면가 이럴 때, 훨씬 더, 좀 더 **풍족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네.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A>

<A>는 또한 청년들의 주거비 및 생활비 절약이 청년 자신의 여가나 기타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비용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혹은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친족가구가 지닌 경제적 이점이 청년들의 혼인율을 높이는 데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경제적 불안정성과 결혼에 대한 지향성이 교차되는 청년에게 비정상적인 비친족가구는 가장 정상적인 가족으로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일종의 '지름길'일 수 있는 것이다.

혼인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결혼 이후의 충분한 주거 공간과, 생활 여건이 보장되는 미래를 그리기 힘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들이 함께 사는 방식은 월 지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고정 지출인 주거 및 생활비를 확실하게 절감할 수 있는 주거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절감한 주거 및 생활비를 이용해서, 자기 계발이나 취미 활동 등 선택적인 지출을 늘리면서 만족도를 얻을**

수도 있고, 연애에 추가적으로 지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삶의 만족도가 낮으면, 타인과 함께하는 연애나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에, 어느 방향의 추가적인 지출이건 본인 삶의 만족도가 증대된다면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지출을 늘리지 않는 경우라도,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A>

그렇다면 결혼 지향형인 <A>와 에게 비친족가구의 다른 가구원은 어떠한 의미일까. 이들은 결혼을 지향할 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연구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적 가치관에 가까운 가족관을 가지고 있었다. 두 연구참여자들은 아무리 비친족가구원과 함께 살면서 서로 간의 친밀성을 느끼더라도, 혈연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가족’과 ‘친구’는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결혼 지향형의 연구참여자들에게 비친족가구의 가구원은 가족이 아니라, 자신과 상황과 니즈가 부합하면서, “밥도 먹고, 술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친구로 의미화된다. 즉, 자신의 경제 및 관계적 이점을 공유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일단 가족이라는 형태는, 네, 그냥 그런 혈연으로 있다는 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부모님, 그리고 동생, 형제, 뭐 요렇게? 그리고 나중에 뭐 제가 결혼하게 된다면 배우자... 정말 친한 친구들이 많지만, 그래도 저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가족에다가 이제 저는 카테고리는 넣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같이 룸메이트를 할 경우에는, 어, 저는 이 경우에는 보통 점차 친해 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당시에 봤을 때, 저랑 상황이나 어떤 니즈가 맞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성향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하면은, 뭐 나머지는 차차 맞춰가게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당연히 뭐 다른 사람과 산다는 것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맞춰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같이 살기 때문에 얻는 장점들이 훨씬 더 이득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는 룸메, 지금도 그냥 계속 저녁에 같이 있으면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동기들하고 해서 친한 친구 정도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A>

와는 다소 결이 다른 가족관을 지닌 <A>는, 반드시 정상가족만이 가족의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았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경험과 같이 언제든 바뀔 수도 있는 가변적인 요소인 만큼, 친구와 비친족가구를 형성하더라도 결혼을 기반으로 가족에 비해 울타리처럼 확고한 ‘안정감’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았고, 따라서 스스로도 결혼을 통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가족을 형성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연구자: 가족이라는 울타리라고 표현을 해줬던 것 같은데...) 응. 나는 이게 뭐 전형적인 4인 가구...가 아니고,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걸, .. 막 방황하고 있다가 돌아와도, 늘 언제나 반겨주는 사람이잖아.. 응. **그런 개념에서의 울타리. 아가페** 같은... 내가 이게 가족이랑 친구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친구는 가족이 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친구도 언젠가는 본인의 가족을 꾸릴 수가 있고, 본인의 삶이 있잖아. 그니까 나는 선뜻 내 모든 걸 다 털어놓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런 면에서 좀 나는... 친구랑 같이 사는 거랑,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랑,... 다를 것 같애... 그 친구가 비혼이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내가 그랬듯이, **비혼이라고 외치는 사람도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연애는 하잖아. 애인을 사귀니까... 내가 언제 애인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같이 사는 친구, 도... 정말 운명의 짝을 만나서 한순간에 갑자기 결혼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이때 가 결혼 지향형이기에 앞서 학생으로서의 비친족가구 유지 기간

에 제약을 더 받고 있는 데에 반해, 미래가 상대적으로 안정화 된 <A>의 경우에는 가구원과의 거주 기간을 명확히 정하진 않았다. 그러나 결혼이 구체화될 때 즈음 비친족가구를 해체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당분간 거처나 가구 변동에 대한 계획이 없는 만큼 결혼 지향형이자 근로자인 청년 또한 비친족가구 기간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취의 종료까지는 뭐 **따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해서 뭐, 한 명이 이직을 해도 아마 이 근처로 이직한다면 어차피 같이 살 것 같고. 어 너무 멀리 이직할 경우에는 이제 뭐 나가겠조 뭐... (연구자: ... 결혼을, 갑자기 생각하시면.) 아, 아 네 네... 그쵸그쵸. 그래서 한 명이, **결혼, 하거나 뭔가 현재와 상태가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어, 저도 다른 곳을 알아보거나, 네, 혹은 룸메가 나가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A>

2) 중도형

한편 중도형인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에 대한 명확한 선호가 있기보다는 ‘불확실’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결혼 지향형인 청년들에 비해 보다 친밀성을 가족의 기준으로 상정하여 비친족가구를 가족에 가까운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들에게 결혼은 더 이상 연령에 따른 생애 규범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경제적 상황’ 혹은 ‘결혼을 하고싶고 할 수 있는 상대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가는 추세는 만큼, 비친족가구로서 중도형 청년들의 삶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연구참여자 <D>는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여성 청년으로, 현재 연애를 하는 상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전문적인 직업과 경제적 능력과 같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조건’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결혼을 미루고

현재의 만족스러운 비친족가구 생활을 지속할 의향이 강했다. 따라서 비친족 가구를 형성할 때부터 유지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기보다는, 미래이불확실성 앞에서 각 가구원의 개인 신상에 변화가 생기거나 임차 계약 기간에 따라 기간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비친족가구로서 현재 사는 가구원과 상당 기간 친밀한 교류를 이어온 만큼 서로를 가족과 가까운 형태로 여기며, 비친족가구로서 머무르는 주거 공간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만큼 가구원과 함께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단은 저는 남자친구랑 지금 만난 지... 아 10년째구요. 그런데... 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제가 **스스로, 금전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일단은, 전문적인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제 인생에서는 제가 제일 중요해서,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요... 가족하고, 친구가 있다면, 이 사이에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친구라고 보기엔 좀 더 가족에 가깝죠. 왜냐하면 지금 같이 살고 있으니까? ... 근데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는 **그만큼 교류가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집이... 나 자신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좀 편안한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둘 다, 이 집을 집으로 인지하고 있어서.** <D>

반대로 <세원>은 남성이자 근로자지만, 중도형으로서 가족이란 ‘친밀성’에 기반을 둔 개념이며, 이로부터 ‘가족’다운 가족과 ‘집’다운 집에서는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고 언급하며 <D>와 유사한 가족관을 보였다. 흥미로운 지점은, <E>는 1인가구로서의 거주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재충전의 공간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홀로 있기보다는, 친밀성을 느낄 수 있는 이들과 함께 거주하며 적절한 ‘긴장감’ 또한 동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자신의 미래가 불명확한 이상 유지 기간을

설정하기보다, 임차 계약 기간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었다.

가족인 거랑 가족이 아닌 거는, 그건 이제 **얼마나 편안하나 차이가 될 것** 같아요... 같이 살더라도 지금은, 이제 뭐 그러니까 남이잖아요... 지켜야 될 것은 확실히 있고.... 그래도 나를 좀 더 보여줘도 된다, 라는 그런 느낌. **친밀감?** (연구자: 만약에... 독립을 해서 어떤 분과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원가족보다) 훨씬 더 친밀해져 있다면, 그러면 또 가족의 의미에 안 맞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또 진짜 그렇게 되면은 **더 오래 산 사람이 더 가족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도 그렇게 오래 살았다면, **뭔가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살 수 있었던 거고... 일단 집은 좀 **재충전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니까 뭔가, 어디 가서 보금자리? 어디 가서 뭐 가만히 쉬더라도 이제 집만큼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없지 않나...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이제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긴장이 어느 정도는 있고... (연구자: 혼자 있어도 너무 축 처질 수 있고... 믿을 수 있거나 잘 맞는 분들하고 있어야, 정말로, 재충전.) 그쵸. 편하면서도, **어느 정도 긴장은 유지할 수 있고**.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긴장이 축 처져도 좀 약간, 그, 뭐, 무기력해진다 이런 게 있잖아요. <E>

한편, 취업 후 다시 원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태영>의 경우는 비친족 가구로서의 생활에서 남과 다른 점을 맞춰가야 한다는 점에서 피로감을 느꼈다. 이보다는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혼자 있는 공간’을 향후 마련하는 것을 주거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었으며, 결혼은 함께 살 때 더 좋다고 느끼게 될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선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결혼은 그게 재산이 됐든 내 정서가 됐든, 같이 살 때 더 좋은 사람이어야지. 같이 살아서 더 싫은 사람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다. (연구자: ... 또 친구랑 또 이렇게 살게 되는 형식을 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혹시 앞으로?) 근데 솔직히 나는... 일단은 둘이 같이 살면은 그게 좋든 싫든.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자취를 하고 싶은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거의 평생을 그냥 가족들이랑 산 거나... 이제는 경제적인 조건이 되니까 자취를 한다면 뭔가 **혼자 있는 공간을 갖추고 싶어서**, 둘이 자취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벗어나고 싶은 거지.** <F>

이와 같이 중도형인 청년들에게 비친족가구는 ‘친밀감’을 기준으로 가족과 친구 사이에 놓인 존재들로 위치 지어지며, 이들과 함께 사는 주거 공간은 편안한 ‘집’으로서 기능한다. 이와 더불어 중도형 청년들은 결혼이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결혼 이전에 자신의 능력을 갖추거나, 결혼으로 인해 자신이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아울러 비친족가구 유지 기간에 각 다양한 주거 방식에 대한 개인의 과거 경험과, 개인의 성향 등이 추가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도형 청년이 놓인 다양한 상황이 중첩된 결과로서 향후 가구 변동과 유지 기간이 다변화될 임을 시사한다.

3) 비혼 지향형

비혼 지향형의 비친족가구 유지 기간으로 유추하면, 이들의 비친족가구 유지 기간은 다른 유형에 비해 장기화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비친족가구의 평균 유지 기간 또한 다른 유형이 약 1년 미만인 데에 비해, 비혼 지향형은

약 3년으로 최소 2년 이상 비친족가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혼 지향형인 청년들은 원가족과 가치관 차이로 인해 함께 사는 데에 거부감이 있거나 갈등을 빚은 경험이 있었고, 따라서 원가족에게서 사회적 지지 등의 기능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청년들의 비혼 의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이들이 향후 취하게 될 주거 방식 중 원가족-투룸 이상의 주택 방식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상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혼 지향형 청년들의 비친족가구원에 대한 인식과 가족에 대한 개념은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H>는 일종의 시도로서 친구와 비친족가구를 형성하였고, 실제 거주 후 만족감이 높아 앞으로도 개인 신상의 큰 변동이 없다면 현재의 비친족가구를 유지할 의향이 뚜렷했다. 결혼을 미래의 계획에서 배제하고 있는 만큼, 다른 유형에 비해 향후 이직, 근무지 변경 등만을 고려하면 되는 상황이라 <H>의 비친족가구 유지 기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울러 <H>는 혈연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가족 개념으로부터 '상호적인 정서적 의지'가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가족'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따라서 <H>에게 자신의 다양한 가치관에 대해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존중해주는 가구원은 엄연한 '가족'이다. 반면 친밀성과 신뢰가 기반이 되기 이전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배려를 강요당하는 것으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가족이 '불행'한 것이라고 <H>는 강조한다.

처음 같이 살 때는 **우선의 2년 계약이니까... 2년 같이 살고...** 작년 초부터, **뭔가 전세로 같이 살아보자라는 게 말이 계속 나왔어요... 같이 사는 거 계속 나쁘지 않고...** 이 친구는 딱히 주거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니, 이제 전세대출을 받아서 둘이 이사를 하자... (연구자: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신뢰나 침해 받는 뭔가 문제만 없으면, 개인 신상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으니까.) 맞아요.... 저

는 항상, 가족은 떨어져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물론 이 가족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혈연 관계랑 법적 혼인 관계 로 이루어진 가족만 생각했을 때는, 떨어져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저는 항상 가족의 의미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법적 혼인 관계.... 그래도 가족은 이해를 해야지. 그래도 가족은 뭘 어떻게 해줘야지, 라는 고정관념과 그런 편견 때문에 더 불행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타인은 당연히 안 맞는데 이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래도 가족은 참아줘야 돼. 그래도 가족은 같이 보듬어줘야 돼.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더 불행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항상 기존 가족의 해체와 더 넓은 더 넓고 많은 가족이 탄생하길 바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우선 저는 **룸메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같이 산지도 꽤 오래됐고, 많은 걸 공유하고 있으니까...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냐 없냐. 같이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냐 없냐, 가 가족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

한편, <H>에 반해 <I>는 타인의 존재에 대해 민감하며, 자신만의 시공간이 확실하게 확보되는 것을 선호하여 1인가구로서 경험했던 고립감과 자기 자신을 포기했던 부정적 경험을 지양하기 위해서 ‘다인가구’를 형성하는 데에 주거 목적의 초점을 두고 있었다. <I>에게는 친구 또한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매우 느슨한 관계로 형성된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다만 ‘동거인’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일상이 공유된다는 점에서 ‘친구’와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즉, 전통적 가치관에 기반한 가족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혼 뿐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서 매우 느슨한 관계를 맺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I>에게 비친족가구의 가구원은 개인적인 특성이 관건이 되기보다는, 그 존재 자체로서 1인가구-원룸이라는 하위 주거 트랙으로 가지 않기 위한 전략적 관계에 놓였다는 점에서 중요해진다. 비정규직 생활이 장기화되고, 모아놓은 자산이 없어 경제적 차원에서의 한계를 느껴왔던 <I>에게는 관계적 차원보다 ‘어떤 집’에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물리적 차원이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로 다가온다.

가족은 태어날 때부터 얽혀있었던 사람들, 끊어낼 수 없는 관계의 사람들이고, 친구는 우연히 만나 서로의 노력으로 관계가 이어지는 사람들, 관계를 이어나갈 의지가 없다면 언젠가 끊어질 수 있는 관계라 생각해요. 친구와 동거인의 차이는, 일상을 얼마나 공유하는가의 차이인 것 같은데... 동거인과는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나의 일상과 상태가 공유되고... 동거인의 존재감은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집에선 미약하게 지속돼요. (연구자: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사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가족관계'가 되어 법적, 경제적 운명공동체로 함께 꾸려나가야 하다 보니 협상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실을 함께 쓰고 개인 방이 없는 건...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살 것인지 이전에 어디에, 어떤 집에 살 것인지, 그럴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많은 경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겠다고 계획을 세울 때에도 '어떤 사람'보다 **타인과 '함께' 산다에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I>

<G> 또한 혈연을 기반으로 한 가족은 절대적인 개념이나, 가구원들로부터 친밀감과 신뢰는 느끼는 만큼 '가족 같'은 이들로 여기고 있었다. <G>는 <H>와 같이 전통적 개념으로부터 친밀감을 토대로 가족 개념을 확장해나가는 인식을 보여주며, 상황에 따라 친밀감이 변하고 그에 따라 '가족 같음'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유연한 가족관을 지니고 있었다.

같이 사는 사람들, 이니까. 그니까 뭔가, 아까 말한, 나한테 중요한 물리적인 안정, 심적으로 안전한 집이라는 공간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여기에 이런 공간에 내가 들이는 사람들이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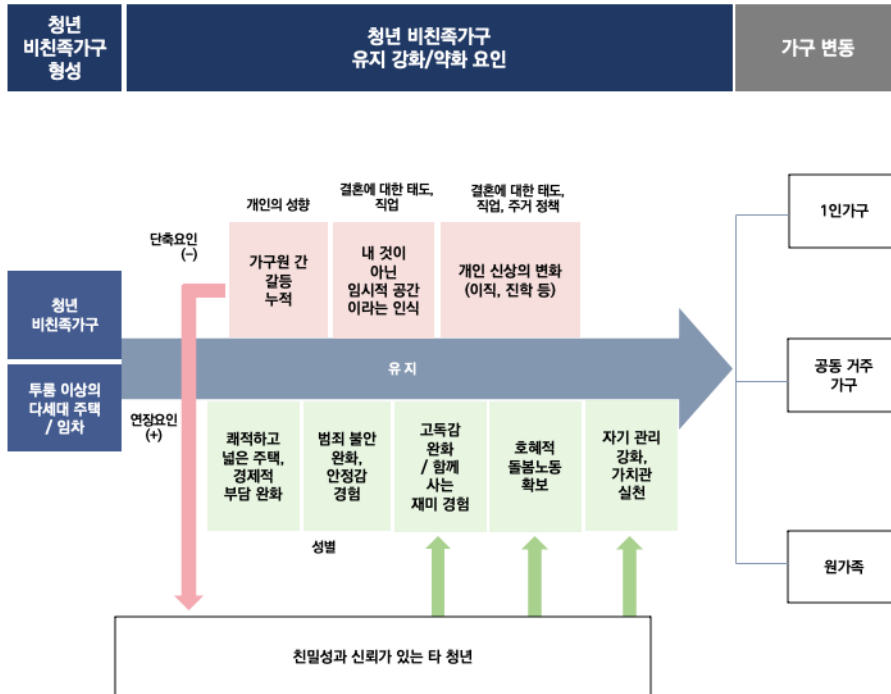
아. **제일 신뢰할 수 있고, 편하고, 좀 소통 잘 되는 사람들일 것 같애.** 아니면 그렇게 맞춰갈 수도 있고. (연구자: 아 그럼 그런 사람들을 다 가족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거야?) 지금까지진 그랬어. **지금 사는 친구들도 지금 다 가족 같애서.** (연구자: 근데 적어도 내가 같이 사는 동안 가족 같다는 걸까? 이제 헤어지게 되잖아. 그러면 또 약간 달라지나.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가족이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바뀔 수 있는 거네?) 어. 어. 그러네. 어. 마자. 그럴 수도 있어. **이제 가족인데, 약간 사촌이나 친척으로 넘어가는?** 또 언제 같이 살 수도 있고. 상황 맞으면... 그 뭔가, 주거 동거인? 주거 이런 거 관련된 가족이랑, **혈연 이런 거 관련된 가족이랑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애.** 확실히... <G>

이상을 종합하면 비혼 지향형의 청년들은 우선 공통적으로 원가족과의 가치관 차이로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의 청년들에 비해 더 강한 거부감을 보였으나, 비친족가구원을 가족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여부와이들로부터 친밀감은 개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가구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느슨한 관계’를 추구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비혼 지향형 청년들은 향후 결혼에 대한 계획이 없는 만큼 비친족가구를 유지할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한다면, 비친족가구가 원가족을 대신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 장기간 기능할 가능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겠다.

제 4 절 소결

5장에서는 청년들이 비친족가구를 형성한 이후, 어떠한 공간 경험들이 이들의 비친족가구라는 대안적 주거 실천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자신의 공간 경험을 장점 혹은 단점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비

친족가구 실천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지므로, 이들을 각각 비친족가구 유지기간의 연장요인과 단축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그림 5-1] 참고).



[그림 5-1] 청년 비친족가구의 유지 과정

가장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장점으로 강조했던 공간 경험은 대안 주거 방식의 목표로 언급됐던 것으로, ‘쾌적하고 넓은 주택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였다. 아울러 여성 청년들은 비친족가구와 함께 사는 방식을 통해 범죄 불안이 완화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친밀성과 신뢰가 이미 확보된 가구원과의 관계라는 사회적 자원은 청년들이 비친족가구로서 또 다른 긍정적인 공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청년들은 자신에게 우호적이며 서로 존중해주는 가구원 덕분에, 자연스럽게 고독감을 완화함과 동시에 함께 사는

재미를 경험하고, 호혜적 돌봄노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나아가 주거 공간 내에서 다른 가구원의 시선을 인식함으로써 자기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에서 가치관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비친족가구로서의 공간 경험을 만족스러워하며 장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답변하였으나, 일부 청년들은 가구원 간 갈등이 누적되면서 비친족가구 생활에 대한 피로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자가가 아닌 임차 형태로 거주하는 주택은 언젠가 떠나야 하는 불안정한 주거 공간으로 인식되며, 타인과 함께 살 경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잦은 타협의 과정은 주거 공간을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으로 느껴지지 못하게 한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고 있었다.

이러한 비친족가구로서의 공간 경험 외에도 비친족가구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바로 개인의 학생 신분 여부와 결혼에 대한 태도였다. 학생인 경우, 소위 사회에서 자리 잡기 전까지는 미래에 개인 신상의 변동이 크고 또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기 이전부터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대안적 주거 실천을 상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근로자인 경우에는 대안적 주거 실천의 기간을 논의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임차 계약 기간에 따라 비친족가구로서의 기간을 조율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아울러 비혼 지향형에 가까울수록 대안적 주거 실천의 기간이 길게 나타나났으나, 청년들의 가족에 대한 개념은 결혼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게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친족가구라는 대안적 주거 실천이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에 근거했다기보다 주거 공간 내에서도 느슨하면서도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 지향형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근시일 내 결혼 계획이 없는 만큼, 청년들의 비친족가구 실천 기간은 주로 개인 신상의 변화와 각 개인이 인식하는 대안적 주거 실천의 장단점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학생 신분으로 비친족가구를 유지했던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미래 개인 신상의 변동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의도했던 대로 단기간의 비친족가구 생활을 마치고 원가족 - 투룸 이상의 주택 방식, 공동 거주 가구 - 기숙사 방식으로 돌아갔다. 한편 일부 가구원이 이탈하게 된 한 연구참여자는, 남은 가구원의 경제적 조건으로는 투룸 이상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주거비 마련이 어려워져 비자발적으로 1인가구가 되는 미래를 기획하고 있었다. 해당 연구참여자는 신혼부부 외에 2인 이상의 청년에게는 주거 정책 지원이 전무하여, 비자발적으로 비친족가구일 때보다 더 좁은 주택면적과 더 많은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1인가구로 전환되어야만 하는 상황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 사례는 우리 사회의 제도가 정상가족 중심으로 재생산 되어 온 경향이 비정상가족의 ‘공간적 배제’라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또한 비정상가족이라는 대안적 주거 실천의 이중적 효과를 폭로하는 단면이다. 즉, 청년들은 주거 불안과 관계 욕구의 충족을 위해 비친족가구라는 대안적 주거 실천을 도모하게 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자산 및 소득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대안적 주거 실천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애초에 그 실천 가능성 자체가 부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비친족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주거비를 지출하고, 자산 축적과 관계 욕구 충족에서는 더욱 멀어지는 주거 방식 외에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적 배제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제 6 장 청년 비친족가구의 사회적 의미

본 연구에서는 4-5장에 걸쳐 청년들이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게 된 배경으로서 기존 주거 방식에서의 부정적인 공간 경험, 그리고 비친족가구의 유지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안적 주거 실천을 통한 공간 경험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대안적 주거 실천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과, 이에 따른 비친족가구 유지 기간들도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그림 6-1]과 같이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들 내용을 토대로 청년 비친족가구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년 비친족가구는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처한 사회적 요인들의 교차 지점으로부터 발현된 청년들의 ‘대안적 주거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청년들은 관계적 측면에서 타인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보다 자기 자신을 중요시 하고, 결속력 있는 관계보다는 느슨한 관계를 추구하는 성향이 이들이 처한 경제적 불안정성과 중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년들은 비친족가구라는 대안적 주거 실천이 자신들의 주거 및 관계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주거 방식임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있음을 형성 과정 및 유지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확인하였다. 청년들은 자신과 신뢰와 친밀성이 구축된 다른 청년과 비친족가구를 형성함으로써 기존 주거 경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경제적 불안정성 및 기타 관계 차원에서 겪는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즉, 청년 비친족가구라는 소수의 대안적 주거 실천 사례에서 드러나는 공간 경험들은 사실상 현재의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 중첩되면서 발현되는 청년들의 욕구와 실천을 징후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청년 비친족가구라는 대안적 주거 실천을 도모하는 과정은 경제적 약자일수록 주거 정책의 혜택이 필요하나 정작 이로부터 배제되어 공간적 배

제를 경험하는 역설적 과정을 드러낸다. 예컨대 청년 주거 정책이 대학생과 안정된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인 청년에 집중된 결과, 상대적으로 더욱 불안정한 저소득 상황이 지속되는 대학원생과 오랫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청년들은 정책의 기준에서 미달되거나, 복잡하고 긴 정책 지원 과정을 버티기 위한 기회비용이 커져 정책 이용을 포기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에 주거 정책 적용이 절실하나,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의 조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청년들이 대안적 주거 실천으로서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고 주거 공간에서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의미화하는 것은 청년 세대가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행복에 대한 특징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가족으로서 행복하다고 느끼기 위해 어떠한 요인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분석한 박민자(2006)의 연구 결과와 비교¹²⁾하면 보다 파악이 용이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30대의 청년들은 50-60대에 비해 행복한 가족의 요소로서 정서적 요인과 평등에 기반한 가치를 중요시하는 반면, 50-60대가 청년에 비해 더 중요시 여기는 요소는 '자녀가 있는 가족', 즉 정상가족을 형성하는 것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 차원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킴으로써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공간 경험으로 주체성 및 사생활이 담보되는 공간과 가구원 간 수평적 관계 확보, 함께 사는 재미 경험, 호혜적 돌봄 노동 확보, 개인의 가치관 실천 등이 도출되었으며, 박민자(200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청년들이 친밀성을 중심으로 평등한 가구원 간의 관계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청년들이 주거 방식

12) 박민자(2006)의 연구 결과, 청년들은 즐겁게 살며 편안한 느낌이 들고, 친밀성이 높으며, 정서적 위안을 행복한 가족을 경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해와 인정, 존중과 평등, 충분한 대화 및 가사노동의 분담, 서로 간의 신뢰, 관심, 자율성 등 또한 가족 간의 행복을 느끼는 데에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50-60대는 20-30대에 비해 '자녀가 있는 가족'만이 더 중요한 요소로 본다는 점에서 정상가족 담론 중심의 가족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내에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등하고 정서적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가구원과의 관계, 즉 관계적 차원이 물리적, 경제적 차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규범적 시공간성이 재생산하는 정상가족 규범을 넘어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거 차원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가장 작은 사회의 단위인 주거 공간에서부터 삶의 질을 구축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연구참여자 <C>가 언급했던 기숙사의 주거 규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가 거주했던 기숙사에서는 대학생들이 원하지 않는/잘 맞지 않는 가구원과 강제적으로 동일한 주거 공간에 배치되면서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임시적으로나마 원하는 사람과 자발적으로 수용 인원을 맞추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숙사 규범이 구현됐던 사례¹³⁾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만 아니라, 청년 주택에서도 청년들이 친밀감과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모르는 사람'과 동일한 주거 공간을 사용한다는 데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사례¹⁴⁾가 나타나고 있다. 공동 거주 방식으로 운영하는 청년 주택의 경우, 비친족 관계의 청년들 또한 함께 가구를 형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옵션을 마련한다면, 관계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공간 경험을 보다 감소시키고 청년들의 관계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 경험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13) "한참 기숙사 그 난리가 나고 있을 때 생활습관 같은 거 설문을 해가지고 이거 맞는 사람들끼리라도 매칭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저희 기숙사에서도 그렇게 한번 구현이 됐던 적이 있어요. 두 명씩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아예 6명 패키지로 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기는 했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불만 사항들에서 기록된 해결책인 거죠. <C>"

14) 고성민(2021.5.7.), "셰어하우스, 꼭 모르는 사람과 살아야 하나요?"... 용산 청년 주택 미달 쇼크,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5/07/VVBKPN24IRALXHBPEHTD4TRBH4/; 이소은(2020.4.11.), "모르는 사람이란 동거하긴 좀..." 외면받은 청년주택,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0615410839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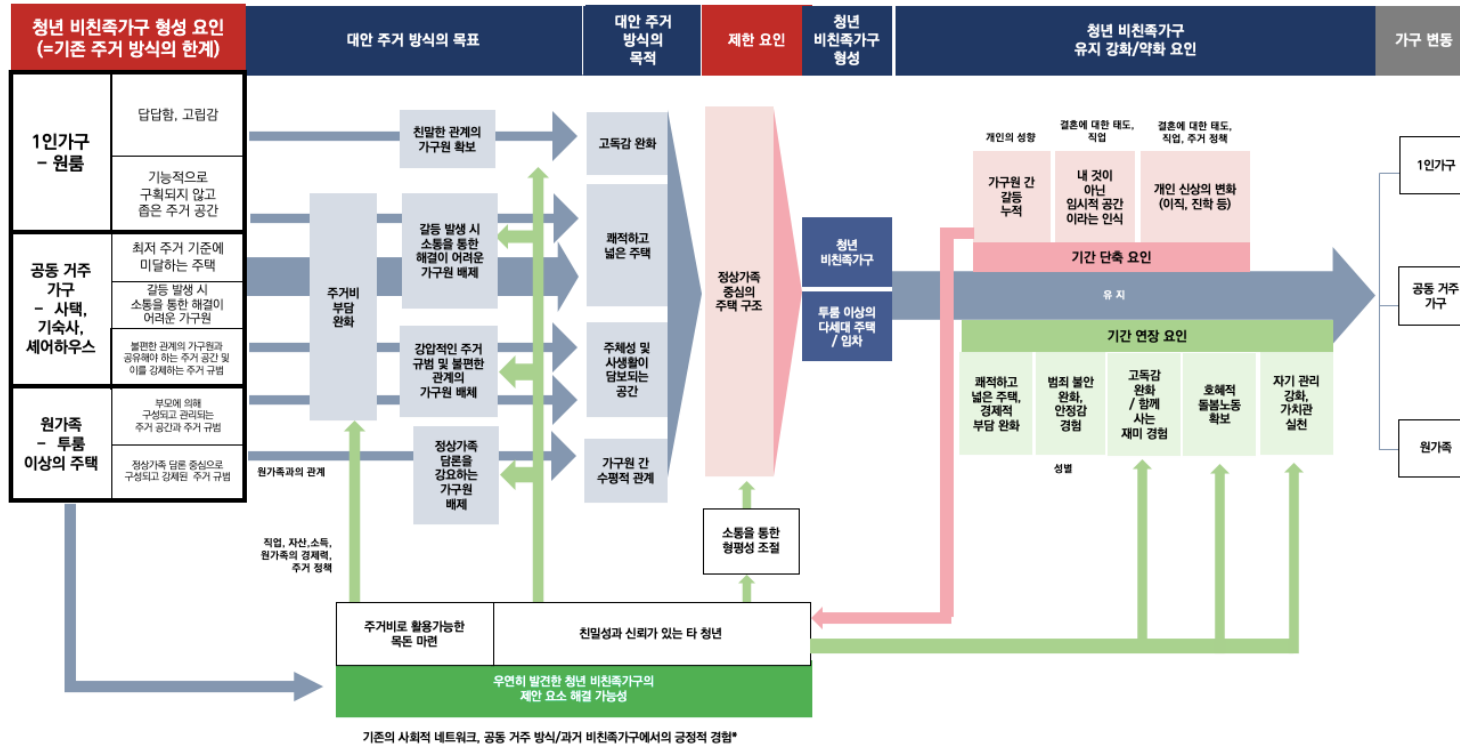
넷째, 청년 비친족가구라는 대안적 주거 실천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과정은 규범적 시공간성에 의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청년들이 배제되거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경험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먼저 원가족과 함께 사는 방식에서 자발적으로 탈피하고자 했던 청년들의 경우, 부모가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과 가족 및 결혼관을 강제함에 따라 가족이 편안한 정서적 지지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후 비친족가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정상가족을 위한 2인 부부 중심의 주택들 속에서 적절히 평등하고 비성애적인 관계로 거주하기 위해 지난한 타협 과정을 거쳐야 했다. 즉, 청년들을 정상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트랙으로 다시 포섭하려는 사회의 규범적 시공간성은 관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배제하게 된다.

규범적 시공간성의 영향은 비친족가구의 해체에도 일부 기여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연구참여자 <G>의 경우, 3명으로 구성된 비친족가구의 가구원 중, 대부분의 주거비를 지원했던 한 가구원이 독립을 희망하게 되면서 남은 2명이 비친족가구 생활을 이어가고자 다양한 전략을 새롭게 모색했다. 그러나 자산과 소득이 부족한 남은 2명의 비친족가구 가구원은,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집중된 정상가족 지원 위주의 청년 주거 정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규범적 시공간성에 기반하여 수립된 주거 정책은, 이 둘이 비친족가구로서 얻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친족가구를 해체하여 각자 더 많은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을 감내하는 1인가구라는 하나의 주거 선택지로 수렴되도록 강제한다.

○○가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 자기 작업실이랑 집을 좀 같이 하고 싶구... 어쨌든 그래 가지구, 아 그래 니 말 맞다. 우리, 우리 너무 안 일하게 산다... 맞네, 나갈게... (연구자: 따로 □□ 씨랑 살 생각은 안 해

봤어?) 아, 해봤었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음, **지금 받을 수 있는 대출
가지고 지금 둘이 사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서.** (연구자: 오히려?) 그니까
둘 다 받을 수 있는데, 둘 다 1억씩 받으면 되거든? 근데 **만약 같이 산
다고 그러면, 둘이 합쳐 1억 밖에 못 받아.... 그게 동거인이랑 같이 하면
뭐, 그런 게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G>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놓인 각양각색의 상황은 비친족가구를 영위하는 청년들 내부에서도 이질성을 발생시켜 서로 다른 공간 경험을 유발한다. 고소득 청년은 저소득 청년에 비해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도 경제적 차원에서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쉽게 대출을 이용하는 등 보다 질 좋은 주택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즉, 규범적 시공간성에 의해 마련된 사회적 제도가 비정상가족의 공간적 배제 효과를 낳지만, 소득이라는 변수가 이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었다. 한편 결혼지향형인 청년의 경우에는 비정상가족인 비친족가구로서의 대안적 주거 실천을 통해, 1인가구일 때보다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결혼을 위한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며 이분법적인 정상가족 담론에 역으로 균열을 내고 있었다. 반면 비혼 지향형인 청년들은 비친족가구로서의 공간 경험이 만족스럽고, 향후의 삶의 기획에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정상가족을 위한 주거 공간에서 비정상가족을 위한 재영토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며 다른 방향에서 정상가족 담론에 균열을 내는 삶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청년들의 욕구와 경제적인 여건, 사회의 시선 등은 서로 경합하며 주거 차원에서 청년들의 이질성을 발생시키며, 따라서 청년들을 일원적인 존재로 상정하기보다는 세밀한 분석을 통해 청년들의 하위 집단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림 6-1] 청년 비친족가구의 형성 과정 및 유지 과정

제 7 장 결론

전세계적으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청년 주거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청년들을 중심으로 보다 느슨한 친밀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혼주의의 확산 및 저출산 경향의 심화와 같이 정상가족에 대한 담론에 균열 또한 감지되는 추세다. 이와 같이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전통적인 가족관에 대한 변화가 교차하는 가운데, 청년들의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

그동안 4인가족에게 정상성을 부여하면서 재생산 되어 온 시공간과 이를 뒷받침하는 담론 체계 전반을 가리키는 규범적 시공간성은, 도시에서 비정상 가족에 대한 배제를 정당화하며 공간적 포용성을 충족하는 데에 한계로 작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친족가구의 비율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여성가족부 또한 전통적인 협의의 가족 개념을 법적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 가운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비친족가구를 형성하는 사례에 주목하여, 기존 주거 방식에서의 어떠한 경험이 이들로 하여금 대안적 주거 실천으로서 청년 비친족가구를 형성하도록 하며, 청년 비친족가구로서 어떠한 공간 경험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청년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고 체험하는 공간 경험이 현 시점에서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며, 주거 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들은 기존 주거 방식에서의 공간 경험 가운데 다양한 한계를 느끼고 대안적 주거 실천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1인가구-원룸 방식으로 살아가던 청년들은 기능적으로 구획되지 않고 좁은 주거 공간 내에서 답

담합과 고립감을 호소하였고, 이에 고독감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넓은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대안 주거 방식의 목적으로 드러났다. 한편, 비자발적으로 다른 청년과 공동 거주 가구를 이뤄 사택이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은 갈등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운 가구원과의 관계, 불편한 관계의 가구원과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거 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강압적 주거 규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수준 등 다차원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쾌적하고 넓으며, 주체성 및 사생활이 담보되는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대안 주거 방식의 목적이 되고 있었다. 아울러 원가족과 함께 사는 청년들은 경제적이나 공간적인 부분의 문제는 크게 겪고 있지 않았으나, 부모와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특히 정상가족 담론에 입각한 주거 규범을 강요하는 경우에서 벗어나 가구원 간의 수평적인 관계와 주체성 및 사생활이 담보되는 주거 공간으로 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상 기존 주거 방식에서 인식하는 한계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형성요인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본 연구는 보다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대안적 주거 방식에 주목한 만큼, 일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급진적인 방식으로 임금노동을 넘어선 새로운 생산 방식을 비친족가구를 형성함으로써 영위하고자 하는 계기나 형성 요인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 인식 가운데, 청년들은 우연히 다른 청년과의 교류 가운데 비친족가구를 형성함으로써 대안적 주거 실천의 목적과 이를 위한 목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인원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비는 보다 개선된 주거 공간을 위해 소요되는 높은 주거비를 함께 분담함으로써 대안적 주거 실천의 현실화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고자 하는 청년과 친밀성과 신뢰가 기형성된 만큼, 관계적 차원에 해당하는 대안 주거 방식의 목표 - 갈등 해결이 어렵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주거 규범을 강요하는 가구원 배제, 친밀한 관계의 가구원 확보 - 등을 수월

하게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점을 토대로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기로 결심한 청년들은, 그러나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집중 공급된 주택 구조라는 제한 요인과 충돌하게 된다. 청년들은 부부의 은밀한 사생활을 위해 마련된 가장 좋은 조건의 안방과 기타 하위 조건의 방으로 구조된 주택에서 평등한 주거 효용을 누리는 주거 방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친밀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타협 과정을 거치며 비친족가구로서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청년들의 제한된 자산 하에서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투룸 이상의 다세대 주택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비친족가구 생활에 만족하며, 그 장점으로는 적은 비용으로 누리는 쾌적하고 넓은 주택, 고독감 완화와 함께 사는 재미 경험, 호혜적 돌봄 노동 확보, 타인의 존재로 인한 자기 관리의 강화와 가치관과 부합하는 일상적 실천 등을 언급했으며, 여성 청년들은 또한 범죄 불안 완화와 심리적 안정감과 같은 공간 경험을 장점으로 덧붙였다. 반면 단점으로는 일부 청년들이 가구원과의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 누적, 임시적이며 자신의 공간이 아닌 인식에서 비롯되는 생활의 제약이나 불안정성 등을 언급하며 비친족가구의 기간을 연장하는 데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형성 시에는 생리적 욕구, 관계 및 안전과 관련된 욕구와 관련된 요인이 작용하며, 형성 이후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앞의 요인 외에도 보다 탈물질적이고 더욱 고차원적인 욕구가 작용하여 만족감을 높이고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탈물질적 욕구, 관계 욕구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 새롭게 드러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비친족가구의 장단점 외에도 비친족가구의 유지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년들의 학생 신분의 여부와 결혼에 대한 태도로 나타났다. 이

두 요인은 향후 개인 신상의 변화에 영향을 끼침으로서, 학생의 경우 미래 계획을 고려하며 비친족가구 기간을 형성 초기부터 단기로 설정하는 반면, 근로자인 경우에는 임차 계약 기간에 맞추어 다른 가구원과 논의하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변동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한편, 결혼에 대한 태도에 따라 비친족가구 유지 기간을 살펴보면 비혼 지향형으로 갈수록 장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비혼 지향형 청년들은 정상가족 규범을 강제하던 원가족과의 갈등에서 벗어나 자신을 존중해주는 가구원과 함께 지향하는 가치관을 일상에서 원활하게 실천하며, 결혼이라는 중대사가 장래 계획에서 배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개인 신상의 변동이 줄어들어 비친족가구 기간이 향후에도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반면 결혼 지향형인 경우에는 비친족가구를 정상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름길로 이용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사례가 있어 주목할 만 하다. 구체적으로는 부족한 자산과 높은 주거비라는 사회적 조건에서 결혼 준비가 쉽지 않은 연구참여자가, 비친족가구 형성을 통해 삶의 비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더욱 높은 수준의 주거 공간을 누리면서 원활하게 자산 축적이 이뤄가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정상가족으로 가기 위해 비정상가족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이러한 청년들의 선택은 정상/비정상가족의 이분법적 사고의 균열을 폭로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결혼을 선택으로 여기고 있는 중도형은 가장 다수의 청년들을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부분이 물음표로 다가오는 미래를 기획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와 같이 결혼에 대한 태도를 세분화하여, 이를 청년이 인식하는 비친족가구의 의미와 그에 따른 유지 기간에 대한 논의 또한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추가로 주목한 지점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청년 비친족가구는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처한 주거 불안정성과 자기자신을 중심으로 한 느슨한 관계 추구 성향이 교

차하는 지점에서 발현되고 있으며,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 경험들은 현 시점에서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청년들 고유의 행복과 관련된 특징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점에서 청년들이 기존의 정상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주거 방식 외에, 자신들이 행복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안적 주거를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핵심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 권리’를 주거 방식에서 보장해주는 것으로, 청년 주거 정책에 해당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만족감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청년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제도에 의해 공간적 배제가 일어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게 된 계기와 그 경험에 주목하여 통찰을 이끌어냈다면, 본 연구는 그 가운데 공간적 배제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요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경제적 약자일수록 주거 정책에서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나, 부족한 자산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긴 과정이 요구하는 기회비용을 견디기 어려워 열악한 주거 방식에 고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상가족 형성 이전의 임시적 단계로 여겨지는 청년 1인가구에 집중된 주거 정책과 주택 공급은, 비친족가구로서 청년들이 삶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에 제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었다. 비친족가구로서의 삶이 기존 주거 방식에서 청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크게 장점이 있으며, 실제로 비친족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정상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을 마련하고 확장한다면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친족가구를 형성하는 청년들 내부에서도 다양한 차원에서 이질성이 나타나는 만큼, 청년들을 일원적인 존재로 상정하기보다 세밀하게 구분하여 접근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 본 연구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게 된 배경과 관련 요인이 작용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그 기저에 위치한 청년들의 변화한 관계 욕구와 이들이 처한 열악한 경제 상황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청년 비친족가구 내부의 공통점과 이질성을 토대로 해당 사례들의 사회적 의의와 주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도출한 대안 주거 방식의 형성 및 유지 요인들이 작용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단계화하고, 해당 요인들이 기타 영향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는 상세한 부분들을 드러냄으로서 세부적인 정책 마련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청년 비친족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해당 방식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다수의 비친족가구 사례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주택 및 가구 변동 과정을 분석하는 주거사 및 양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해본다.

참 고 문 헌

- 구선아, 장원호(2020), 느슨한 사회적 연결을 원하는 취향공동체 증가 현상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 57, 65-89.
- 구재선, 김의철(2006), 한국인의 행복 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2), 77-100.
- 권민지(2018), '내 집' 만들기, 공간과 사회 28(3), 271-301.
- 김수진, 김호범(2019), 1인 가구 소비지출의 특징과 결정요인 분석, 지역사회연구 27(2), 13-37.
- 김준형(2018), 청년의 주거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통계개발원, 238-244.
- 김태완, 강예은(2020), 청년 가구의 경제 현황과 지원 방안, 보건복지포럼 284, 47-58.
- 김화진, 김경신(2015), 1인 가구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 광주지역 1개구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6), 115-128.
- 김혜경(2013), 부계 가족주의의 실패?: IMF 경제위기 세대의 가족주의와 개인화, 한국사회학 47(2), 101-141.
- _____ (2017), 가족 이후의 대안적 친밀성 - 비혼 청년층의 공동주거 사례를 통해 본 돌봄과 우정의 공동체 실험, 한국사회학 51(1), 155-198.
- 노승철, 이희연(2009),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 불안정성 변화에 관한 연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경제 지리학회지 12(4), 507-520.
- 박미선(2017), 한국 주거불안계급의 특징과 양상: 1인 청년 가구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7(4), 110-140.
- 박민자(2004), 혼인의미의 시대적 변화, 가족과 문화 16(1), 109-135.
- _____ (2006), 행복가족의 요소와 의미, 가족과 문화 18(4), 183-205.
- 박애리, 심미승, 박지현(2017), 청년세대의 주거 빈곤 진입과 주거 불안정성

- 인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9(2),1-20.
- 신유진(2020), 페미니스트 대안 주거로서의 '함께살기(living together)' : 비혼 청년 여성들의 '집 꾸리기(doing home)' 실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오근상, 오문현, 김은영, 남진(2013), 서울시 소득계층별 주거 상·하향 이동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8(5), 127-144.
- 유수진, 조희선(2019), 청년세대의 주거공동체 경험을 통한 식구되기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2), 139-155.
- 이명선, 송현중, 김보영(2018), 1인 가구의 신체적 건강수준, 건강행태와 주관적 우울감의 관련성,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5(2), 61-71.
- 이재경(2015), 가부장제 이후의 한국 가족 - 정상성에서 유연성으로 -, 한국문화연구 29, 283-310.
- 임덕영, 이경애, 진미윤, 이의중(2018), 청년 주거 문제와 정책 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보고서.
- 조혜정(2013),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4(1), 157-184.
- 전상인(2008), 도시화와 아파트 주거문화,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08(2), 47-74.
- 정민우, 이나영(2011a), '가족'의 경계에 선 청년세대 = 성별화된 독립과 규범적 시공간성, 경제와 사회 89, 105-145.
- _____ (2011b),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 고시원 주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5(2), 130-175.
- 정영애, 장화경(2010), 가족과 젠더, 경기도: 교문사.
- 박인권(2015), 포용도시: 개념과 한국의 경험, 공간과 사회 25(1), 95-139.
- 백진이(2007), 한국 기혼여성의 가족 경험: 가족주의와 변형적 친밀성의 결합, 담론 201 10(3), 241-269.
- 장경섭(2011), 위험회피 시대의 사회재생산: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가

- 족과 문화 23(3), 1-23.
- 황두영(2020), 외롭지 않을 권리 -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서울: 시사인북.
- Bauman, Zygmunt(2006). *Liquid Fear*, Cambridge: Polity Press. 함규진 역(2009), 유동하는 공포, 서울: 웅진씽크빅.
- Giddens, Anthony(1992),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황정미, 배은경 역(2003),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서울: 새물결.
- Gilly, M. C., & Enis, B. M.(1982), *Recycling the Family Life Cycle: A Proposal for Redefinitio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9(1), 271-276.
- Goffman, Erving(1972), *Relations in public : microstudies of the public order*, London: Penguin Books.
- Halberstam, Judith. 2005. *In a Queer Time and Place: Transgender Bodies, Subcultural Live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 Ji, Y.(2015), Asian Families at the Crossroads:a Meeting of East, West, Tradition, Modernity, and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031~1038.
- Lesthaeghe Ron(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211-251.
- McDowell, Linda(1999), *Gender, Identity and Place: Understanding Feminist Geographies*, Cambridge: Polity Press. 여성과공간연구회 역(2010),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서울: 한울.

- McKee, K. (2012). *Young people, homeownership and future welfare*. *Housing Studies* 27(6), 853~862.
- Murphy, E. P., & Staples, A. W.(1979), *A Modernized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1), 12-22.
- Rowntree, B. S.(1903), *Poverty: A Study of Town Life*, London: Macmillan.
- White, Naomi Rosh(2002). '*Not Under My Roof!*': *Young People's Experiences of Home.*, *Youth and Society* 34(2), 214~231.
- Wyn, Joanna and White Rob(2000). *Negotiating Social Change: The Paradox of Youth.*, *Youth and Society* 32(2): 165~183.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가죽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건강가정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79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7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년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59613> 최저주거기준.
- 미국 판례 사이트 중 Braschi v. Stahl Assocs. Co.의 사례. <https://www.lexisnexis.com/community/casebrief/p/casebrief-braschi-v-stahl-assocs-co-1275809724>
- 인구주택총조사 사이트 중 조사항목 설명 부분. https://www.census.go.kr/cds/cdsSurvItmView.do?q_menu=1&q_sub=2

UN Habitat 사이트 중 포용도시(The Inclusive City) 관련 설명
[https://mirror.unhabitat.org/content.asp?cid=2095&catid=25&ty
peid=24&subMenuId=0](https://mirror.unhabitat.org/content.asp?cid=2095&catid=25&ty
peid=24&subMenuId=0)

고성민(2021.5.7.), “세어하우스, 꼭 모르는 사람과 살아야 하나요?”… 용산
청년주택 미달 쇼크,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
general/2021/05/07/VVBKPN24IRALXHBPEHTD4TRBH4/](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
general/2021/05/07/VVBKPN24IRALXHBPEHTD4TRBH4/)

김나윤, 고성표(2021. 03. 27.), “방안 가득 쓰레기·취업 책 남기고…” 취약
한 2030 심리·물질적 고립 이증고,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21523>

김수진(2020. 10. 18.), [팩트체크]'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자가 인구조
사 대상이라면?,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6144400502>

이소은(2020.4.11.), "모르는 사람이랑 동거하긴 좀…" 외면받은 청년주택,
머니투데이, [https://news.
mt.co.kr/mtview.php?no=2020040615410839594](https://news.
mt.co.kr/mtview.php?no=2020040615410839594)

전재욱, “[ESF 2020]”1인가구 대세..세탁은 대형, 음식은 배달”, 이데일리뉴
스, 2020.6.11., 2021.5.1.검색,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837
606625800736&media CodeNo=257](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837
606625800736&media CodeNo=257)

Abstract

A Study on youth
non-relative households
as alternative housing practices

- Focusing on housing and relationship needs -

Park JungHyu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Major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case of youth non-relative households appearing as an alternative housing practice in a situation where youth's housing problems are in full swing due to the deepening of economic instability among youth, and interest in various family types and loose relationships is increasing. By examining the spatial experiences that youth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voluntarily forming and maintaining non-relative households by breaking away from the existing housing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social meaning of youth non-relative households and implications for housing policies.

The housing methods that youth can generally choose, such as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one-room housing method, shared housing with dormitory method, and family with two-room or more rooms housing method, have revealed the housing situation of youth that is poorer than expected. These existing housing methods were generally difficult to satisfy the housing and relationship needs of youth. Recognizing these limitations, youth tried to secure more comfortable housing, close but loose and equal household members, relaxing the burden of housing costs, and a living space that guarantees privacy and subjectivity. For this, youth formed non-relative households with other young people who had established intimacy and trust as an alternative housing method.

In addition to the factors that led to this alternative housing practice, the daily practice as a non-relative household additionally satisfied the need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related to safety, relationships, respect, and self-actualization. Meanwhile, in some cases, conflicts have accumulated due to heterogeneity among household members, and the fact that the corresponding residential space was a rental type and a space to live with others revealed limitations in securing stability as one's own space. On the other hand, the conditions placed on the research

participants, such as student status and attitude toward marriage, which are judg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hanges in personal identity in the future, were found to be major factors that also affect the duration of non-relative households.

Based on the spatial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forming and maintaining non-relative households as an alternative housing practice, it was found that youth non-relative households are emerging at the intersection of housing instability and the perception of young people who are weakening the traditional view of the family.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young people forming households and moving to higher-level housing, the limitations of housing policies were revealed. In other words, the systems that have been reproduced by normative spatio-temporality do not take into account abnormal families such as non-relative households in the housing policy, and low-income or non-regular youths give up the benefits of housing policies due to the opportunity cost of long-term procedures. As a result, the problem of spatial exclusion was aroused.

Furthermore, in order to prepare a more improved housing policy,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relational benefits of non-relative households can be achieved when the 'right to live with the desired person' is guaranteed. It should be noted that in order to take the relational advantage of the alternative housing of non-relative households voluntarily pursued by these young people, it can be achieved when the

'right to live with anyone they want' is guaranteed. It is required to flexibly reflect this right in housing policies.

Nevertheless, in the process of forming and maintaining non-relative households, the different conditions and family views of young people are reflected in the spatial experience. This suggests that a detailed approach should be taken in consideration of the heterogeneity of young people when formulating a housing policy that considers non-relative households.

keywords : youth, non-relative households, alternative housing,
normal family, spatial exclusion, normative
spatio-temporality

Student Number : 2019-25420